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
2018.10.4(목) 17:00~17:30
조선평텔 그랜드볼룸(1F)

목차

I. 전망

1. 2019년 전망
2. 중장기 전망

첨부1: 2019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첨부2: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II. 경영 및 정책과제

1.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2.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3.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4.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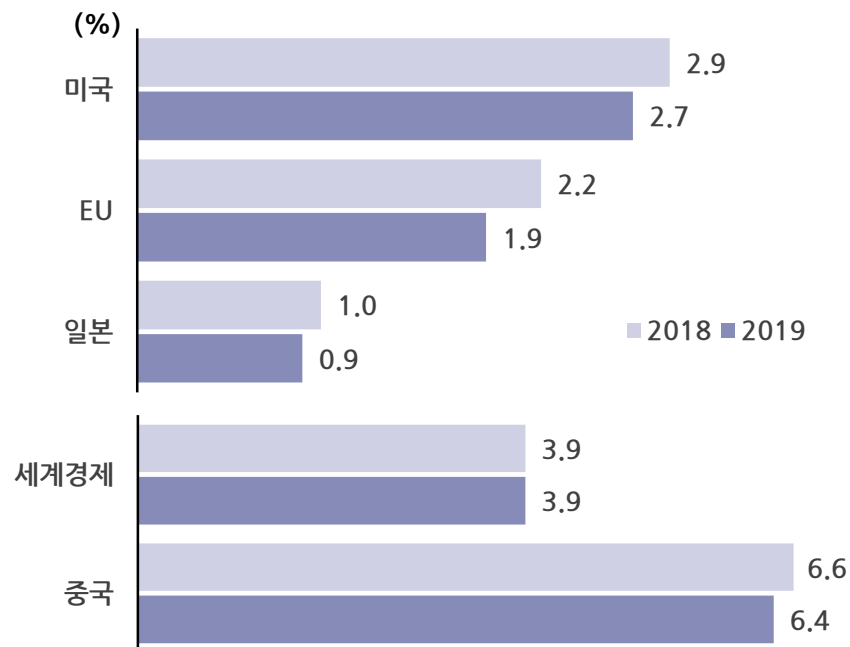
I. 전망

1. 2019년 전망
2. 중장기 전망: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을 중심으로

1) 세계경제

- IMF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8년과 같은 3.9%로 전망함
 - 미국 경제는 실업률 개선, 일본 경제는 민간소비 증가, 수출수요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 반면 중국 경제는 금융규제 강화와 수출수요 감소로 전망치가 하락하였고 유로 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전망됨
- 미국은 경기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으로 기준금리를 2019년 말까지 4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경제와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WEO update(2018.7)

경제성장의 위험 / 기회요인

미국

- 실업률 개선
- 소매판매 증가

EU

- 투자 및 소비심리 개선
- 내수 회복

일본

- 수출 및 직접투자 증가
- 고용개선으로 완만한 소비 증가

세계경제

- 무역분쟁 확산 등 불확실성
- 신흥국 금융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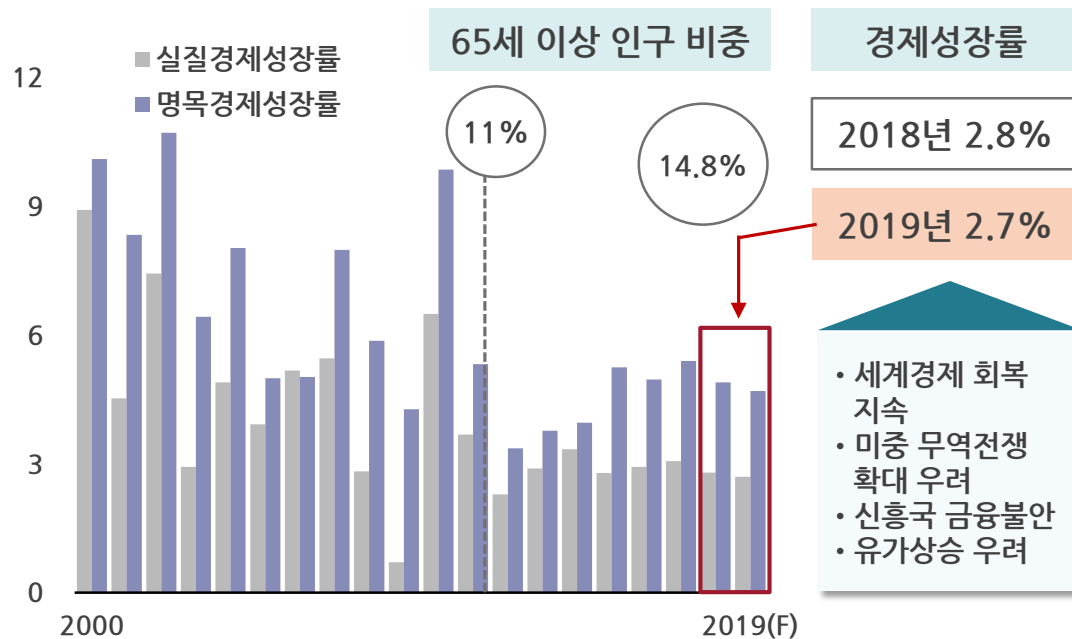
중국

- 금융규제 강화
- 수출수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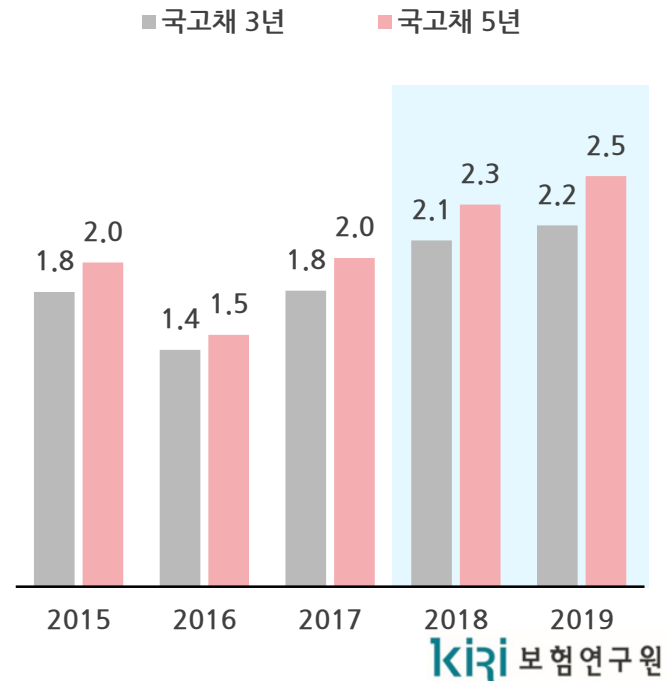
2) 국내경제

- 2019년 경제성장률은 내수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로 2.7%로 전망됨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신흥국 금융불안, 유가상승 등이 위험요인임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의 부채부담 확대, 투자위축 및 내수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국고채 3년 금리는 경기부진으로 2019년 2.2%로 전망됨
 -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가계의 부채부담, 경기, 한미금리차, 원화가치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될 것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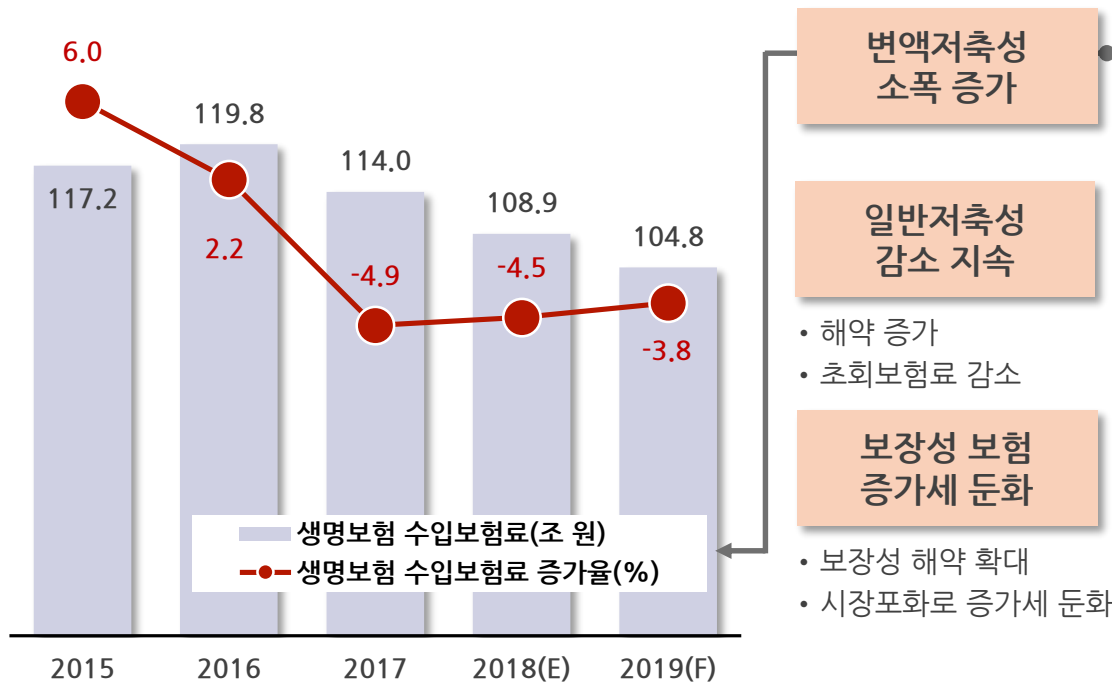
금리 전망



3)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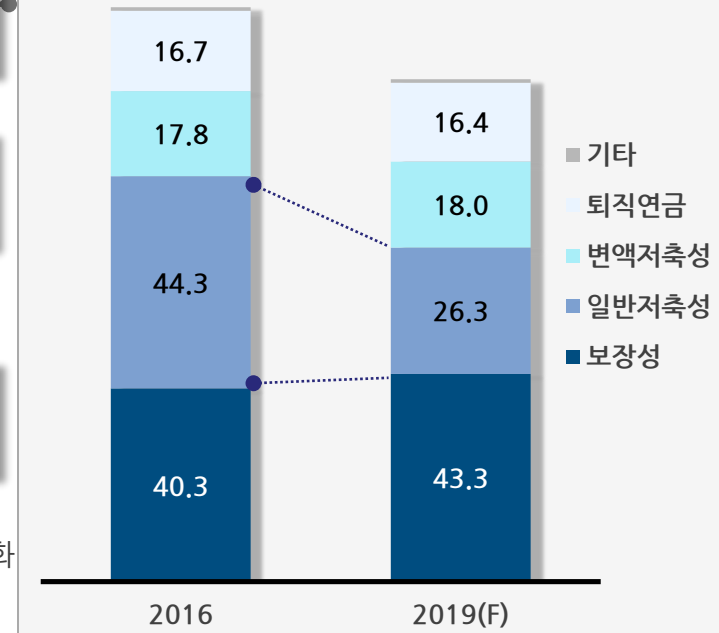
- 저축성보험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가계의 부채부담으로 해약환급금이 증가함
- 변액저축성보험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로 2019년 수입보험료는 3.8% 감소할 전망이다
 - 경기부진으로 보장성보험 해약이 확대되고 판매수수료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보장성보험 감소세 확대가 우려됨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생명보험 종목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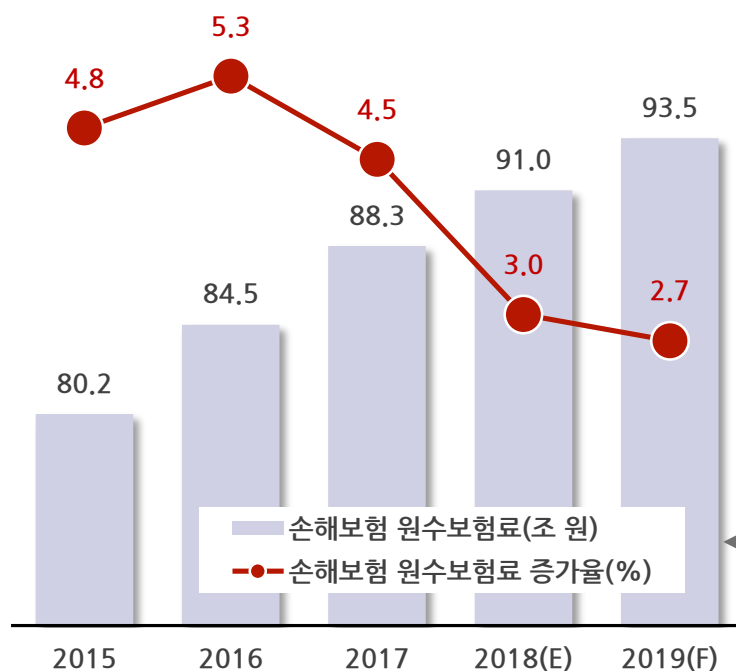
(단위: 조 원)



4) 손해보험

- 장기손해 상해/질병, 일반손해보험의 증가로 2019년 원수보험료는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 부진과 장기 저축성보험 감소가 계속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영향이 구체화되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하락할 전망이다
 -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 반영 여부에 따라 손해보험 보험료 전망이 달라질 것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일반손해보험
증가세 지속

자동차보험
증가세 둔화

- 할인특약 확대
- 보험료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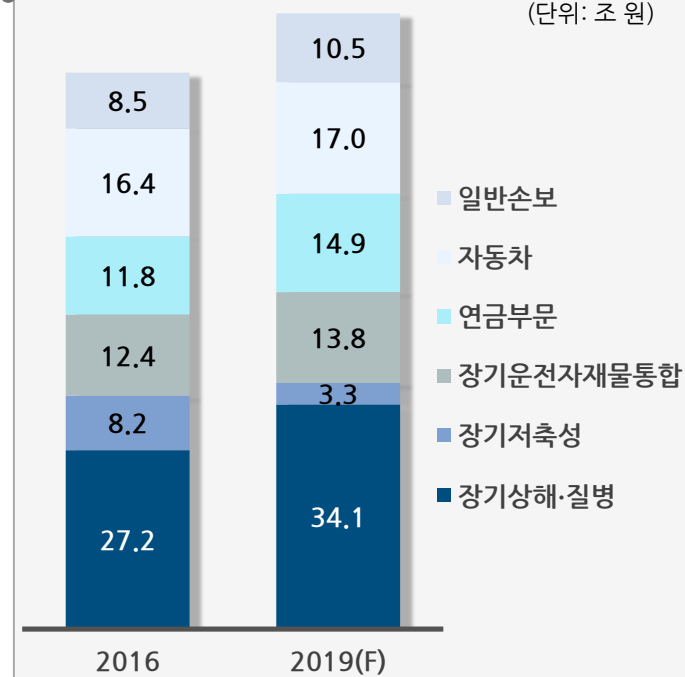
장기저축성
감소 지속

- 판매수수료 감소
- 낮은 보증이율

장기손해
상해/질병 증가

손해보험 종목별 규모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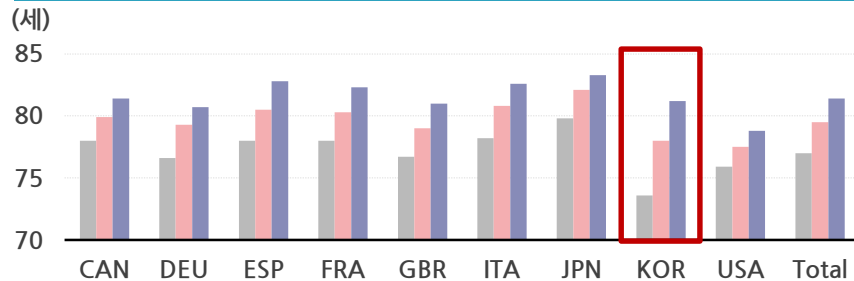
I. 전망

1. 2019년 전망
2. 중장기 전망: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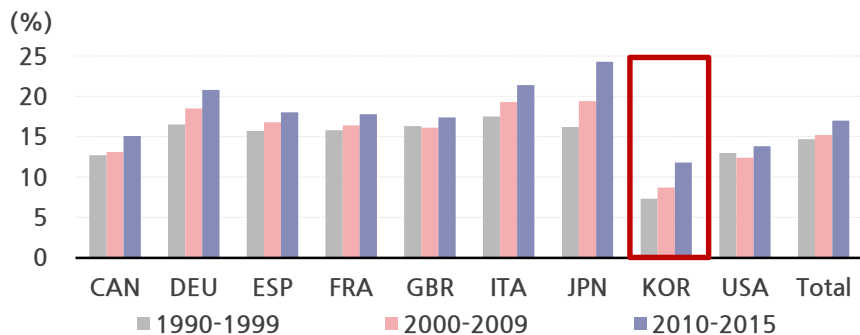
1) 기대여명과 생산가능인구

- OECD 주요국의 과거 2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대여명이 상승할수록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더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과 금리하락, 공적보장 영역 축소, 수입보험료 등 금융산업 규모 감소로 이어지고, 금융산업 규모 감소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주요국의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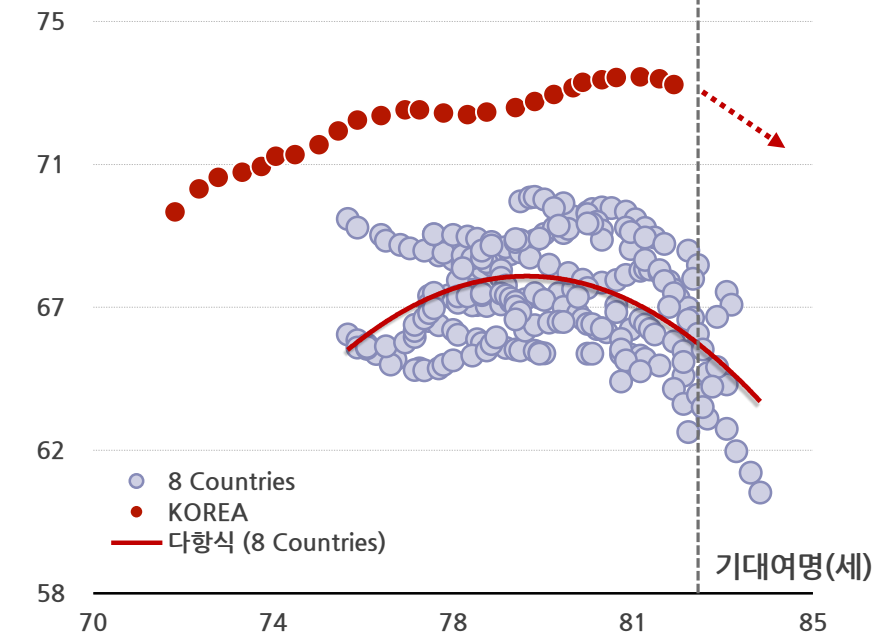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기대여명과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생산가능인구 비중(%)



2) 경제성장률과 공적보장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재정건전성 악화 및 공적보장 축소로 이어짐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중장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2.5% 내외로 전망됨
 - 고령인구 증가로 재정지출은 증가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재정수입은 감소함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일본, 스페인 등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장을 축소함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13

8

3

-3

-8

OTHERS

KOREA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3 9 16 22 28

65세 이상 인구 비중(%)

인구고령화와 공적보장 축소

일본 공적연금 주요 제도 변화

- 1973년 소득대체율을 상향
- 1994년 보험료 인상
- 2004년 보험료 상한율을 18.3%로 고정

일본 건강보험 주요 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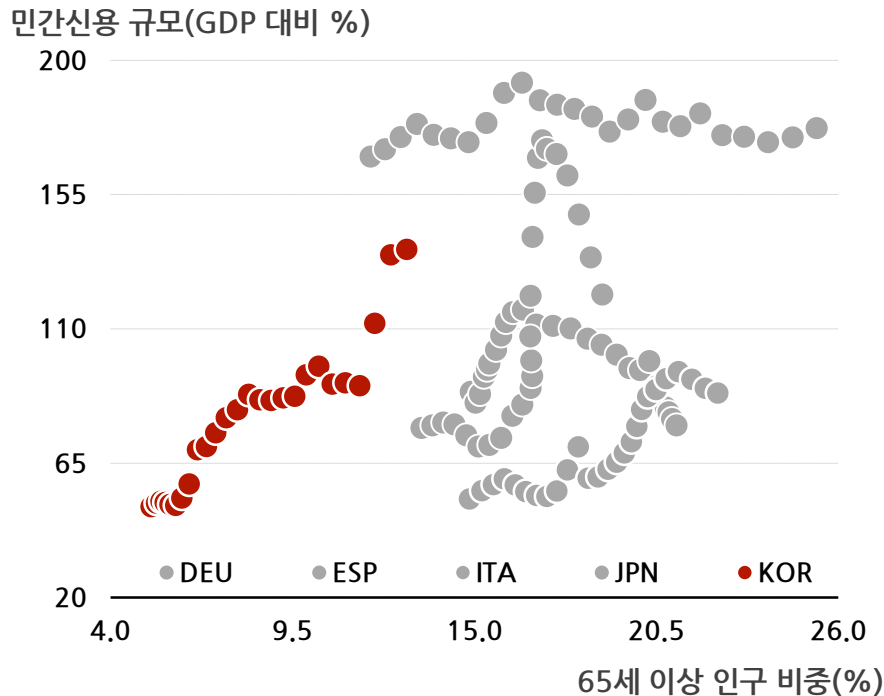
- 1973년 노인의료무료화 실시
- 1997년 근로자 대상 본인부담 20% 인상
- 2002년 본인부담 30%로 인상, 노인의료 대상연령 75세 상향
- 고령자 자기부담비율 세분화

자료: 윤성훈(2018), 「인구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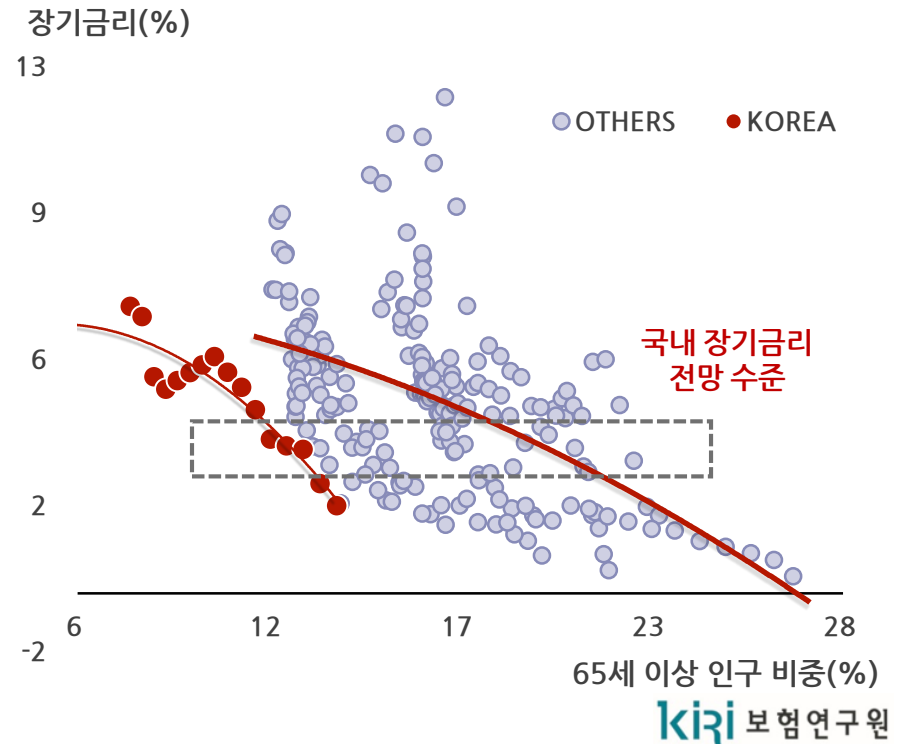
3) 금융수요와 장기금리

- 고령인구의 증가는 금융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경우, 신용시장의 규모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정 수준까지 상승한 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성장을 하락과 자금수요 부진으로 장기금리는 중장기적으로 2.5-3.0%로 전망되는데, 금리의 장기추세를 고려하면 막연한 금리상승 기대감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민간신용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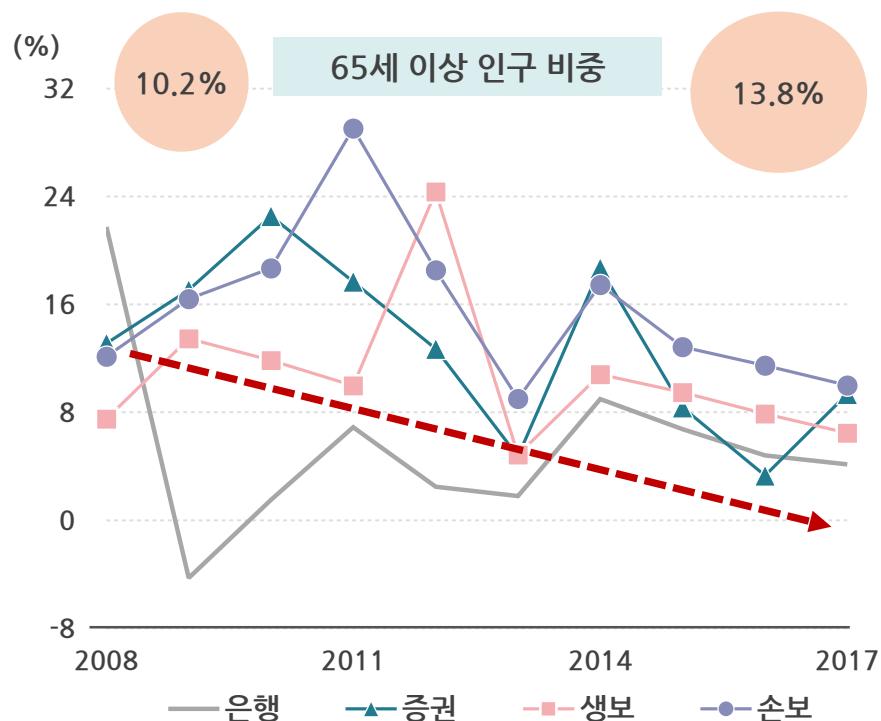
인구고령화와 장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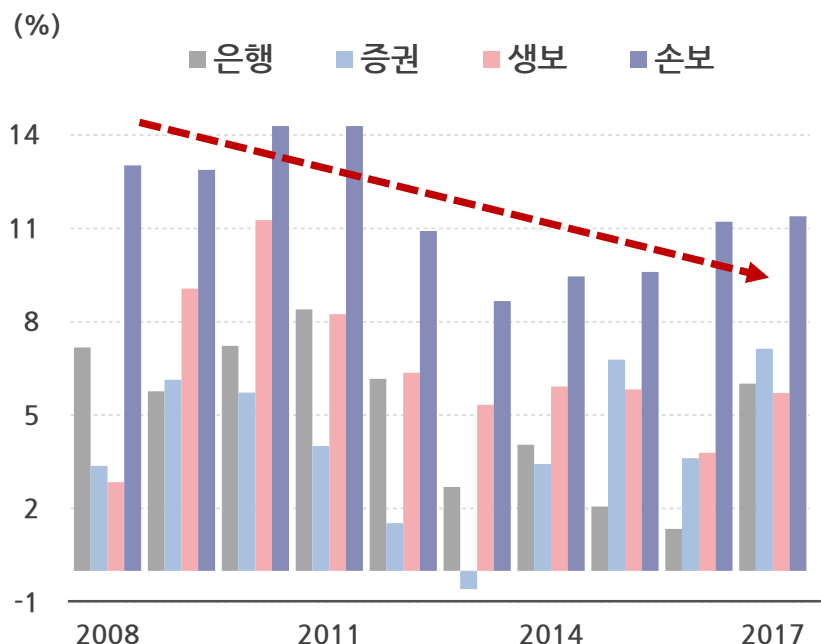
4) 금융산업 성장성과 수익성

- 고령인구의 증가는 은행업 등 타 금융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은행의 자산증가율은 2008년 21.8%에서 2017년 4.1%, 증권은 같은 기간 13.1%에서 2016년 3.3%, 생명보험은 2012년 24.4%에서 2017년 6.5%로, 손해보험은 2011년 29.0%에서 2017년 10.0%로 하락
 - 자기자본이익률도 공통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금융업권 자산증가율 추이



금융업권 자기자본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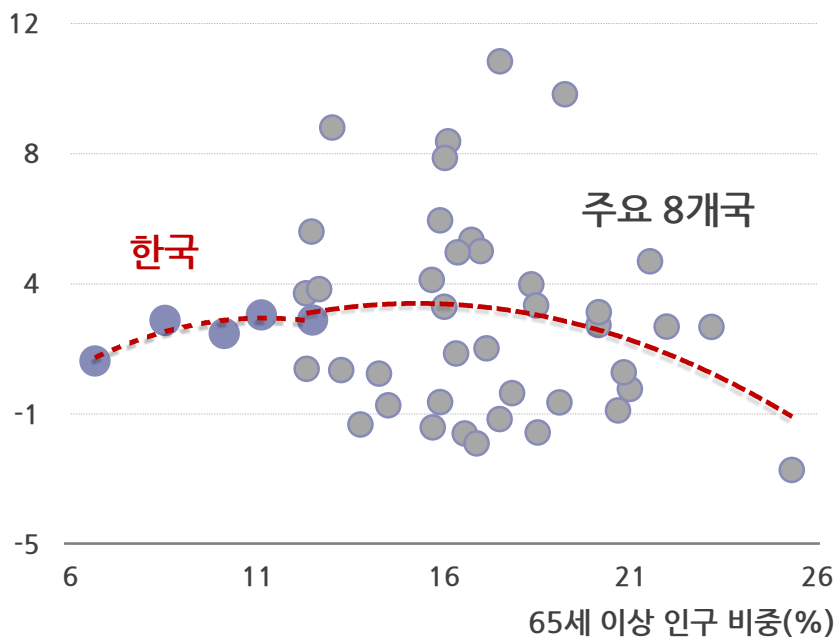


5) 수입보험료

- 수입보험료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성장률과 금리가 하락하고, 신규수요가 감소하는 시장포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둔화됨
- 성장성이 둔화되면 수익성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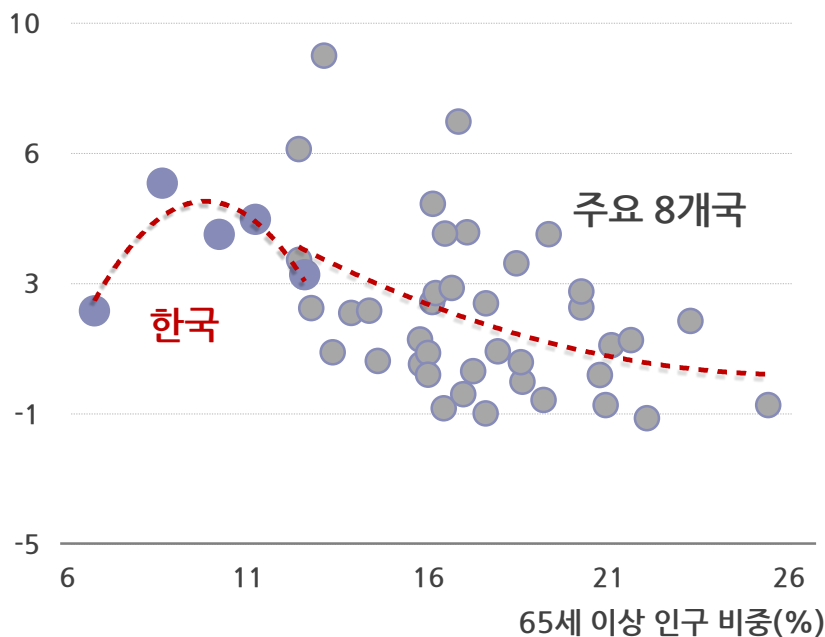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연평균 증가율(%)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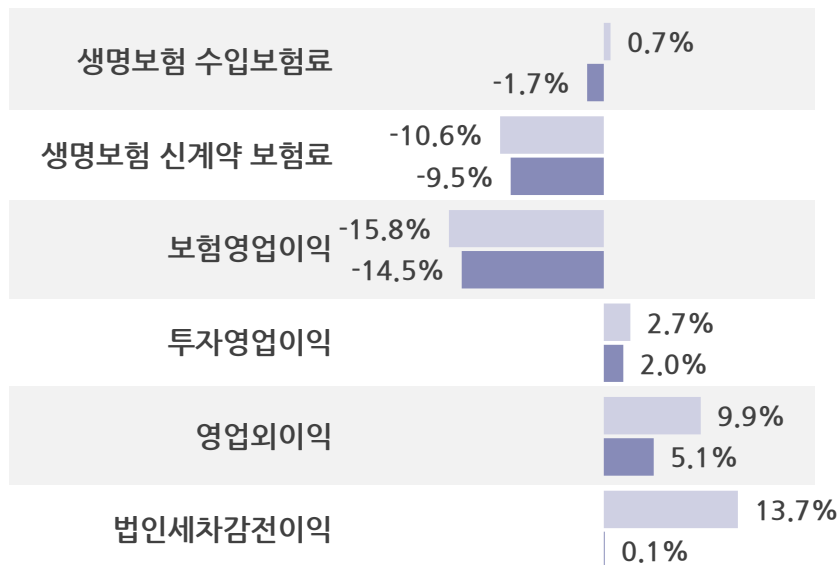
원수보험료 연평균 증가율(%)



6) 중장기 전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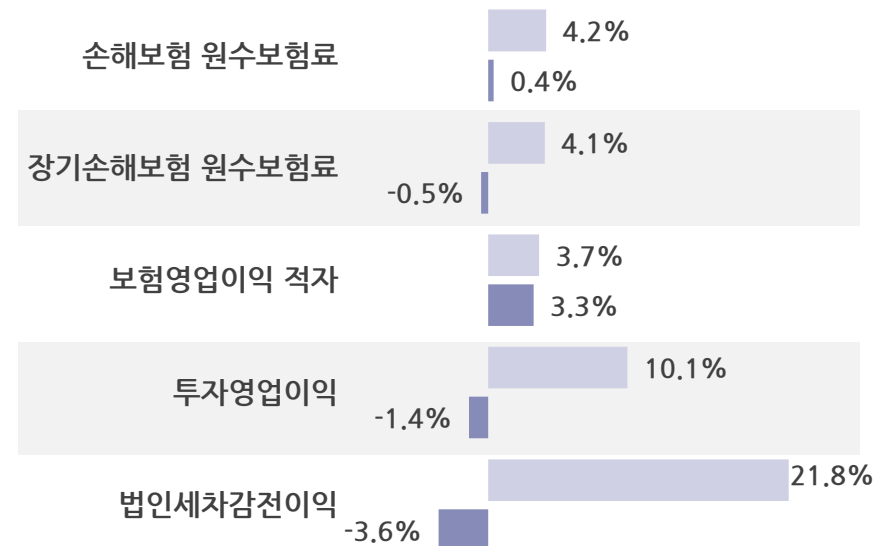
- 인구구조와 경제환경의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가정하여 수입보험료와 수익성을 전망함
- 현재의 사업모형을 유지한다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세는 확대되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정체됨
 - 2018년 전망치 기준으로 2022년 생명보험은 연평균 1.7% 추가적 감소, 손해보험은 현재 수준에서 정체됨
- 2022년 법인세차감전이익을 2017년과 비교하면 생명보험은 6.0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손해보험은 5.7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명보험 중장기 전망



■ 2013-2017 CAGR

손해보험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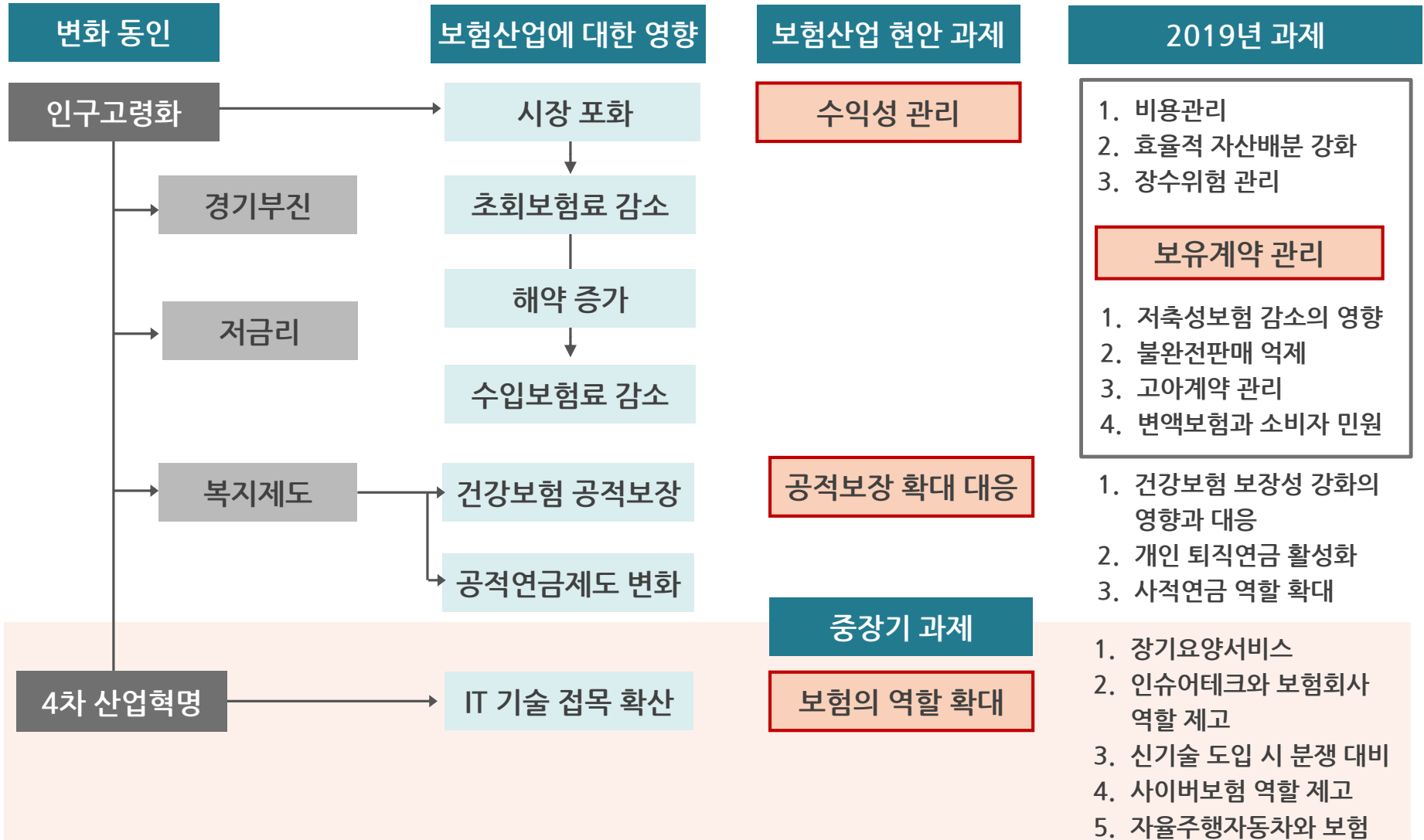


■ 2018-2022 CAGR

II. 경영 및 정책과제

1.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2.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3.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4.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 1) 성장성 제고
 - 2) 수익성 제고
 - 3) 소비자 신뢰 제고
 - 4) 요약

1.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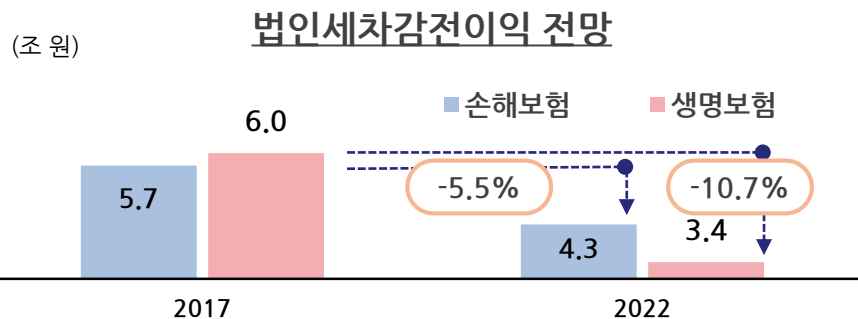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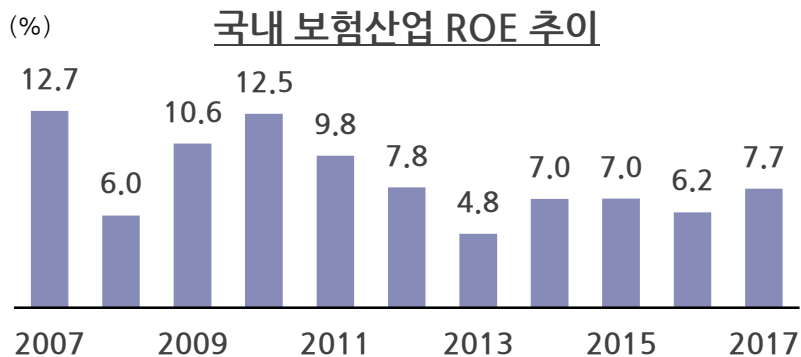
II. 경영 및 정책과제

1.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2.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3.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4.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 1) 성장성 제고
 - 2) 수익성 제고
 - 3) 소비자 신뢰 제고
 - 4) 요약

1) 수익성 관리

- 보험산업의 수익성 하락은 다른 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불가피함
- 수익성 관리를 위해 비용관리와 효율적 자산배분을 강화하고 장수위험 관리를 시작해야 함
 - 유럽 보험회사들의 ROE는 10% 내외인데 비용관리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수익성 현황과 전망



세부과제

비용관리

- 고성장기 수립한 비용관리 전략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일회성 구조조정이 아닌 비용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지향

효율적 자산배분 강화

- 저축보험료 적립금 둔화, 투자영업이익 비중 감소,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에 대응

장수위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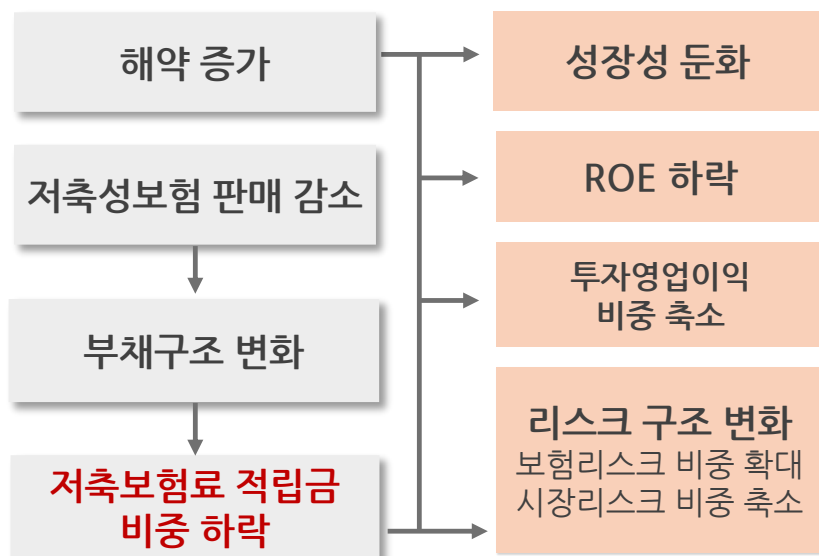
- 2021년 도입 예정인 장수위험은 생명보험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장수위험 관리를 통해 요구자본부담 경감, 자본효율화 모색 필요

* 세부 경영과제는 2019년 전망과 과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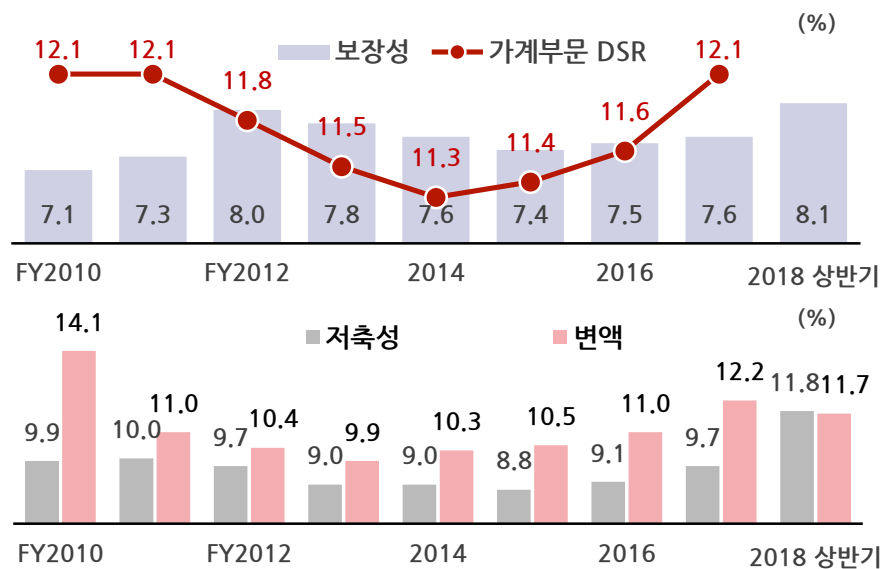
2) 보유계약 관리

- 해약 증가는 부채구조를 변화시켜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해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계약 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억제, 고아계약 관리 등이 필수적이고 보험산업 신뢰 제고가 중요함
 - 최근 변액보험 판매가 늘어나면서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

저축성보험 감소의 영향



해약환급금 증가 현황



경영과제

불완전판매 억제

고아계약 관리

변액보험 민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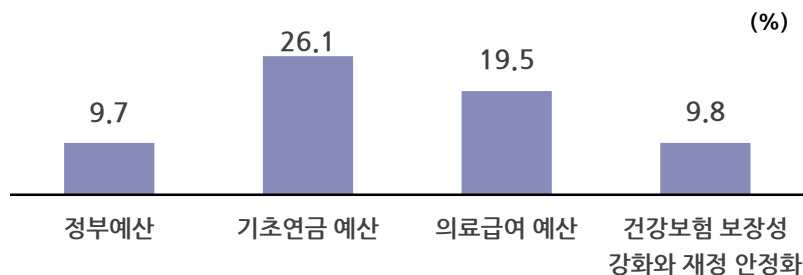
* 세부 경영과제는 2019년 전망과 과제 참조

3) 공적보장 확대 대응

- 2019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바와 같이 공적보장이 확대되고 있고 OECD 주요국에 비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아 공적보장 확대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공적보장 확대는 사적보장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적연금 강화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대에 부합하는 실손의료보험 개선, 저소득층 보장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개발이 필요함

공공복지지출 증가 현황

2019년 예산 주요 항목별 증가율



실손보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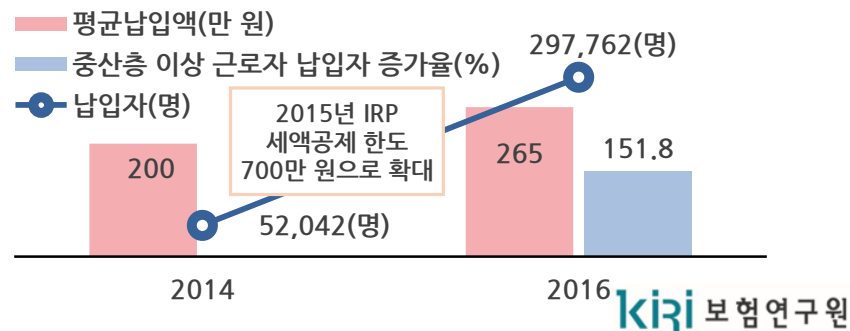
-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 축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보험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보험료 세분화, 차등화 강화, 연간 자기부담금 도입, 평균 보험료 도입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 저소득층의 보장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개발

세부과제

사적연금 강화 방안 모색

- 국민연금 고갈시점, 보험료, 수령연령 등에 대한 논의 확대
- 사적연금에는 기회요인일 수도 있고 위기요인일 수도 있음
- 기초연금 확대가 개인연금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상대적으로 가입율이 낮은 개인형 퇴직계좌의 적극적 마케팅을 검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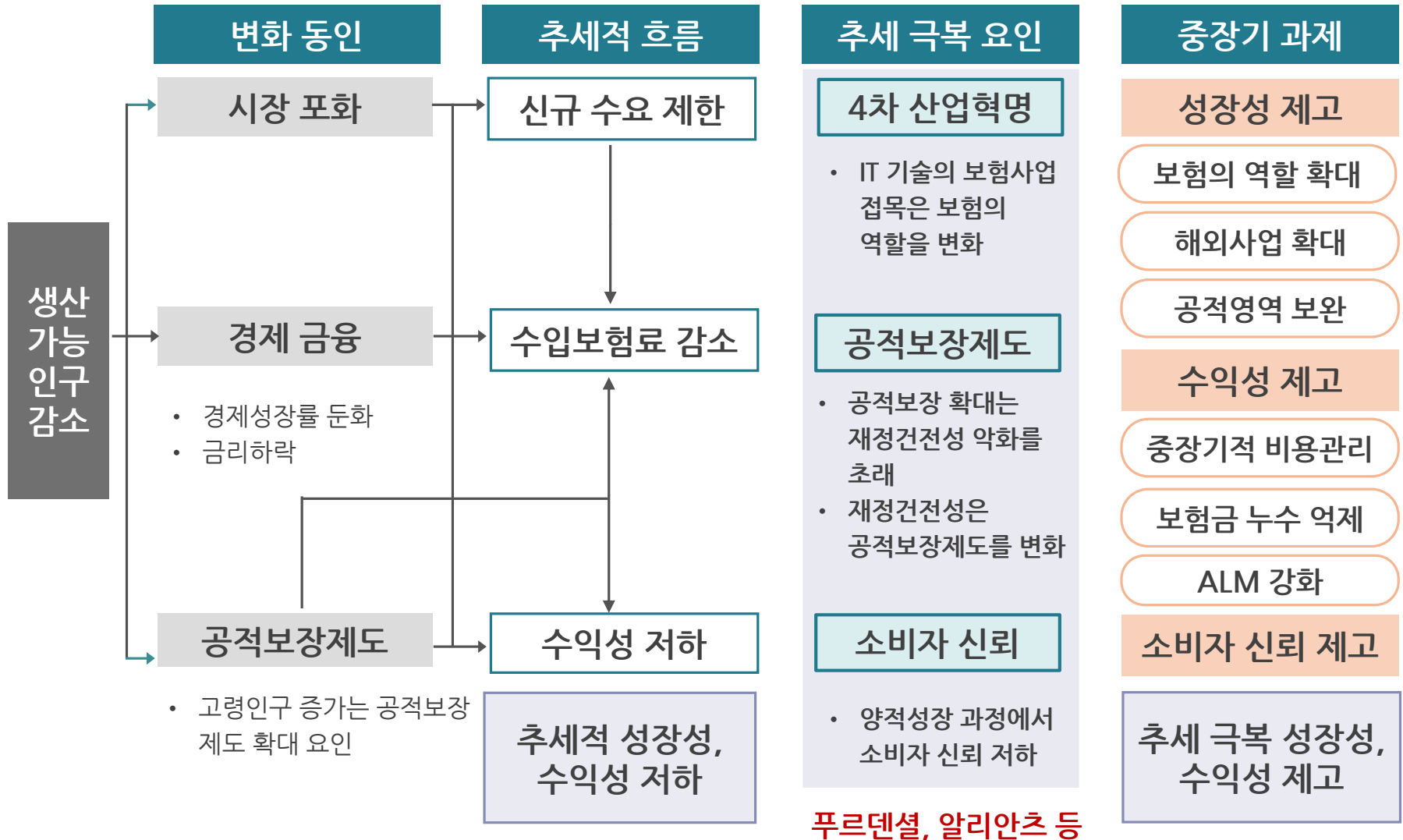
개인퇴직연금 증가율



II. 경영 및 정책과제

1.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2.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3.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4. **중장기 경영 및 정책 과제**
 - 1) 성장성 제고
 - 2) 수익성 제고
 - 3) 소비자 신뢰 제고
 - 4) 요약

3.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II. 경영 및 정책과제

1.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2.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3.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4.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 1) 성장성 제고
 - 2) 수익성 제고
 - 3) 소비자 신뢰 제고
 - 4) 요약

① 보험의 역할 확대

- 고령인구, 치매고령자의 증가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인슈어테크는 보험의 범위를 사이버보험, 자율주행차 보험, 선제적 위험관리로 확대시키고 있음
 - 최근 일본 스미토모 등 대형 보험회사들은 헬스케어 제공업체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 기술,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리스트럭처링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기술, 사회의 변화

양적, 질적 인구구조 변화

- 2040년까지 고령인구 16.9%까지 상승 전망
- 치매유병률 상승
-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

IT 기술 접목 확산

- 4차 산업혁명, 인슈어테크
- 신기술 도입

위험의 변화

- 사이버 위험
-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의 리스트럭처링 (Regulatory Restructuring)

세부과제

장기요양 서비스

- 기존 보험회사의 보장영역을 장기요양 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필요

리스크 통제 기능 확대

- 기술의 발달로 손실의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손실 예방이나 손실 감소 등의 리스크 통제로 역할 확대 추세
-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분쟁 확산 가능성에 대비

사이버보험 역할 제고

- 사이버보험 가입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금융, 바우처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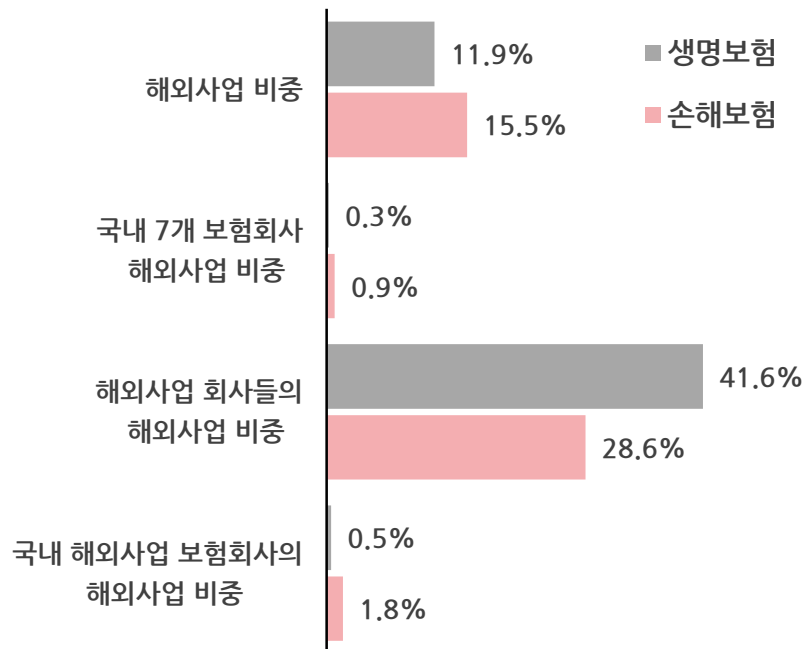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 레벨3 자율주행차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 해킹사고 특약

② 해외사업 확대

- 보험의 영역을 해외시장으로 확대해야 하나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진출 성과는 저조함
- 해외사업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베트남 MS가 10%인 일본 다이이치 생명의 해외사업 이익은 2016년 기준으로 그룹 이익의 27%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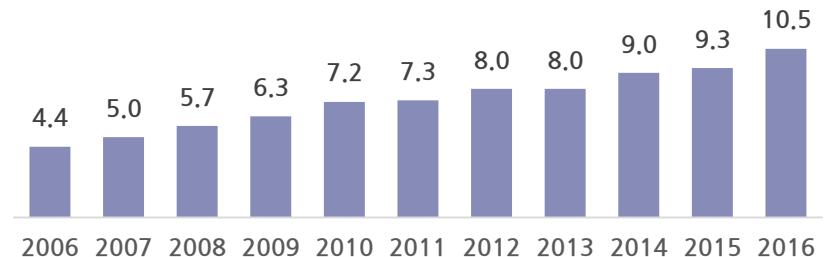
2017년 Fortune Global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다이이치 생명의 베트남 진출 사례

- 2007년 현지 국영법인(Bao Mihn) 지분 100% 인수
- 공격적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이 10년 동안 6.1%p 상승
- 동기간 베트남 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기준 매년 19.5% 성장
- 다이이치 생명은 최근 10여 년 동안 총 6개국에 진출했으며, FY2016 기준 해외사업 이익이 그룹 이익의 27% 차지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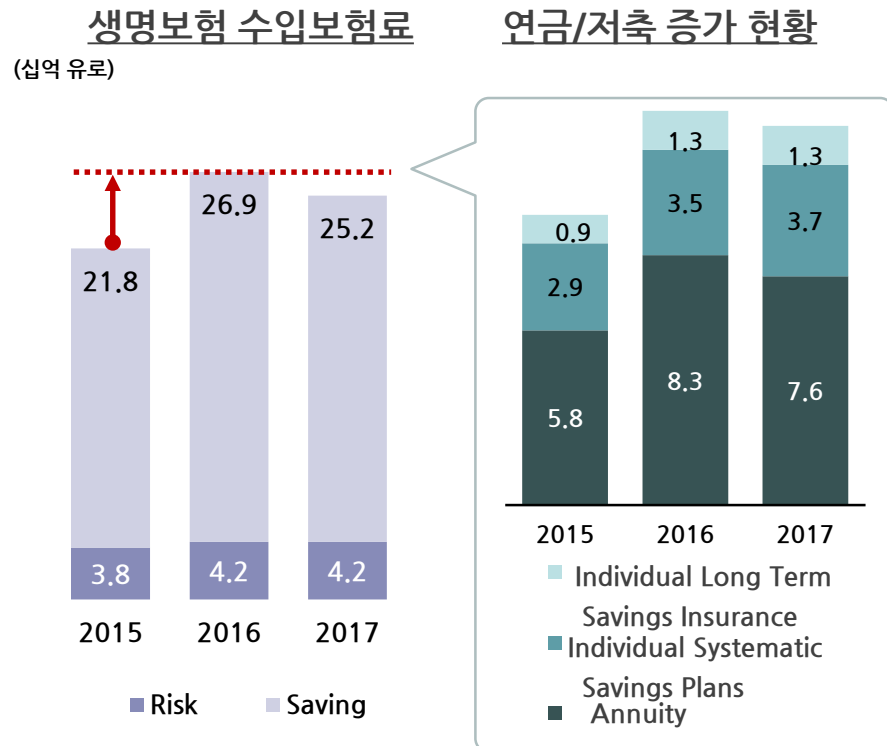


자료: 다이이치 생명, 경영전략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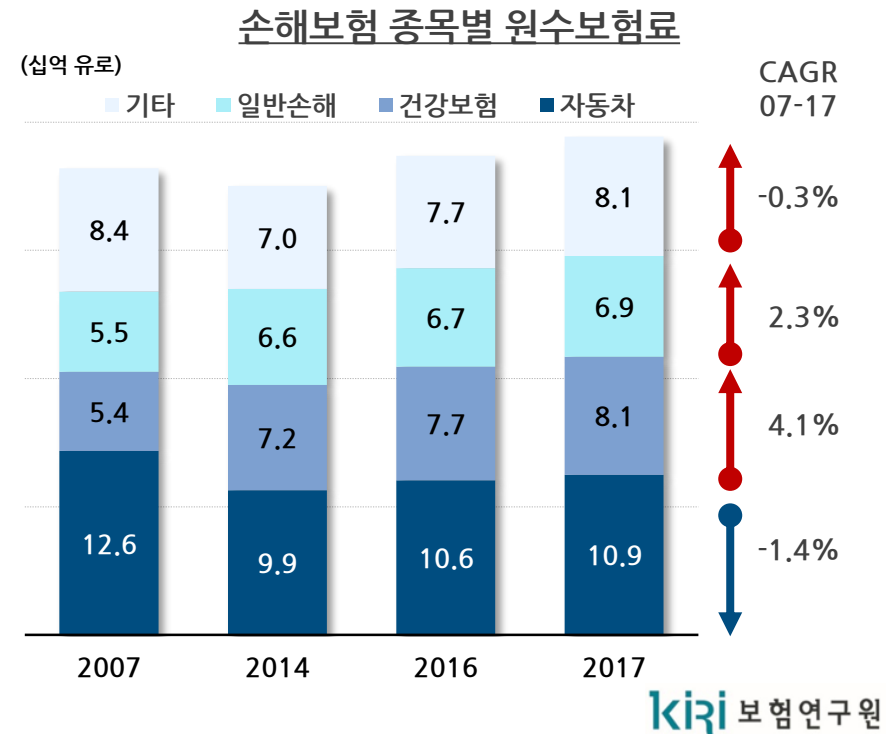
③ 공적영역 보완

-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을 극복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는 공적보장 관련 비용을 줄였고, 이 과정에서 초래된 공적보장의 축소를 보험이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수요를 창출함
 - 2014년부터 공적연금 지급액 축소는 민영보험의 연금 및 저축 수요 증가로 이어짐
 - 2010년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보장 축소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개발을 통해 손해보험 건강보험을 확대함

생명보험 연금저축 증가



손해보험 건강보험 확대



II. 경영 및 정책과제

1.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2.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3.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4.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 1) 성장성 제고
 - 2) 수익성 제고
 - 3) 소비자 신뢰 제고
 - 4) 요약

① 비용관리

- IT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익성 하락을 극복한 원동력이 비용관리로 평가됨
- 유럽 주요 보험회사들의 ROE는 2006년 16.4%로 상승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10% 내외를 유지함
 - 우리나라의 ROE가 2017년 7.7%임을 고려하면 비용관리를 통한 수익성 제고 여지가 있음
 - 유럽 보험산업은 EU 통합으로 경쟁도가 높아졌고 보험료, 위험인수 관련 자율성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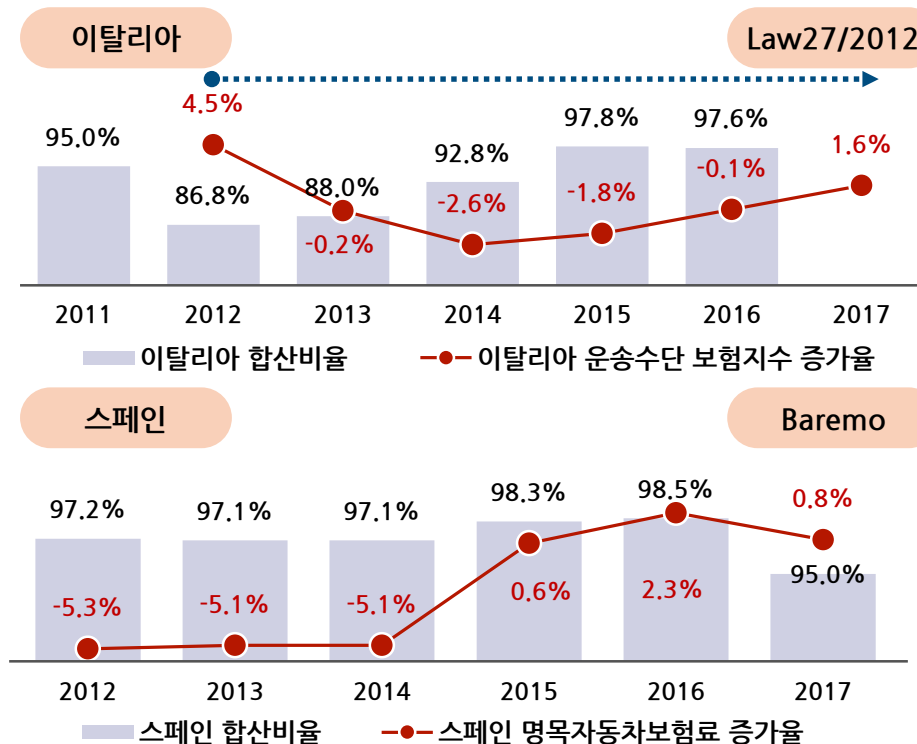
주: 1) Bloomberg

2) BCG(2008), "Creating Competitive Advantage: European Insurance Landscape"

② 보험금 누수 억제

-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강화하여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 보험료 하락과 산업의 경영성과 개선을 이룸
-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소비자 보호와 상충될 수 있지만 스페인은 공신력을 갖춘 인신상해 손해사정인의 평가와 바레모에 근거하기 때문에 민원 이슈는 크지 않음

이탈리아와 스페인 자동차보험 보험료와 합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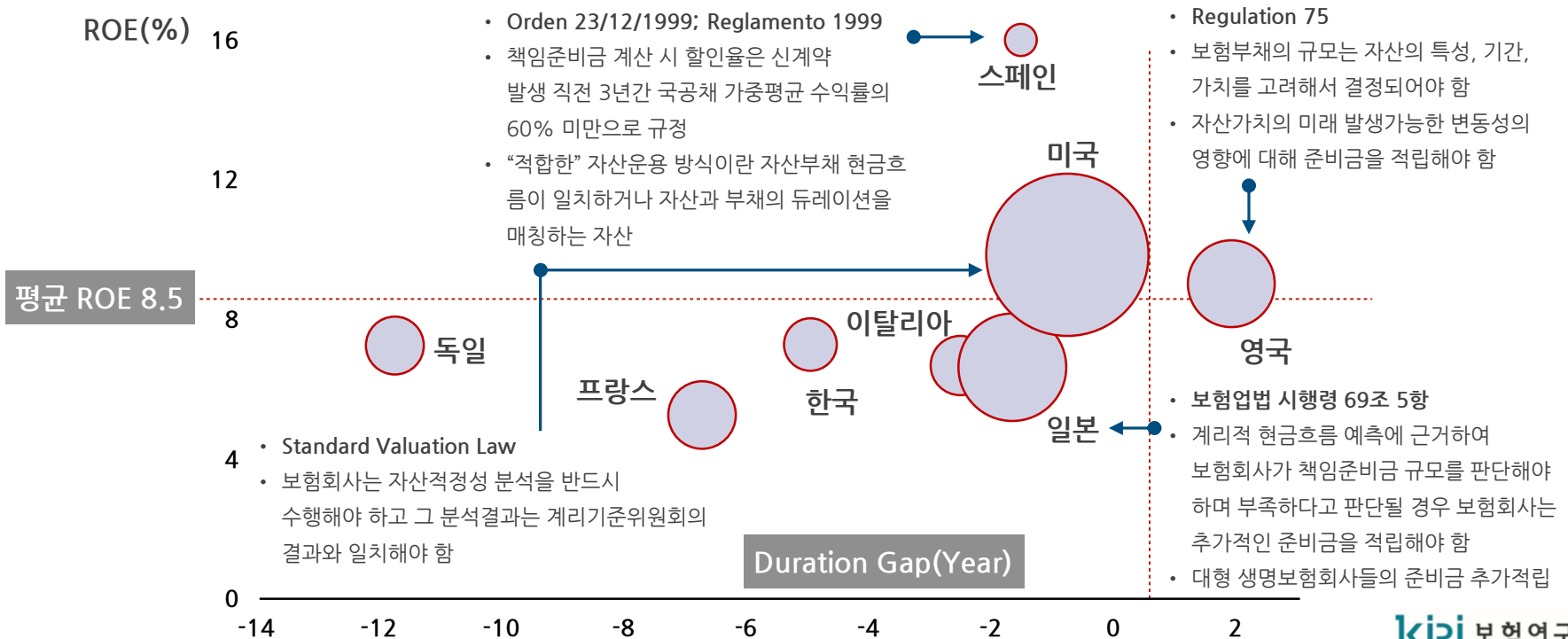
- 2012년 Law 27/2012 제정
-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규정 강화

- 바레모는 1995년 자동차보험 배상시스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 2016년 개정은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한도는 높이고 경상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엄격히 규제하여, 보험금 과잉청구 등 보험사기 억제가 목표
 - 대표적인 경상사고인 경추염좌(Whiplash) 보상은 경추염좌 의료진단, 상실수익 관련 의사의 진단서, 상해의 발생과 상실수익 간 연관관계 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짐(135조)

③ ALM 강화

- 영국, 스페인 등은 자산부채관리를 엄격히 규제하여 시장위험으로 인한 자본비용을 관리하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1998년 제정된 ALM 관련 법률은 보험상품 개발에 필요한 할인율을 규정하고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에 “적합한” 자산운용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ALM 관련 규제는 영업행위 자율성은 보장하고 재무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감독철학에서 비롯됨

2015년 주요국 기준 듀레이션갭과 생명보험 자기자본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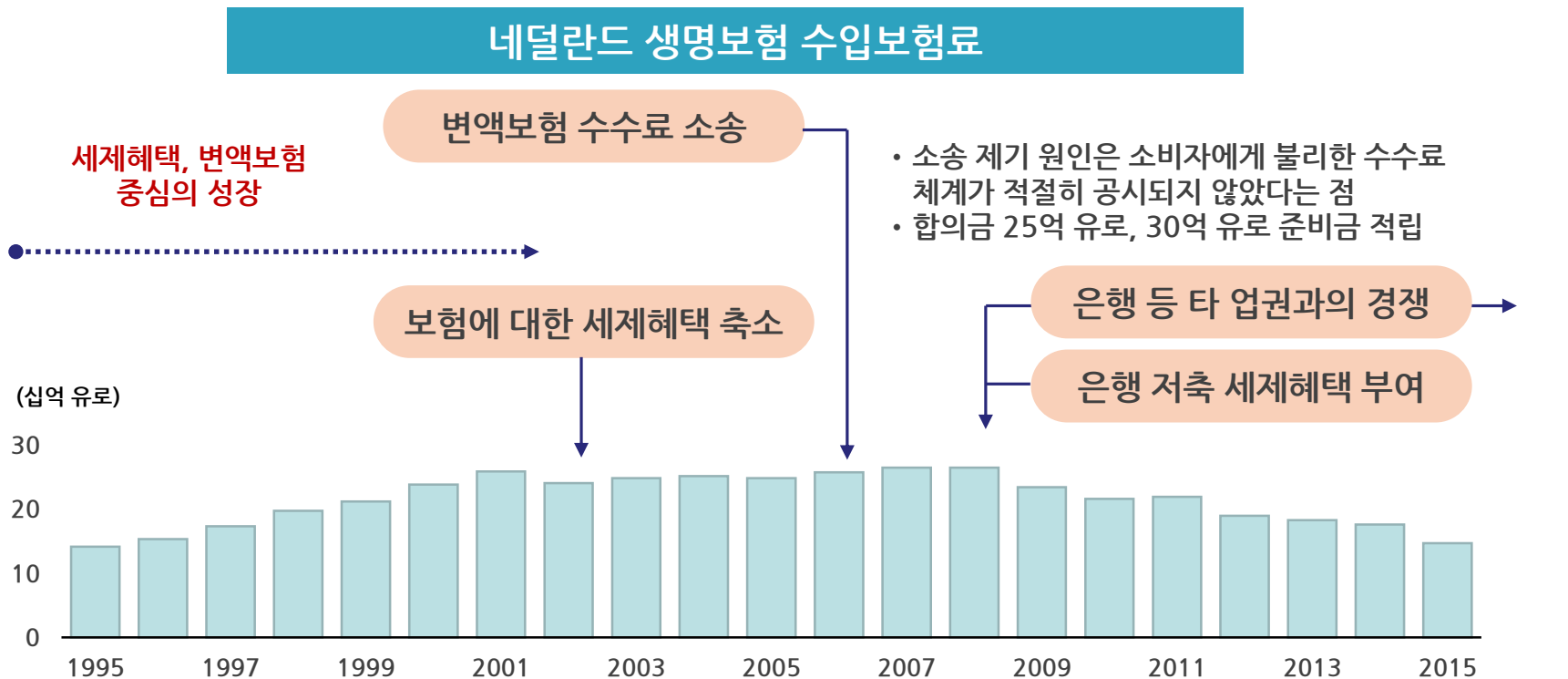
주: 동그라미의 크기는 2010-2015년 평균 보험료

II. 경영 및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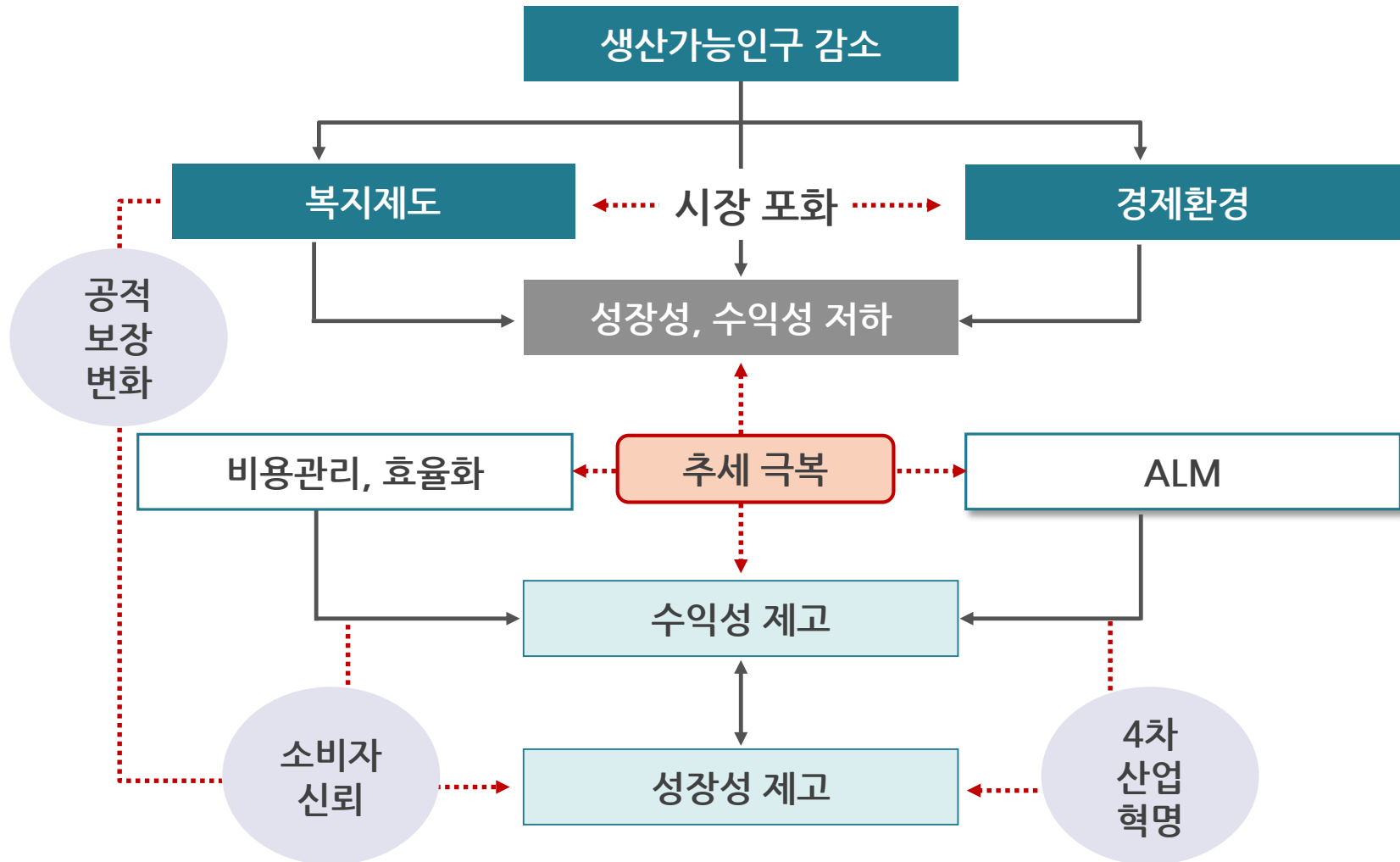
1.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2.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3.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4.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 1) 성장성 제고
 - 2) 수익성 관리
 - 3) 소비자 신뢰 제고
 - 4) 요약

3) 소비자 신뢰 제고

- 네덜란드 생명보험의 2015년 수입보험료는 2008년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감소, 은행의 장기저축이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그리고 변액보험 수수료 소송으로 인한 보험산업 신뢰 저하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함
 - 글로벌 보험회사들도 불완전판매 소송으로 큰 비용을 치렀으며 신뢰 회복에 상당한 투자를 한 경험 있음
- 소비자 신뢰는 지속 성장의 원동력임을 시사함



4) 요약



감사합니다

첨부1: 2019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목차

I. 경제전망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3. 국내경제 주요 이슈

II.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4. 보험권 퇴직연금
5. 요약

[별첨] 종목별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III. 경영 및 정책과제

1.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2. 세부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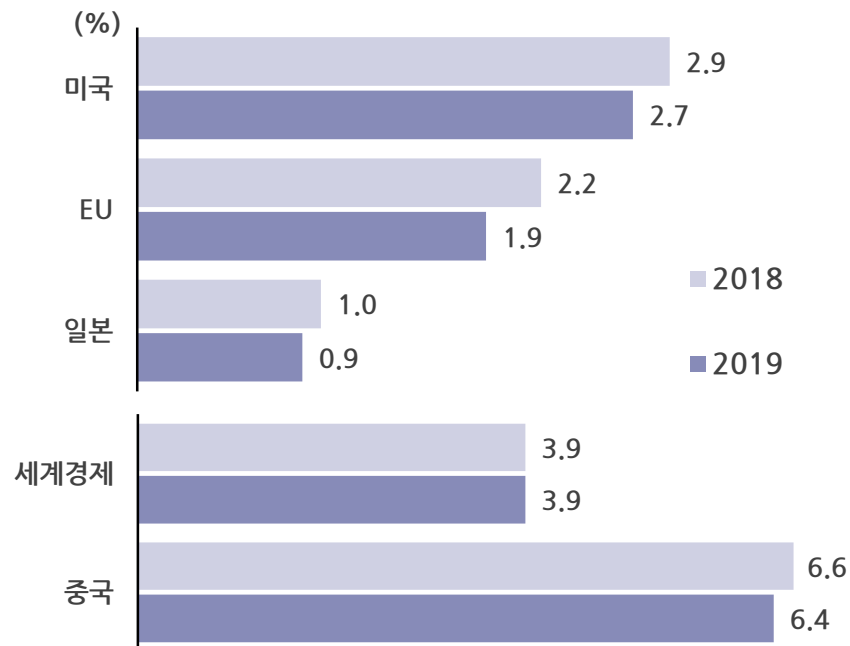
I . 경제전망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 1) 경제성장률
 - 2) 물가성장률
 - 3) 금리
3. 국내경제 주요 이슈
 - 1) 부채와 내수
 - 2) 가계부채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 3) 중국 경제 둔화
 - 4) 유가

1. 세계경제

-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8년과 같은 3.9%로 전망함
 - 미국 경제는 실업률 개선, 일본 경제는 민간소비 증가, 수출수요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 반면 중국 경제는 금융규제 강화와 수출수요 감소로 전망치가 하락하였고 유로 경제는 성장 둔화추세가 전망됨
- 미국은 경기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으로 기준금리를 2019년 말까지 4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경제와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WEO update(2018.7)

경제성장의 위험 / 기회요인

미국

- 실업률 개선
- 소매판매 증가

EU

- 투자 및 소비심리 개선
- 내수 회복

일본

- 수출 및 직접투자 증가
- 고용개선으로 완만한 소비 증가

세계경제

- 무역분쟁 확산 등 불확실성
- 신흥국 금융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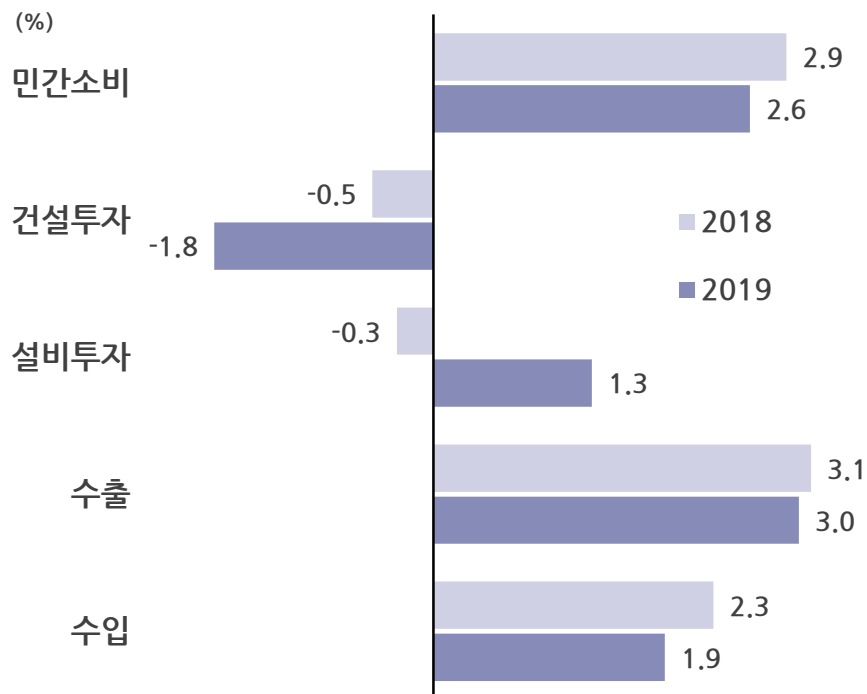
중국

- 금융규제 강화
- 수출수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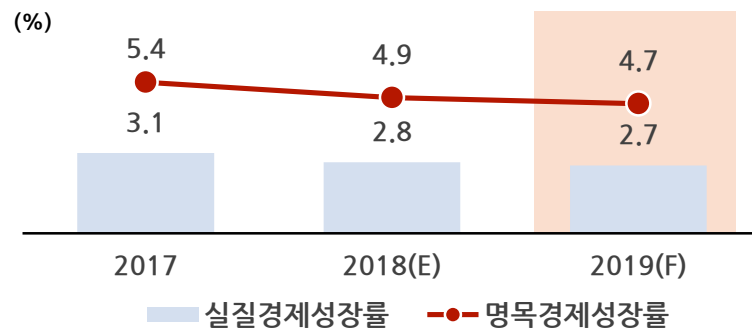
1) 경제성장률

- 2018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투자부진에도 민간소비, 수출 증가 등으로 2.8% 성장할 전망
- 2019년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과 건설투자의 둔화, 순수출 감소 등으로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지출부문별 증가율 전망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상승 요인

-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복지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
- 수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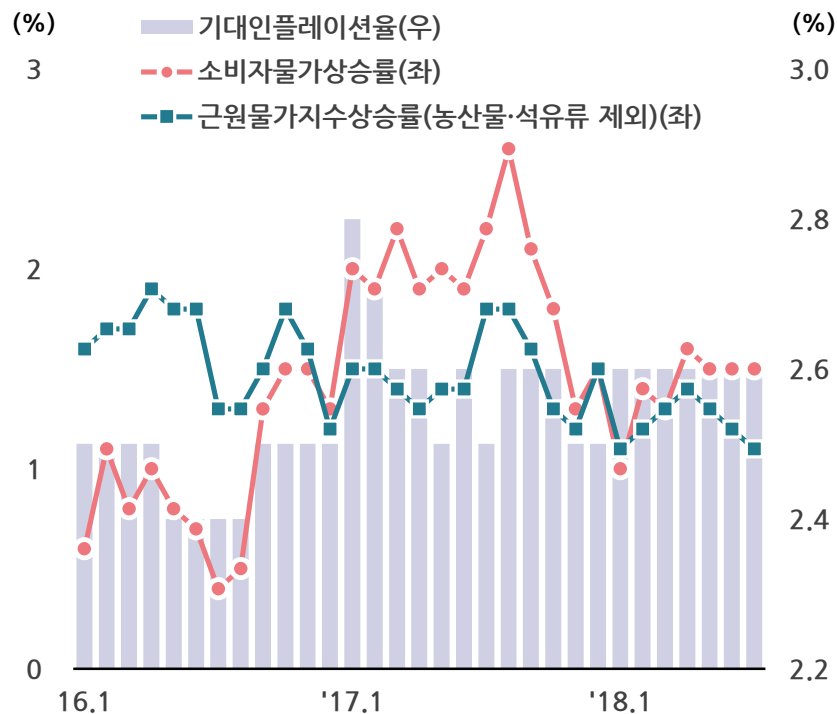
하락 요인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리스크 등 교역여건 악화
- 건설 / 설비투자 위축

2) 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족으로 둔화세가 유지되고 있음
 - 2018년 기대인플레이션도 2.6%를 유지하고 있음
- 2019년에는 내수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유가상승,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1.7%로 전망됨

주요 물가지수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물가상승률 전망과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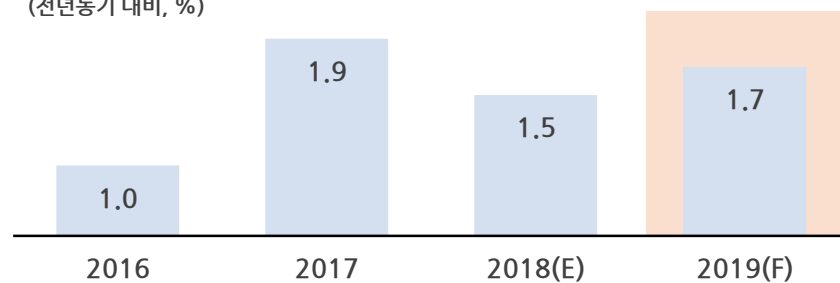
상승 요인

- 유가상승 및 원화약세 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 고용여건 개선으로 인한 임금상승세 확대

하락 요인

- 설비투자,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로 인한 내수부진

(전년동기 대비, %)



자료: 한국은행

3) 금리

- 경기부진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 내외를 유지
- 2019년에도 내수부진이 예상되고 순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여 3년 만기 국고채 3년 금리는 2.2%로 전망됨
- 일부 투자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나 국내 경기여건을 고려하면 어려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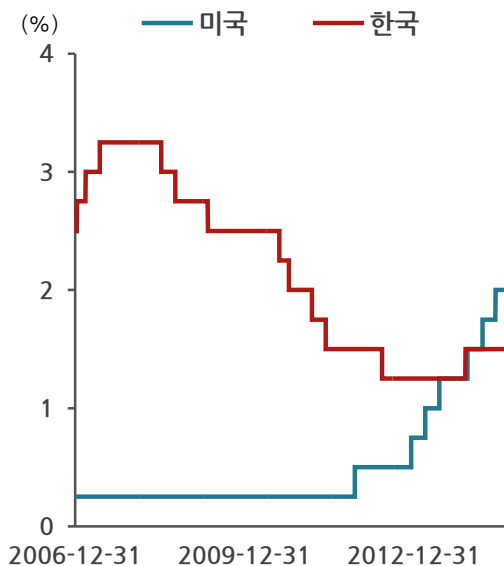
상승요인

- 한미 금리차
-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와 신흥국 금융불안

하락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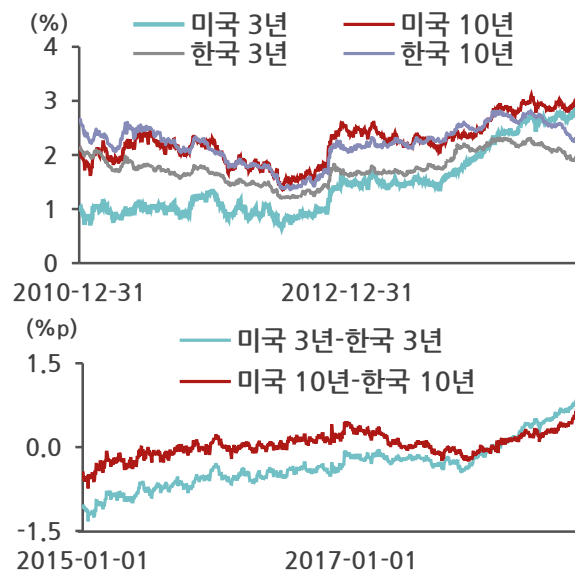
- 성장세 둔화, 고용지표 부진

기준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기준금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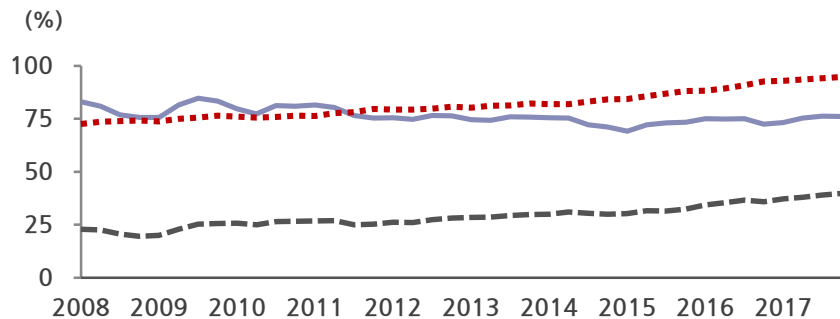
투자은행	'18.3Q	'18.4Q	'19.1Q	'19.2Q
BoA-ML	1.75	1.75	1.75	1.75
Barclays	1.50	1.75	1.75	2.00
Goldman Sachs	1.50	1.75	1.75	2.00
Citi	1.50	1.75	1.75	2.00
JPMorgan	1.75	1.75	2.00	2.00
UBS	1.50	1.75	1.75	2.00

주: 2018년 8월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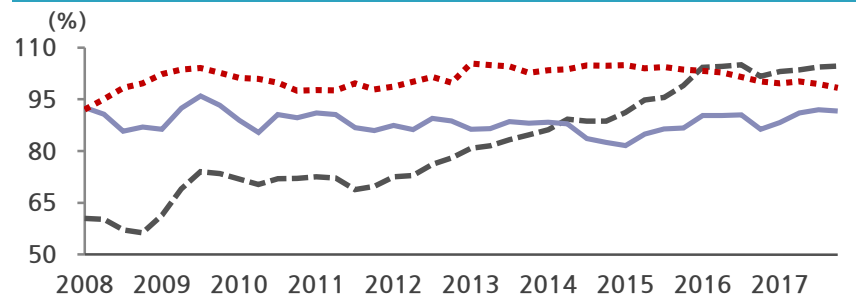
1) 부채와 내수

- 우리나라 가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제조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2018년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업부채 비율은 100% 미만으로 하락하였지만 설비투자 증가율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주요국 가계의 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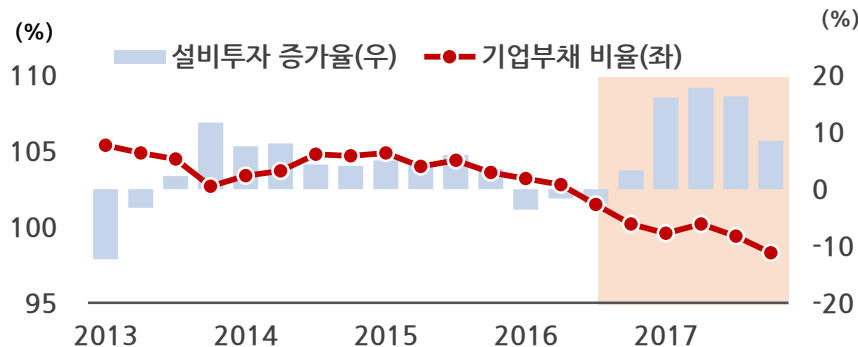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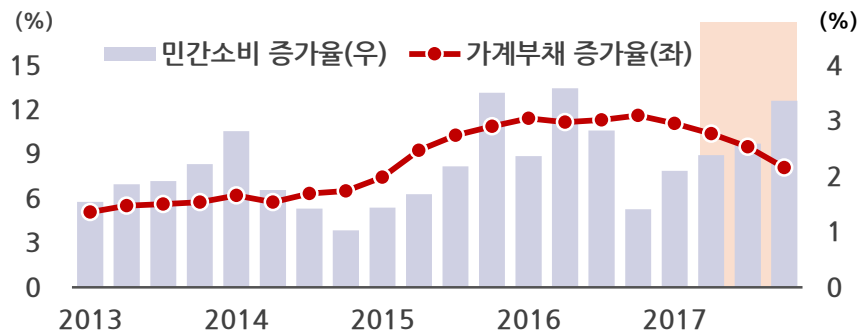


주요국 제조기업의 부채 비율



--- Emerging Market — Advanced Economy Korea
 자료: BIS

GDP 대비 부채비율과 민간소비,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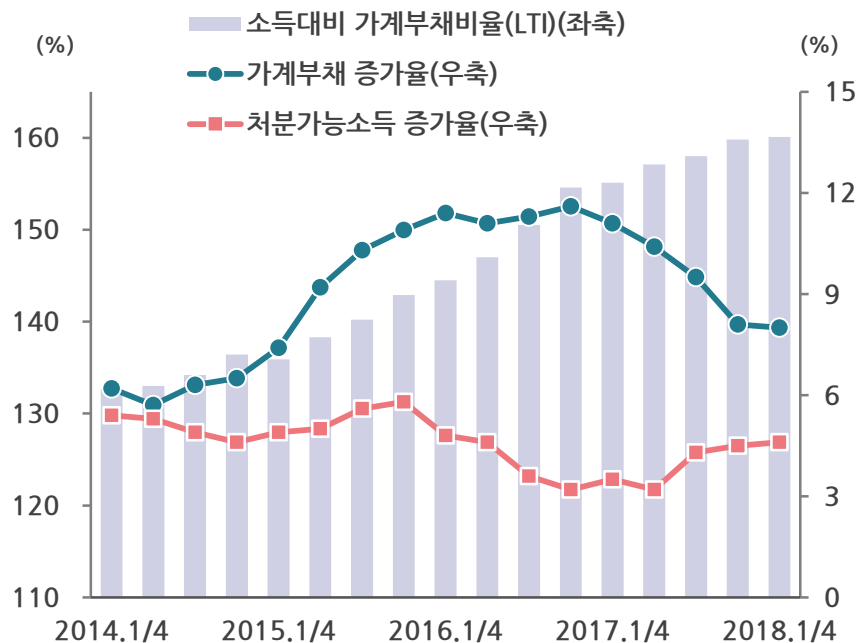


자료: BIS(2017), 한국은행

2) 가계부채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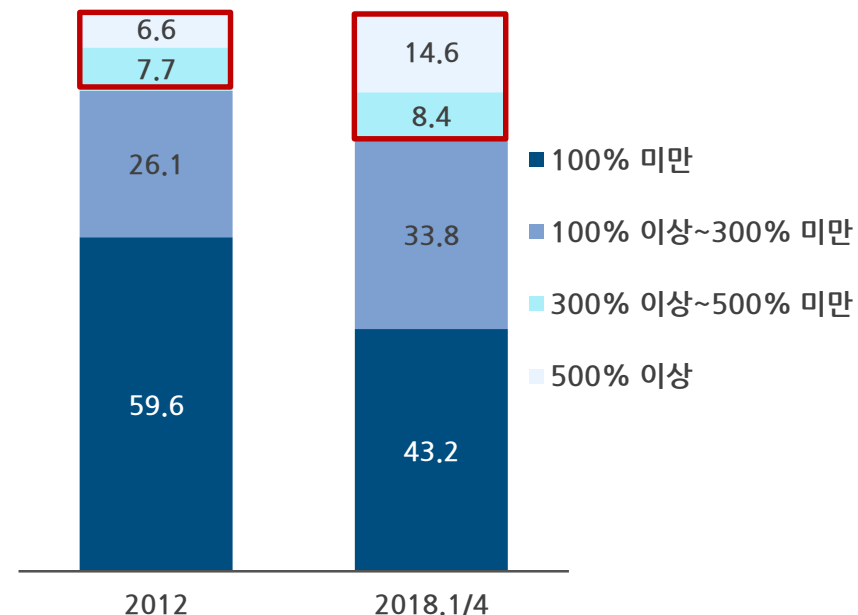
-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되었고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까지 높아짐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이 300%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2012년 14.3%에서 2018년 1/4분기 23%로 상승

가계부채 관련 주요 지표



자료: 한국은행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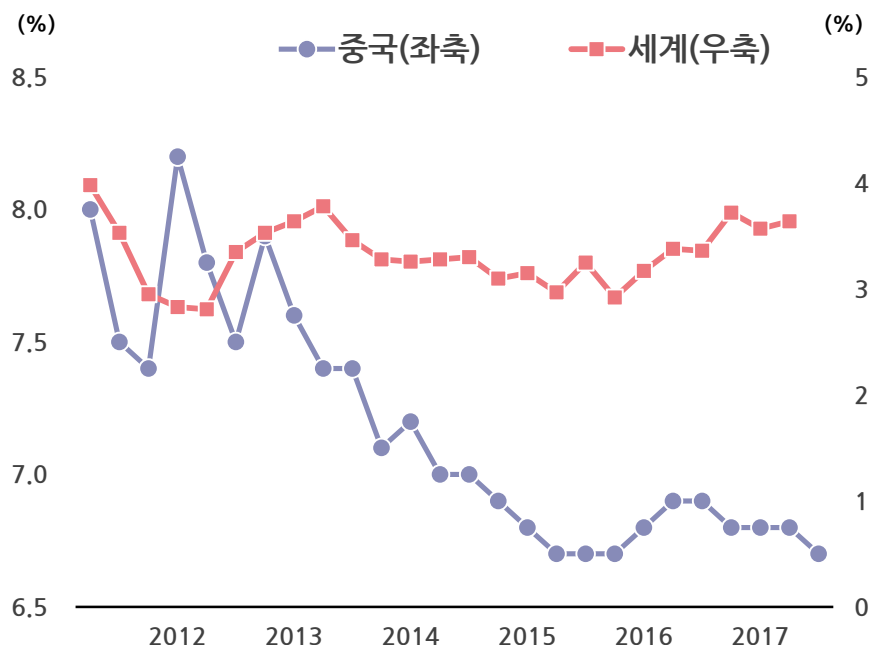


주: 1) LTV 구간별 분포는 차주 수 기준
2)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3) 중국 경제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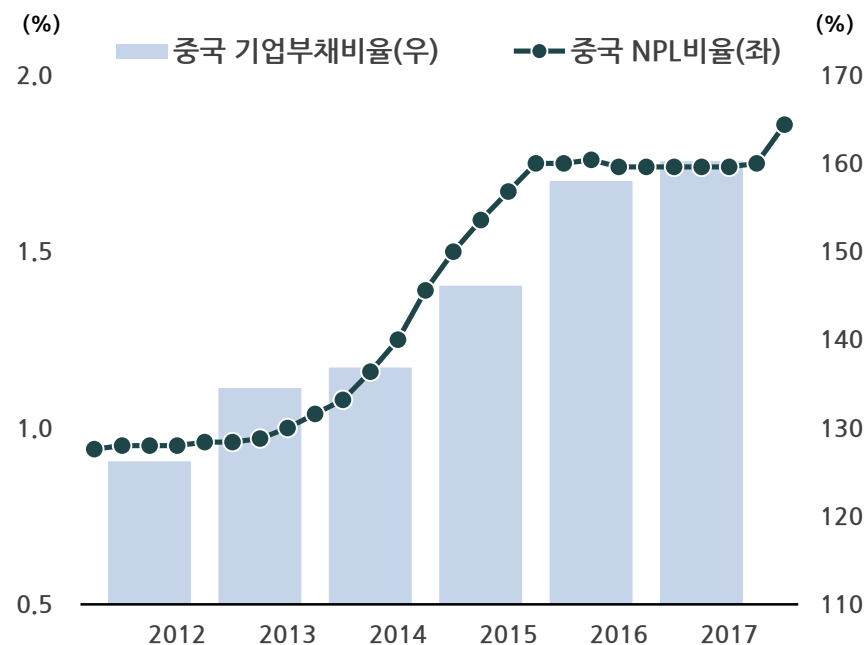
- 중국 기업의 부채비율과 부실채권 비율 상승에 따른 금융규제,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이 중국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IMF는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가 2020년 이후 세계경제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함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침

중국 경제성장률



자료: Bloomberg; IMF

중국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과 부실채권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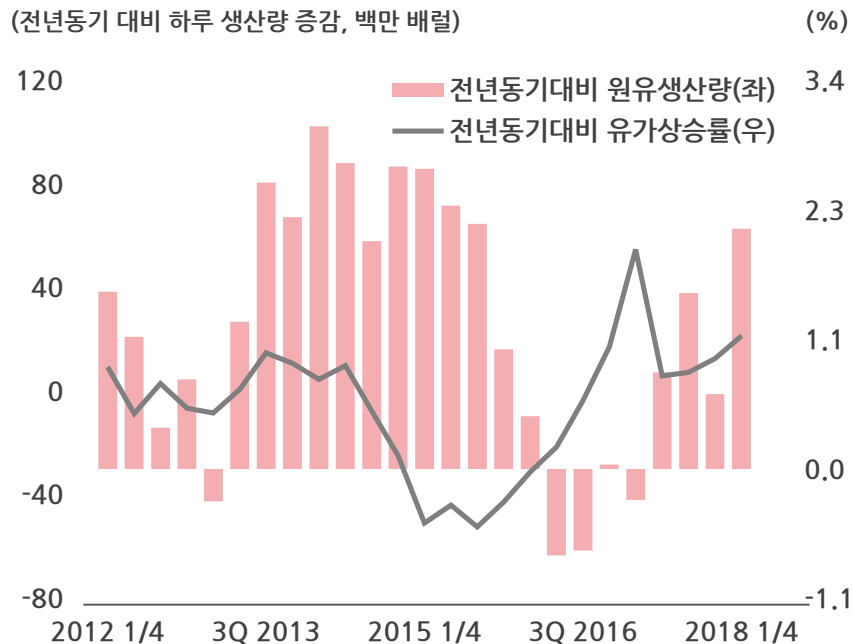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4) 유가

- 세계경기 상승세, 미국의 이란 제재, 달러가치 상승세로 유가상승세는 확대되고 있고, 유가상승세 확대는 우리나라 수입 증가세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8월 평균 원유가격은 배럴당 73달러로 2016년 1월 20일 26.55달러의 3배로 상승함
- 2018년 유가는 배럴당 73달러, 2019년 유가는 배럴당 74달러로 전망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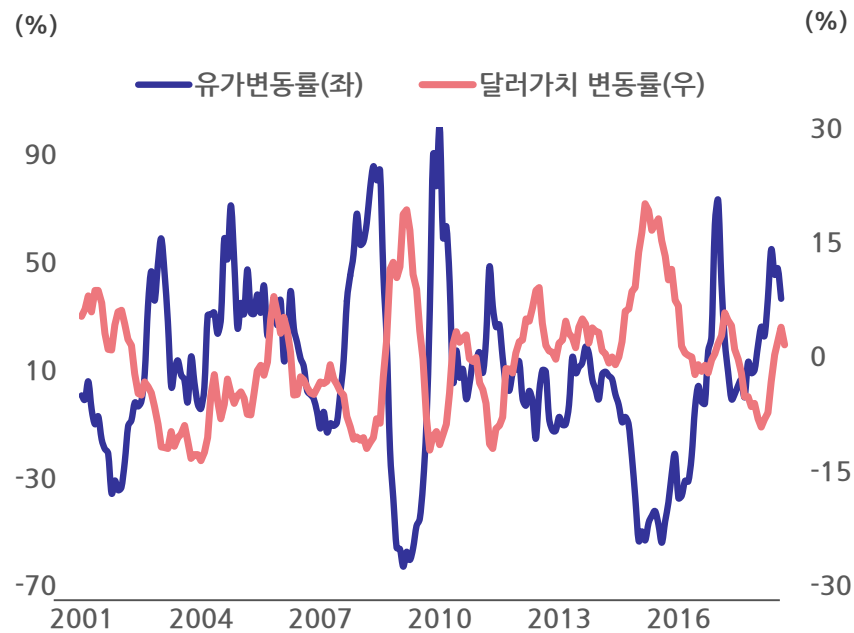
원유생산량 증감과 유가상승률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주1: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달러가치와 유가상승률



자료: St. Louise F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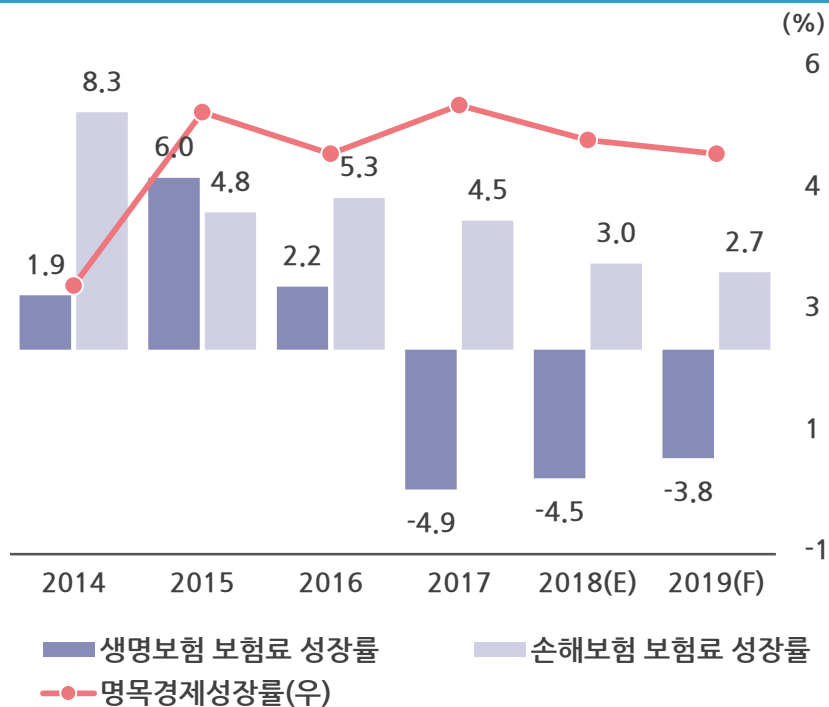
II.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4. 보험권 퇴직연금
5.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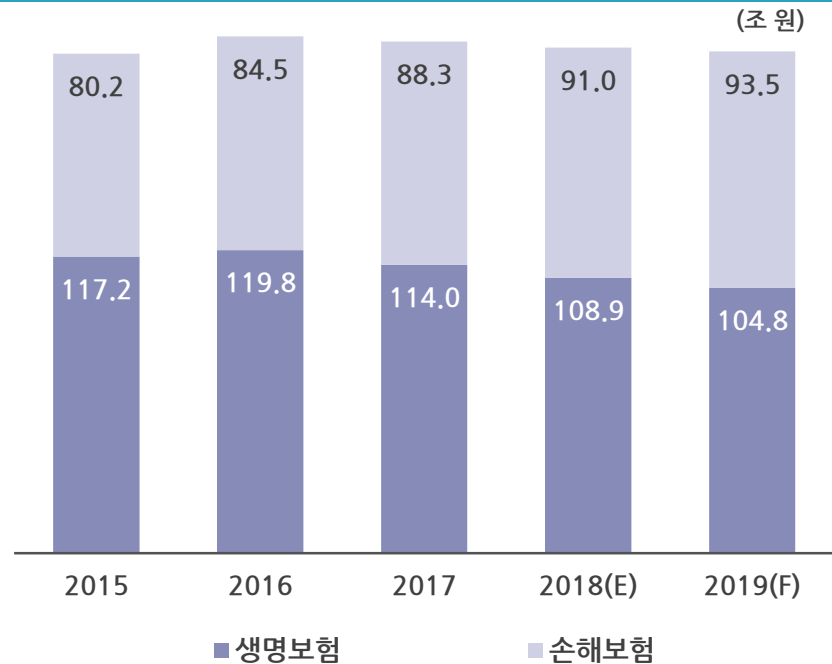
1) 수입보험료

- 저성장과 시장 포화, 제도적 요인으로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8년 1.18%, 2019년 0.80% 감소할 전망
 -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4.5%, 손해보험 3.0%로 전망됨
 -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04.8조 원(-3.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93.5조 원(2.7%)으로 전망됨
- 명목경제성장률은 2012년 수준보다 높지만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

명목경제성장률과 보험료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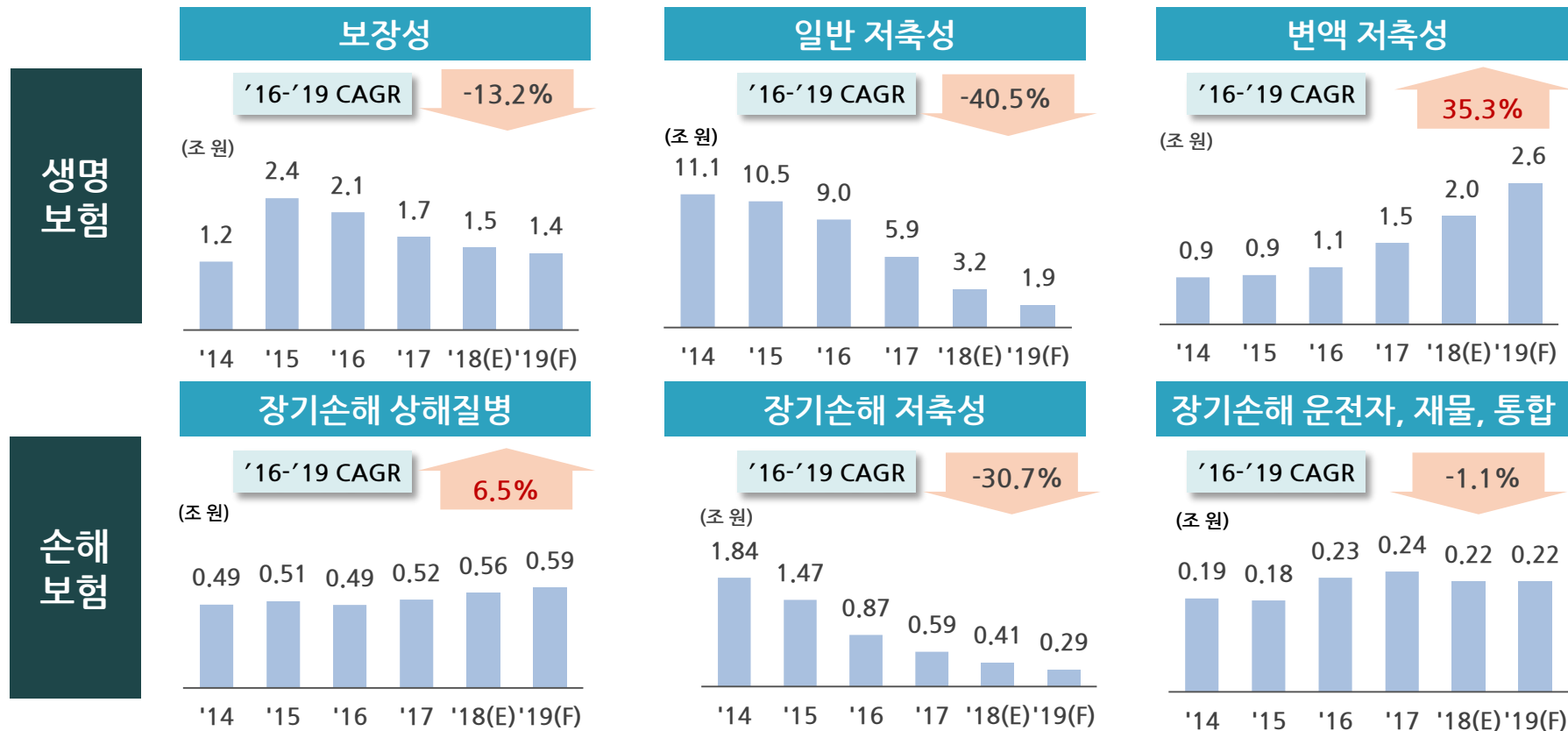


생명 및 손해보험 보험료 규모 전망



2) 초회보험료

- 생명보험의 변액저축성, 장기손해 상해·질병을 제외한 초회보험료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됨
- 연평균 증가율은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13.2%, 일반저축성 -40.5%, 손해보험 장기저축성 -30.7%임



주: 1) 각 종목별 초회/계속 보험료 전망치는 [첨부] 종목별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참조
 2) 초회보험료는 1회차 보험료로 일시납 보험료와 비일시납 보험료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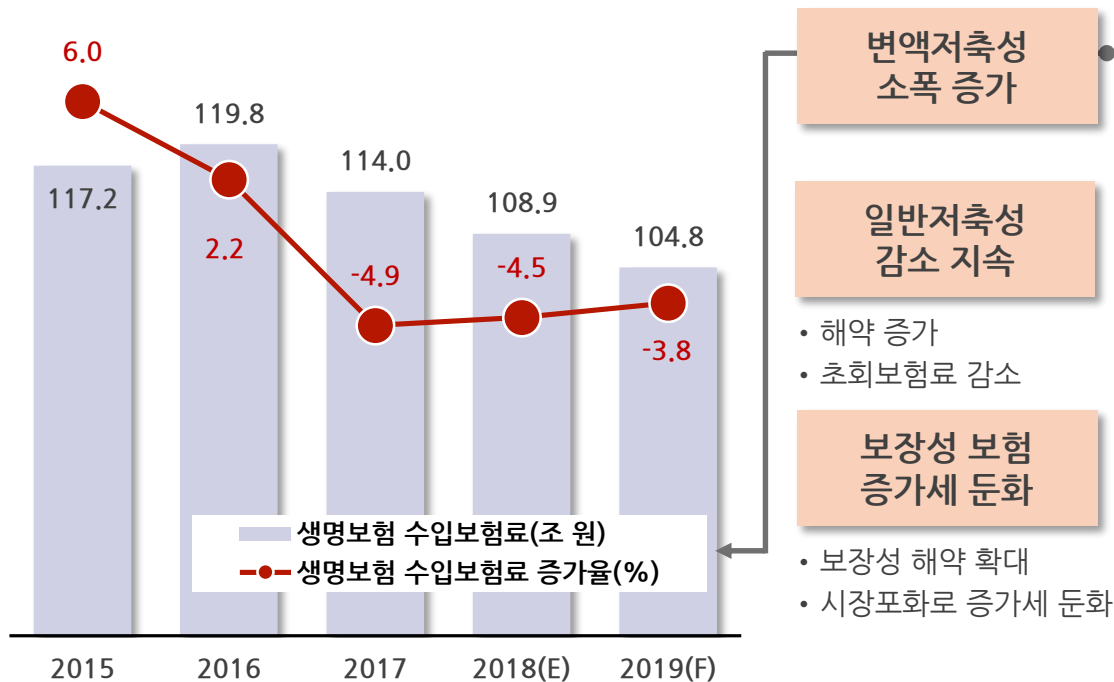
2. 생명보험

- 1) 개요
- 2) 보장성보험
- 3) 저축성보험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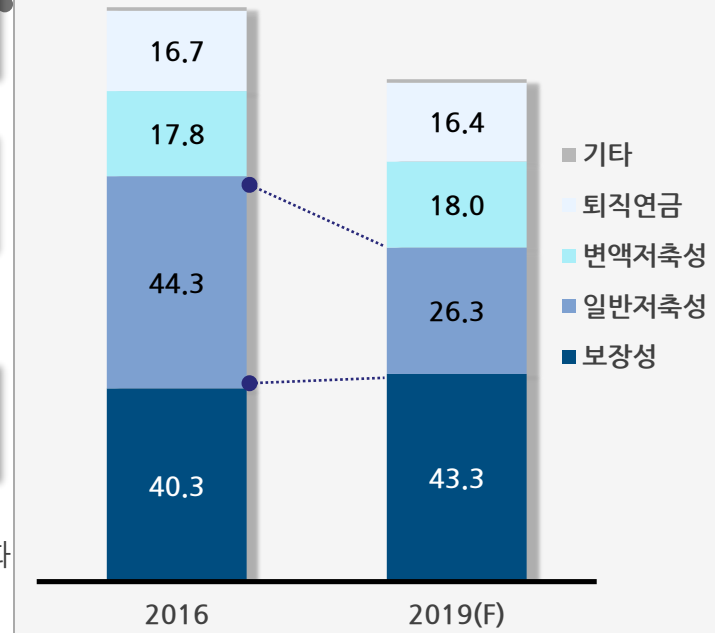
- 저축성보험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가계의 부채부담으로 해약환급금이 증가함
- 변액저축성보험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로 2019년 수입보험료는 3.8% 감소한 104.8조 원으로 전망됨
 - 경기부진으로 보장성보험 해약이 확대되고 판매수수료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보장성보험 감소세 확대가 우려됨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생명보험 종목별 규모

(단위: 조 원)



2) 보장성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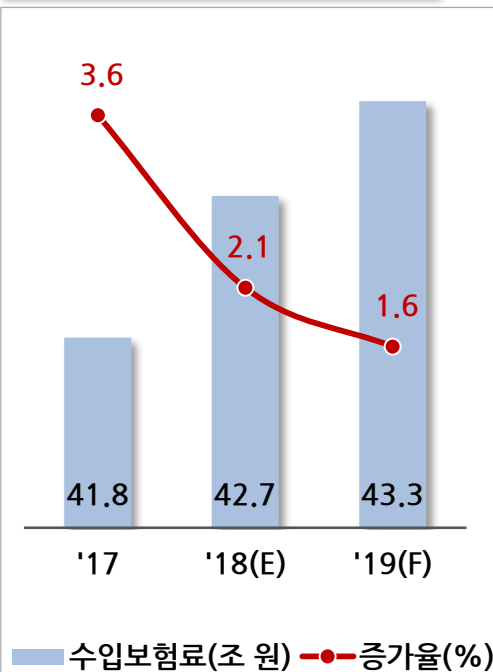
- 종신보험 시장의 성숙과 경기부진으로 인한 해지(해약) 증가로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7년 3.6%에서 2019년 1.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보장성보험 판매 수수료가 조정될 경우 감소폭은 확대될 우려

수입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감소요인

1 보장성보험



- 제도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판매 확대 지속
- 변액보험 수요 증가에 따른 변액종신보험 성장
- 건강증진형 보험 등 다양한 중저가 건강보험 개발 확대

- 경기 둔화로 인한 해지 증가
- 기대여명 상승으로 사망보장 니즈 감소
- 보장성보험 수수료 인하 압력
- 건강보험 분야 경쟁 심화

3) 저축성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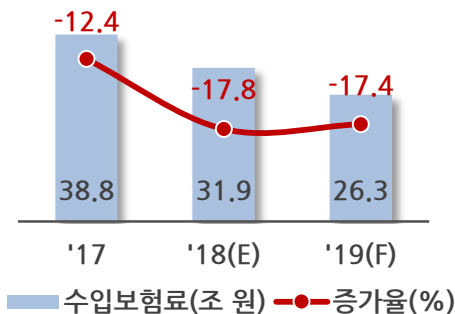
- 2019년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에 비해 17.4% 감소한 26.3조 원으로 전망
 - 2017년 감소(8.9%) 원인인 세제혜택 축소, 수수료 체계변화, 부채부담 및 자본변동성 증가 우려가 지속되기 때문임
- 반면 2019년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1.6% 증가한 18.0조 원으로 예상됨

수입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감소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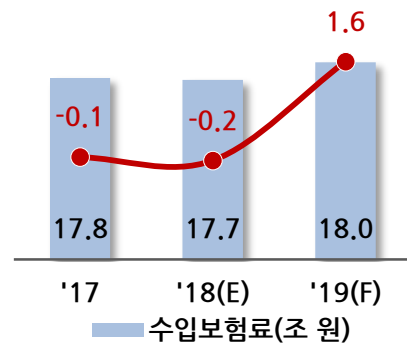
1 일반저축성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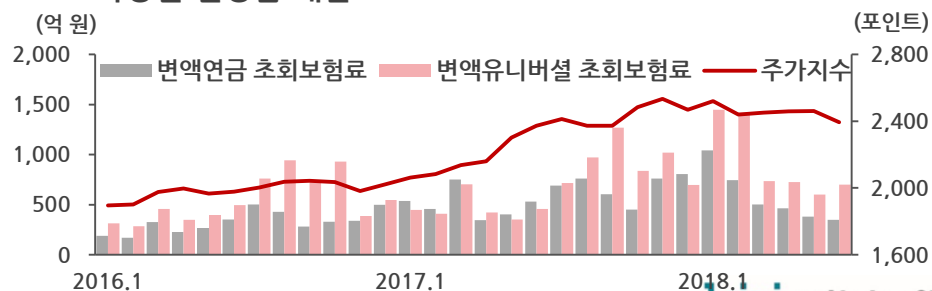
- 만기도래 보험의 재가입 수요
- 국민연금 불안으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수요
- 공시이율 상승 가능성

- 부채부담 및 자본 변동성 확대 우려에 따른 소극적 판매
-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보증이율 하락

2 변액저축성보험



- 일반저축성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리 부담으로 인한 적극적 마케팅
- 다양한 신상품 개발
- 불완전판매, 민원 증가 우려
-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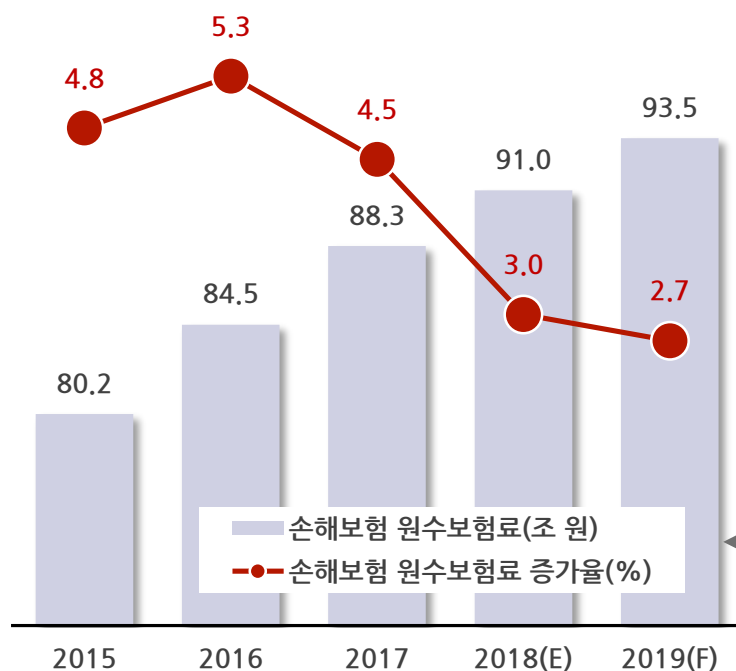
3. 손해보험

- 1) 개요
- 2) 장기손해보험
- 3) 저축성보험/개인연금
- 4) 자동차/일반손해보험

1) 개요

- 장기손해 상해·질병, 일반손해보험의 증가로 2019년 원수보험료는 93.5조 원(2.7% 증가)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 부진과 장기 저축성보험 감소가 계속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구체화되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전망치보다 낮아질 우려가 있음
 -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 반영 여부도 원수보험료 전망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음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일반손해보험
증가세 지속

자동차보험
증가세 둔화

- 할인특약 확대
- 보험료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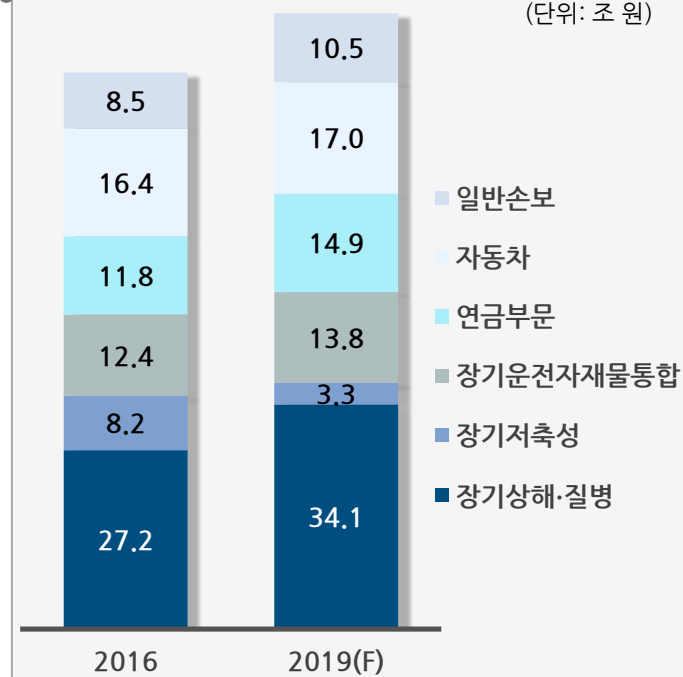
장기저축성
감소 지속

- 판매수수료 감소
- 낮은 보증이율

장기손해
상해·질병 증가

손해보험 종목별 규모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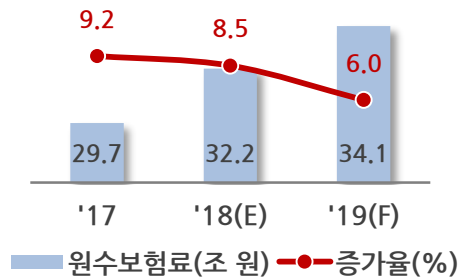


2) 장기손해보험

-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2019년 증가율은 6.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운전자·재물·통합보험의 경우 운전면허소지자 증가율 둔화, 통합형보험 감소 등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

1 상해·질병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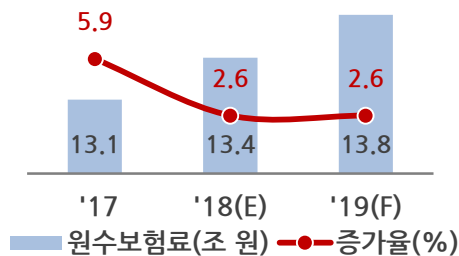
▲ 증가요인

- 의료비 부담 확대
-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상승
- 유병력자 실손보험('18.4) 등의 간편심사보험 성장

▼ 감소요인

- 건강보험 정책 영향
- 높은 가입률 지속

2 운전자·재물·통합



- 재물보험 실손보상 및 배상책임담보 확대에 인기
- 운전자보험 보장 다양화 등 경쟁력 제고

- 운전면허소지자 증가율 하락
- 재물보험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
- 통합형보험의 경직성과 보험료 경쟁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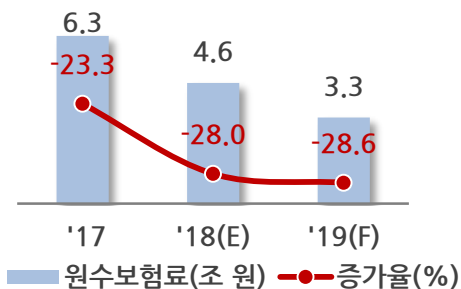
주: 붉은색 글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며 각 종목별 초회/계속 보험료 전망치는 첨부 참조

3) 저축성보험/개인연금

- 저축성보험은 최저보증이율에 따른 금리리스크, 자본부담,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상품경쟁력 약화로 2019년 30%내외 감소 전망
- 개인연금은 저금리 장기화,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상품경쟁력 약화로 2019년 5.0% 감소할 전망

3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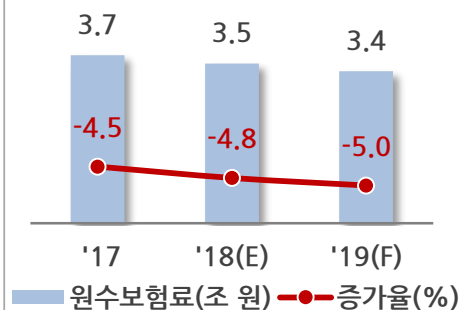
▲ 증가요인

-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공시이율 상승
- 국민연금 불안으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수요

▼ 감소요인

- 저금리 장기화
- 세제혜택 축소 여파 지속
 - 이자소득 비과세요건 강화
- IFRS17 최저보증이율로 인한 금리리스크 부담, 자본부담

4 개인연금



- 저축성보험 증가요인과 동일
- 저금리 장기화와 세제혜택 축소로 상품경쟁력 약화
 - 2014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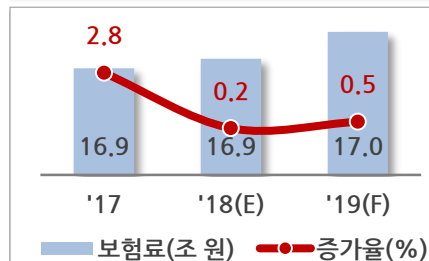
주: 붉은색 글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며 각 종목별 초회/계속 보험료 전망치는 첨부 참조

4) 자동차/일반손해보험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건보확대 적용, 이상기온(폭염) 등 요율인상 요인과 승용차 운행거리 감소, 마일리지특약 확대 등의 요율하락 요인이 혼재되어 0.5% 증가에 그칠 전망
- 일반손해보험은 제도 개선으로 인해 특종, 보증보험이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8.4%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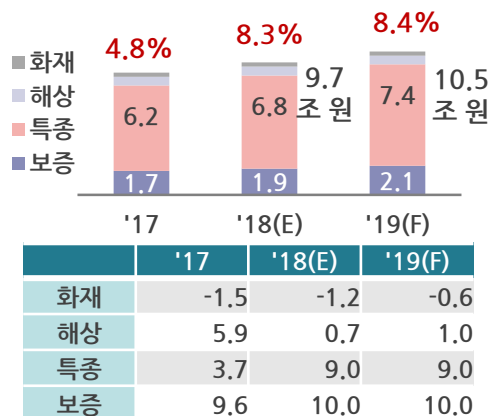
▲ 증가요인

-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건강보험 확대적용 등
- '18, '19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량 증가
- 폭염, 한파 등 이상기온 증가

▼ 감소요인

- 승용차운행거리 감소세
-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으로 자동차사고 감소
- 마일리지보험 할인율, 대상 확대

2 일반손해보험



증가율 전망 (%)

	'17	'18(E)	'19(F)
화재	-1.5	-1.2	-0.6
해상	5.9	0.7	1.0
특종	3.7	9.0	9.0
보증	9.6	10.0	10.0

- 손해보험혁신조치로 보증, 특종 보험의 성장
- 재난배상책임보험('17.7), 사이버보험('18.10) 등 의무보험 확대
- 중금리대출보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증가('17.6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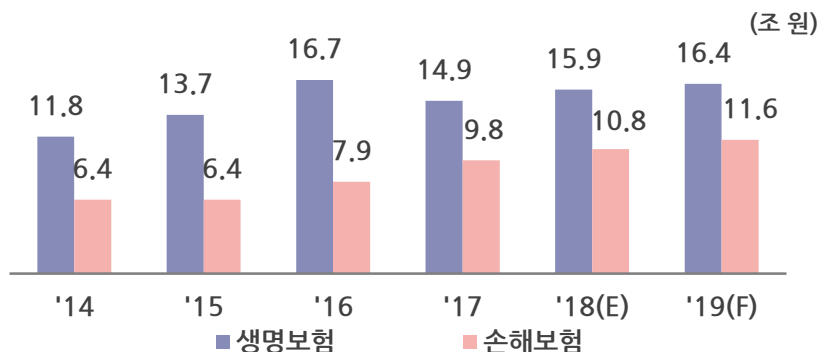
-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 감소, 기업구조조정 지속
- 요율 인하

주: 붉은색 글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며 각 종목별 초회/계속 보험료 전망치는 첨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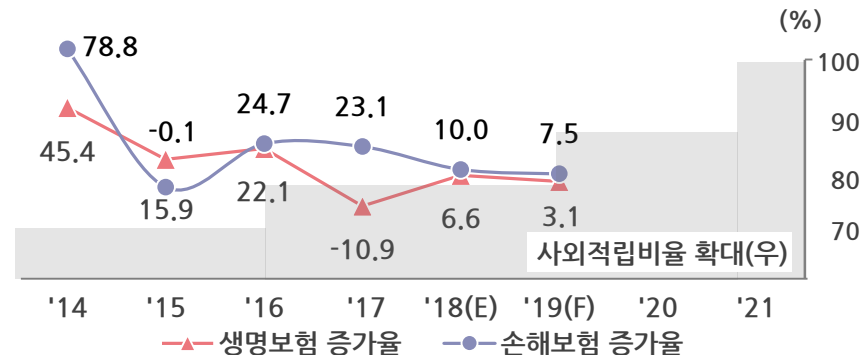
4. 보험권 퇴직연금

- IRP 가입대상 확대, 베이비부머 은퇴시장 확대,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 임금상승률 증가 등으로 퇴직연금 시장은 확대될 것임
- 2019년 퇴직연금은 생명보험 3.1%(16.4조 원), 손해보험 7.5%(11.6조 원) 증가할 전망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수입보험료 증가율



주: 붉은색 글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며 각 종목별 초회/계속 보험료 전망치는 첨부 참조

▲ 증가요인

- IRP 가입대상 확대('17. 7월)의 영향으로 개인형 IRP 23.2% 증가, 2017년 적립금 14.6% 증가
- 베이비부머 은퇴시장 확대
-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임금상승률 증가('18. 1월부터 5%대 지속)

▼ 감소요인

- 저축은행 퇴직연금 판매('18.10월, 5천만 원)
- K-ICS 대비 적립금 부담에 따른 소극적인 판매 전략, 타금융권 실적배당형 DC형 시장 확대에 인한 경쟁 심화
- 임금피크제 확대

5. 요약

- 명목경제성장률은 2018, 2019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산업의 성장세는 둔화됨
- 경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회계제도 변화, 세제 및 수수료 체계 변화로 인한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감소세와 해약 증가는 보험산업 성장세를 위축시킴
- 보험산업 규모 위축은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단위: %, 조 원)

구분		2016	2017	2018(E)	2019(F)
경제성장률		2.8	3.1	2.8	2.7
명목경제성장률		5.3	5.4	4.9	4.7
금리(국고채 3년물)		1.8	1.4	1.8	2.2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15.5	12.2	10.1	9.1
	수입보험료 (증가율)	119.8 (2.2)	114.0 (-4.9)	109.0 (-4.4)	104.8 (-3.8)
손해보험	초회보험료(장기)	3.5	3.1	3.3	3.3
	원수보험료 (증가율)	84.5 (5.3)	88.3 (4.5)	91.0 (3.0)	93.5 (2.7)

[별첨] 종목별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1. 생명보험

- 1) 수입보험료 전망
- 2) 보장성보험
- 3) 저축성보험

2.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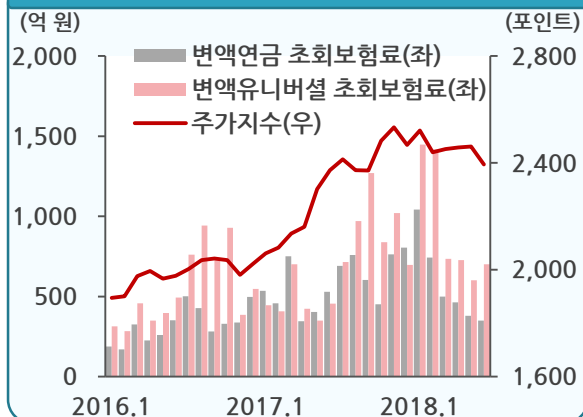
- 1) 원수보험료 전망
- 2) 장기손해보험
- 3) 개인연금
- 4) 자동차보험
- 5) 일반손해보험

1)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조 원)

구분	2016		2017		2018(E)		2019(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전체	119.8	2.2	114.0	-4.9	108.9	-4.5	104.8	-3.8
(퇴직연금 제외 시)	(103.1)	(-0.4)	(99.1)	(-3.9)	(93.0)	(-6.1)	(88.4)	(-5.0)
보장성보험	40.3	6.6	41.8	3.6	42.6	2.1	43.3	1.6
저축성보험	62.0	-4.5	56.5	-8.9	49.6	-12.3	44.3	-10.6
일반저축성보험	44.3	-3.9	38.8	-12.4	31.9	-17.8	26.3	-17.4
변액저축성보험	17.8	-5.9	17.8	-0.1	17.7	-0.2	18.0	1.6
퇴직연금	16.7	22.1	14.9	-10.9	15.9	6.6	16.4	3.1
기타	0.8	-1.5	0.8	0.4	0.8	-0.8	0.8	-0.8

주가지수와 변액연금



해약률 상승

-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의 해약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최근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까지 해약률 상승 추세
- 계속보험료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보유계약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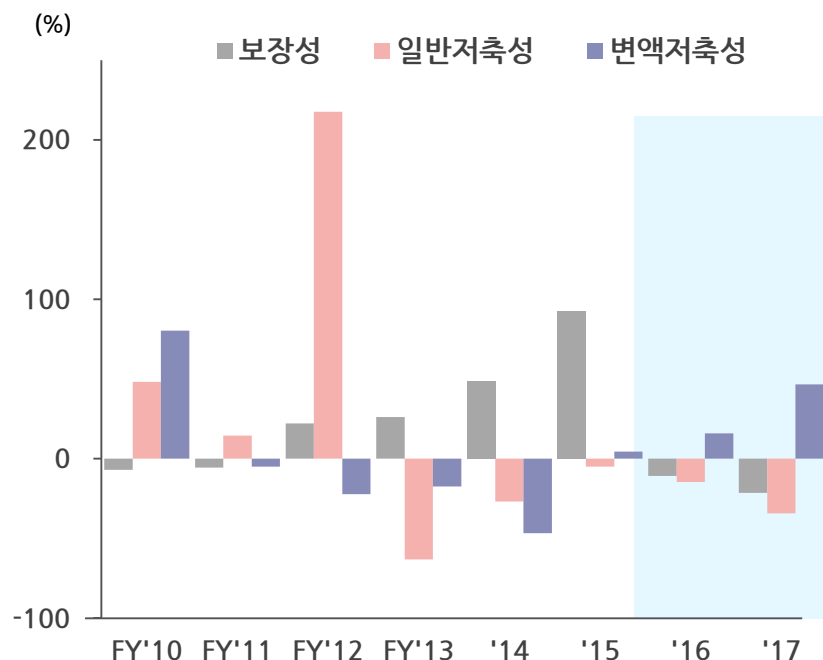
보험계약대출 증가

- 2018년 6월말 보험회사의 가계대출은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한 118.5조 원
- 특히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전년동기대비 8.7%)
- 경기부진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보험 수요 위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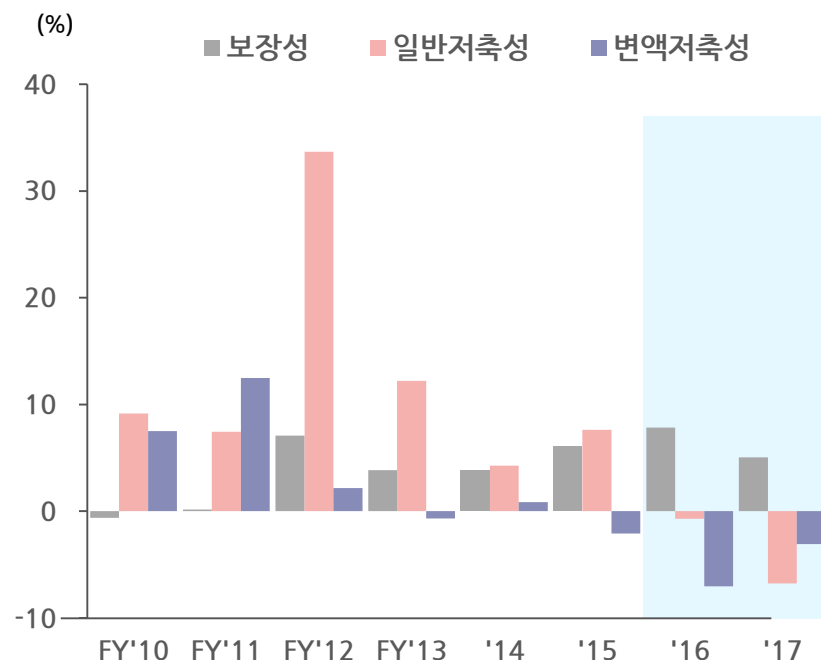
① 종목별 초회/계속보험료 추이

- 2016년 이후 초회보험료 증가율은 변액저축성보험을 제외하고 감소세로 전환됨
- 계속보험료 증가율을 종목별로 보면, 일반저축성보험은 감소세 확대, 변액저축성보험은 감소세가 둔화되었고 보장성보험은 증가세가 둔화됨

종목별 초회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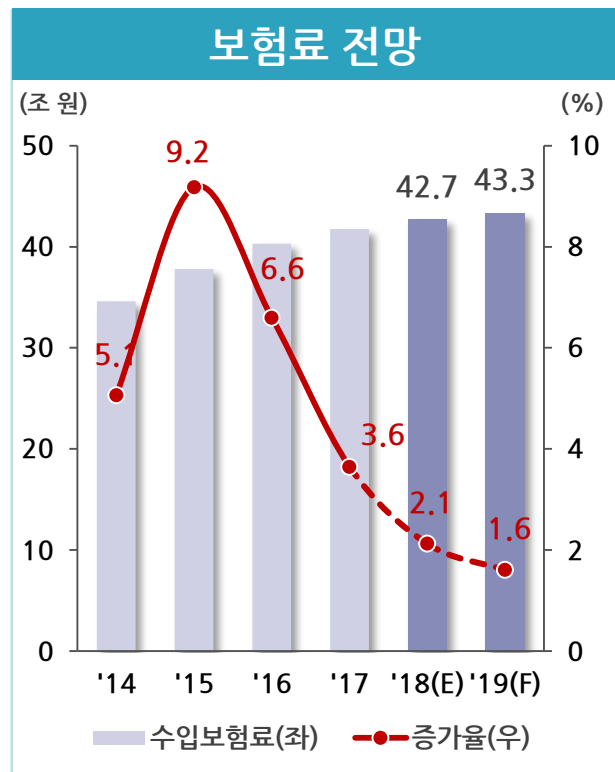


종목별 계속보험료 증가율



2) 보장성보험

- 2019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1.6% 증가한 43.3조 원 전망
 - 새 회계제도 도입과 건전성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와 다양한 중저가 건강보험 개발은 증가요인으로 작용
 - 반면, 경기 둔화로 인한 해약 증가와 보장성보험 수수료 인하 압력, 건강보험 분야의 경쟁심화는 감소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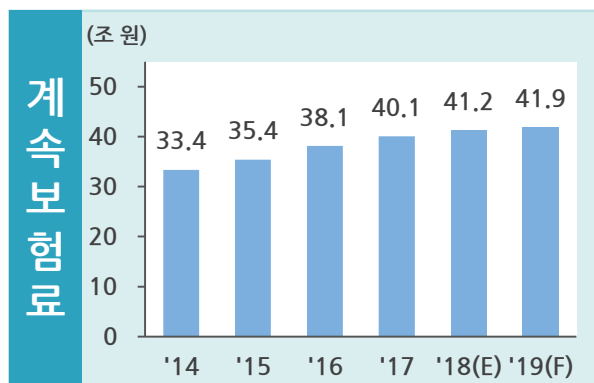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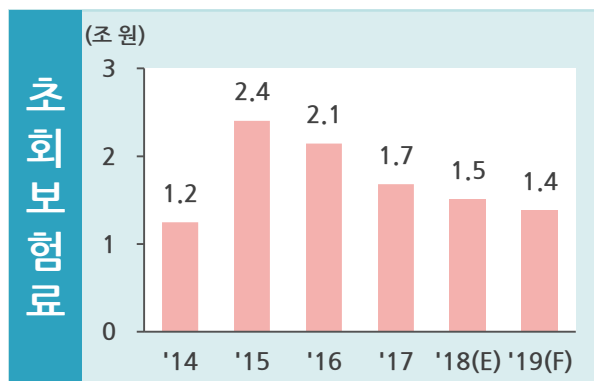


▲ 증가요인

- 제도변화에 따른 보장성보험 중심의 영업전략
- 변액 종신보험의 성장
- 건강증진형 보험 등 다양한 중저가 건강보험 개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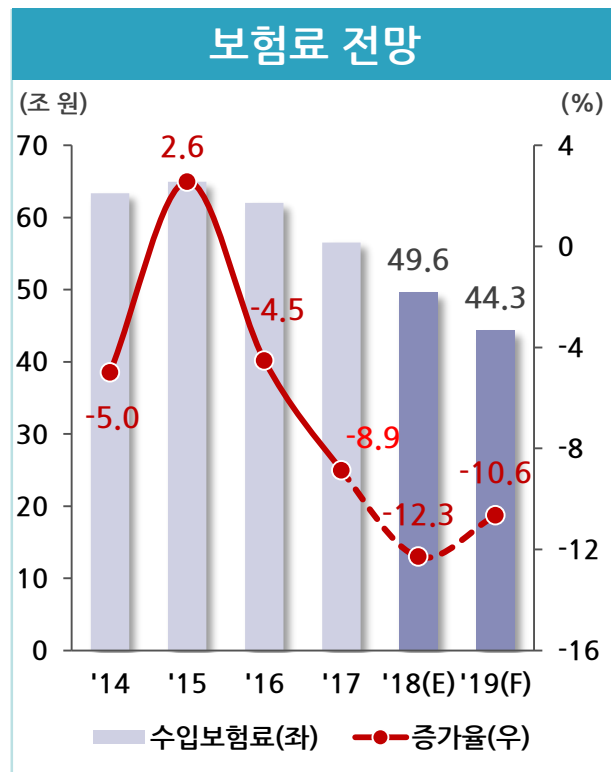
▼ 감소요인

- 경기부진으로 해약 증가
- 기대여명 상승으로 사망보험 니즈 감소
- 보장성보험 수수료 인하 압력
- 건강보험 분야 경쟁 심화



3) 저축성보험

- 2019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10.6% 감소한 44.3조 원 전망
 - 일반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반면, 변액저축성보험 판매가 확대될 전망
 - 국민연금 이슈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보증이율 하락은 수요를 제한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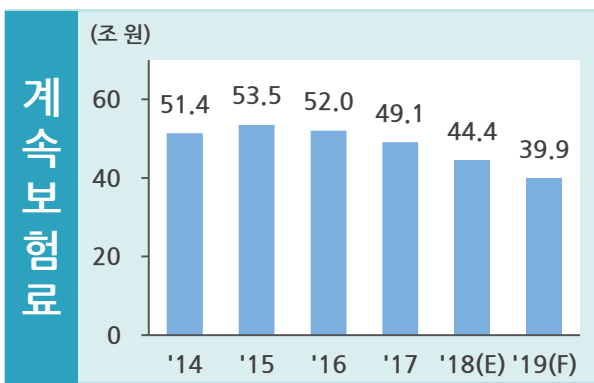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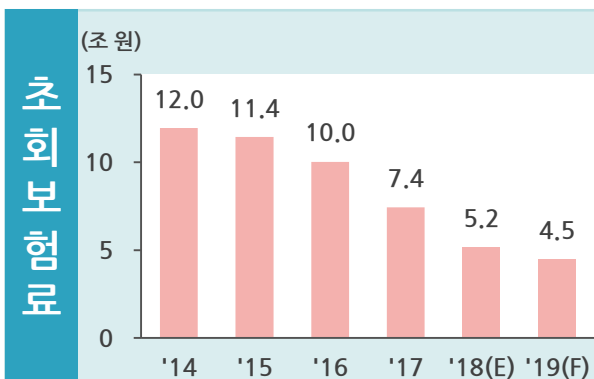


▲ 증가요인

- 국민연금 이슈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 니즈 증가
- 변액저축성보험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 감소요인

- 최저보증이율에 따른 책임준비금 부담, 자본변동성 확대 우려
- 보증이율 하락
-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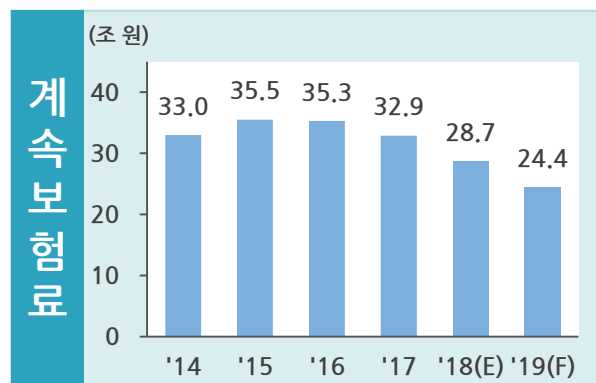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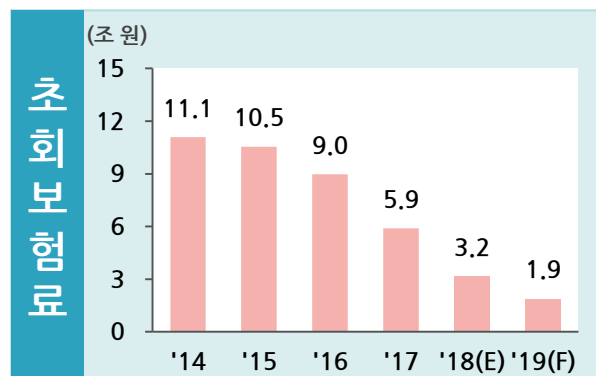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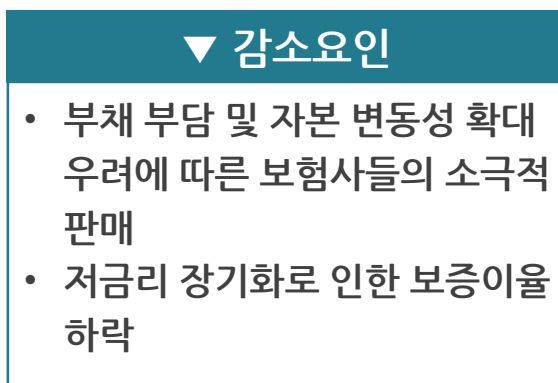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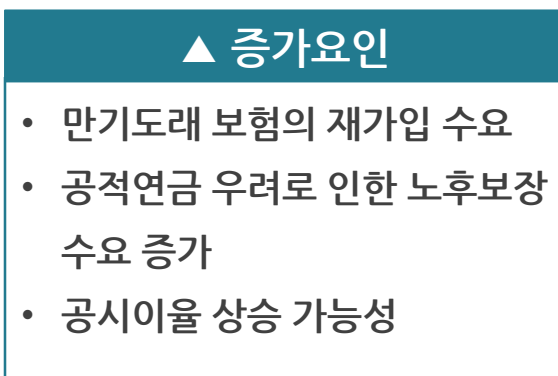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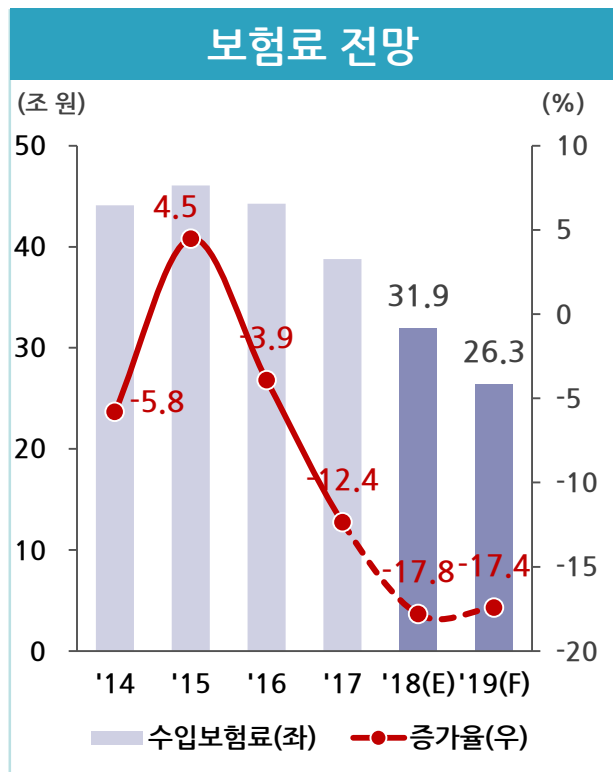


① 일반저축성보험

• 2019년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17.4% 감소한 26.3조 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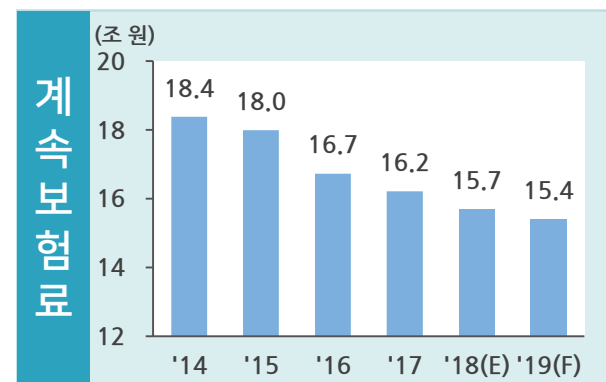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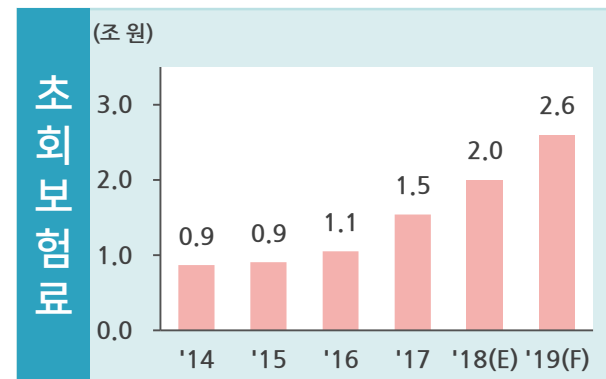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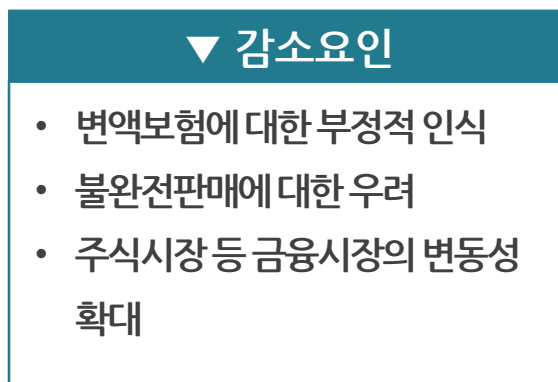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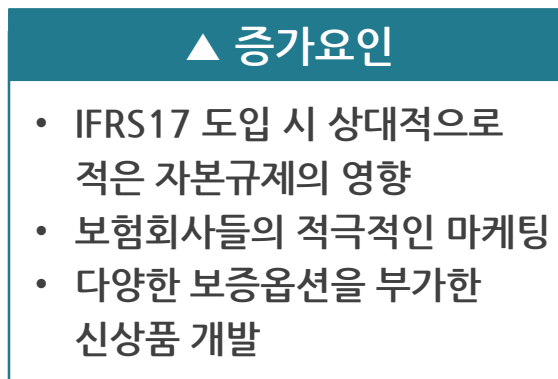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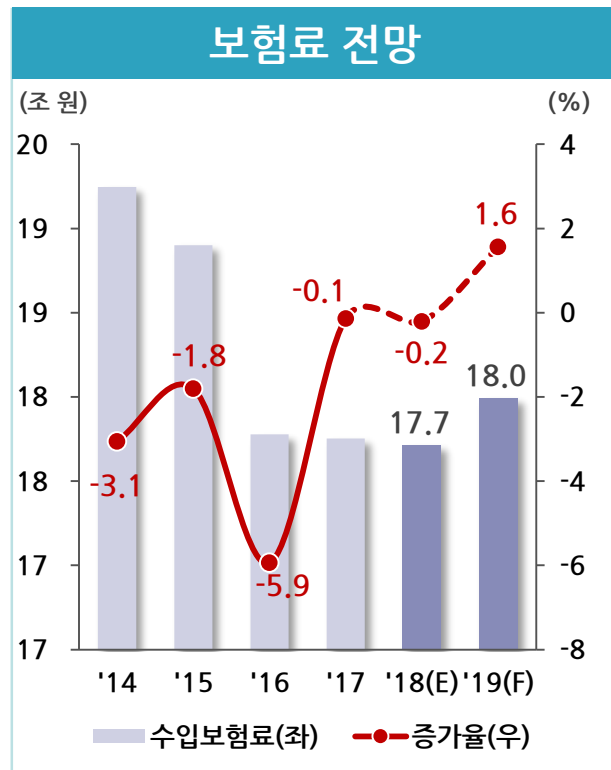
-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에 대비한 소극적 판매, 경기부진과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보증이율 하락 등이 감소요인으로 작용

- 국민연금 우려로 인한 노후보장 수요, 공시이율 상승 가능성 등이 증가요인이나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② 변액저축성보험

- 2019년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1.6% 증가한 18.0조 원 전망
 -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
 - 반면, 최근 주가시장의 변동성 확대, 변액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완전 판매 우려 등은 증가세를 제한할 수 있음



1)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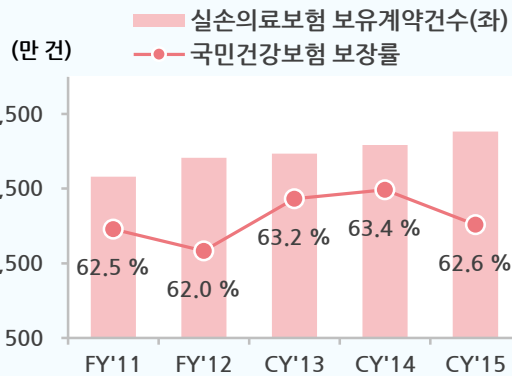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E)		2019(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전체	84.5	5.3	88.3	4.5	91.0	3.0	93.5	2.7
(퇴직연금 제외 시)	(76.6)	(3.6)	(78.6)	(2.6)	(80.2)	(2.1)	(81.9)	(2.1)
장기손해보험	47.8	2.6	49.1	2.8	50.2	2.2	51.2	1.9
상해 및 질병	27.1	11.7	29.7	9.2	32.2	8.5	34.1	6.0
저축성보험	8.2	-21.2	6.3	-23.3	4.6	-28.0	3.3	-28.6
운전자-재물 등	12.4	4.8	13.1	5.9	13.4	2.6	13.8	2.6
연금부문	11.8	13.7	13.5	14.1	14.3	5.9	15.0	4.4
자동차보험	16.4	9.4	16.9	2.8	16.9	0.2	17.0	0.5
일반손해보험	8.5	2.6	8.9	4.8	9.7	8.3	10.5	8.4

2019년 명목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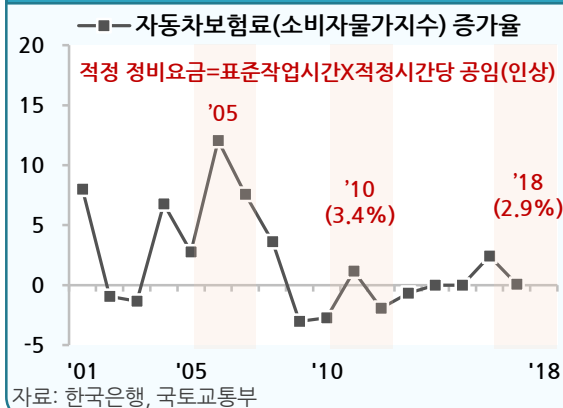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의료보험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과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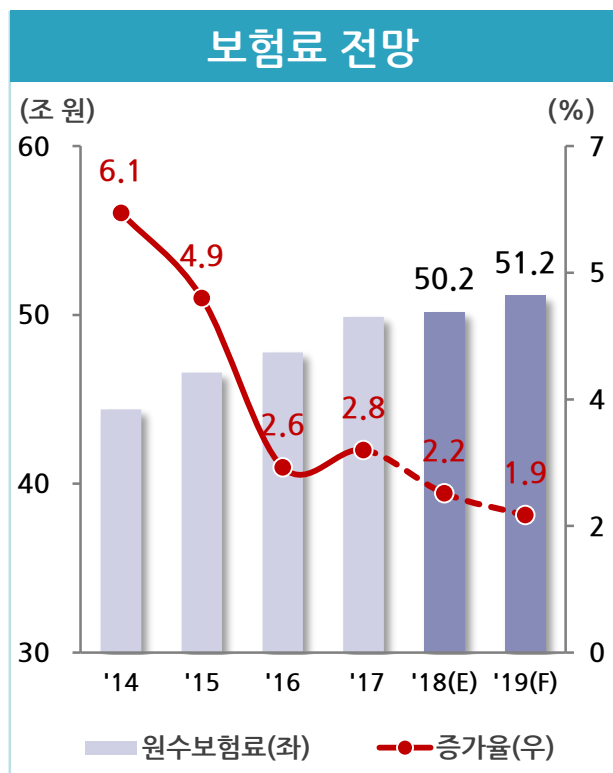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2) 장기손해보험

• 2019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1.9% 증가한 51.2조 원 전망

- 건강보험 정책에 따른 영향(수요, 공급) 및 통합형 보험의 경쟁력 약화는 감소요인으로 작용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등의 증가와 표준화 이전 상품의 만기 도래, 재물보험의 성장세 지속은 증가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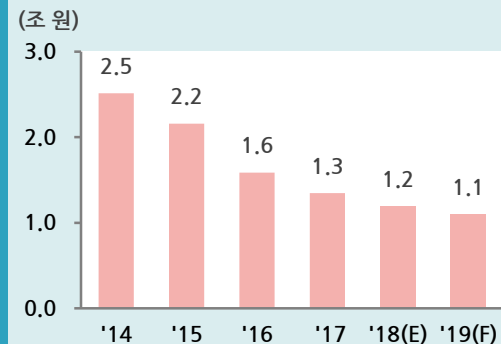
▲ 증가요인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등 증가, 표준화이전 상품 만기 도래
- 재물보험 인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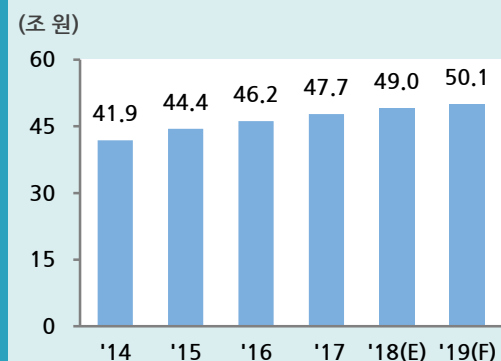
▼ 감소요인

- 건강보험 정책의 영향
- 통합형보험 경쟁력 약화

초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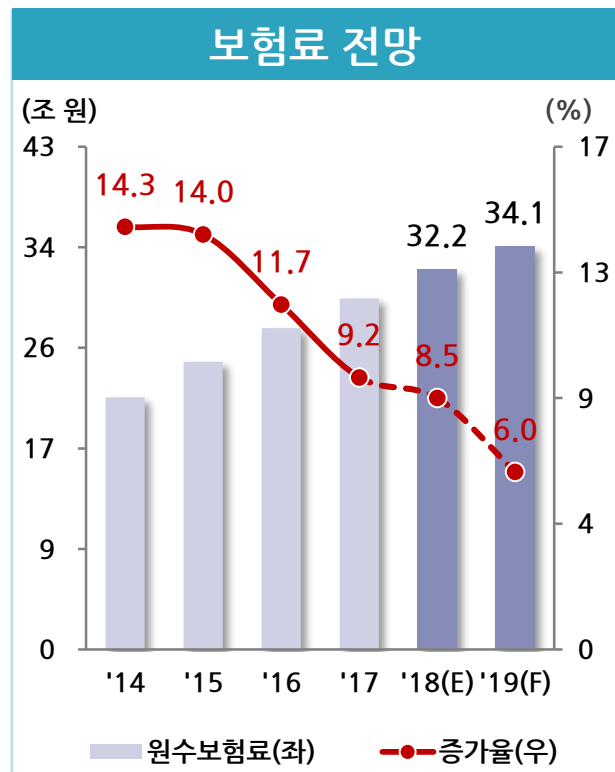


계속보험료



① 상해 및 질병

- 2019년 상해 및 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6.0% 증가한 34.1조 원에 이를 전망
 -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5년 갱신주기 도래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간편심사보험 등 판매 호조 등은 증가요인으로 작용
 -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정책의 영향으로 성장률은 둔화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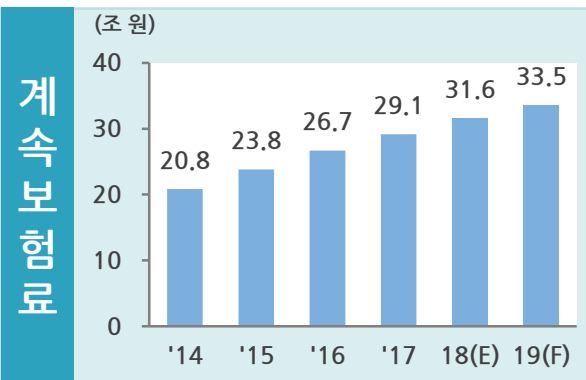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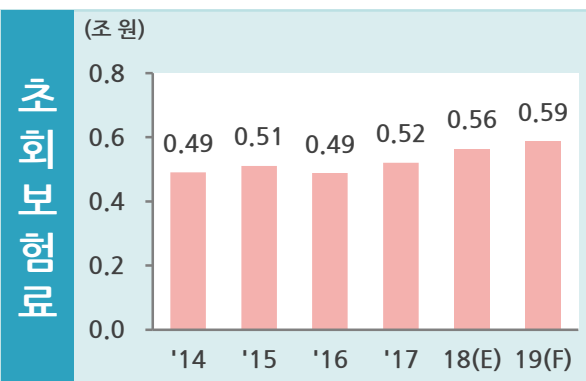


▲ 증가요인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18.4) 등 유병자, 간편심사보험 성장
-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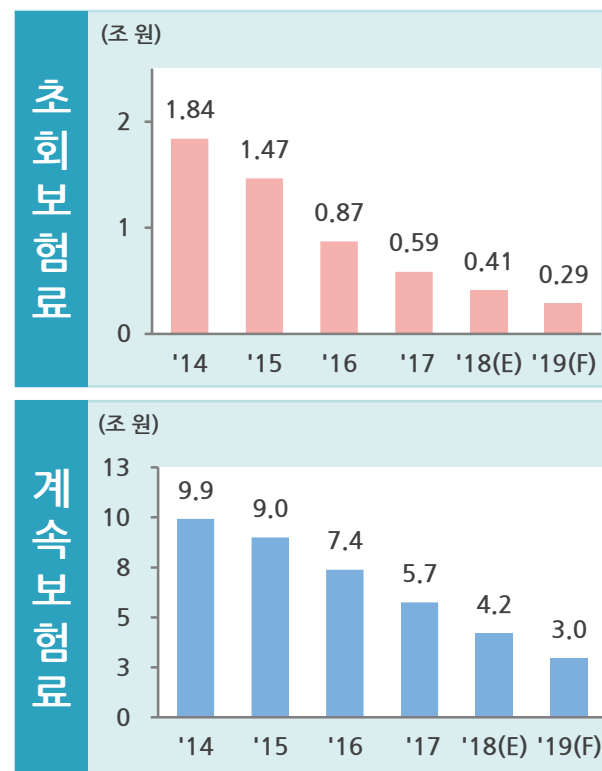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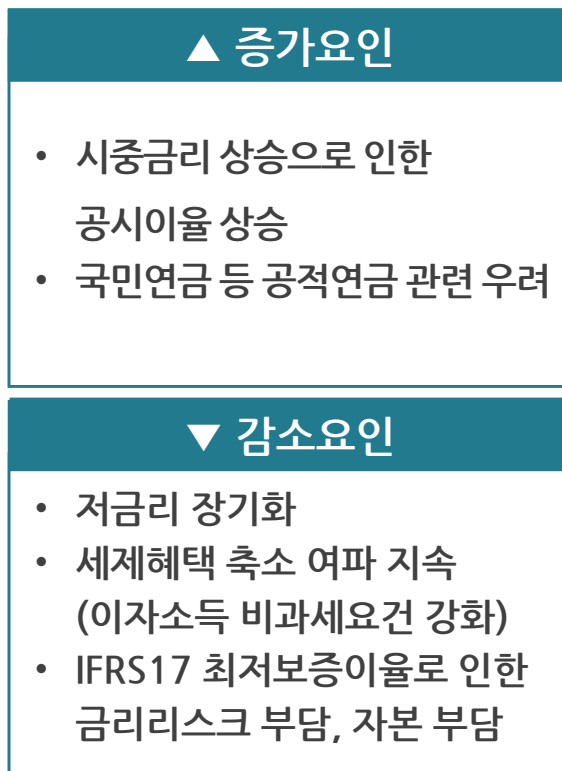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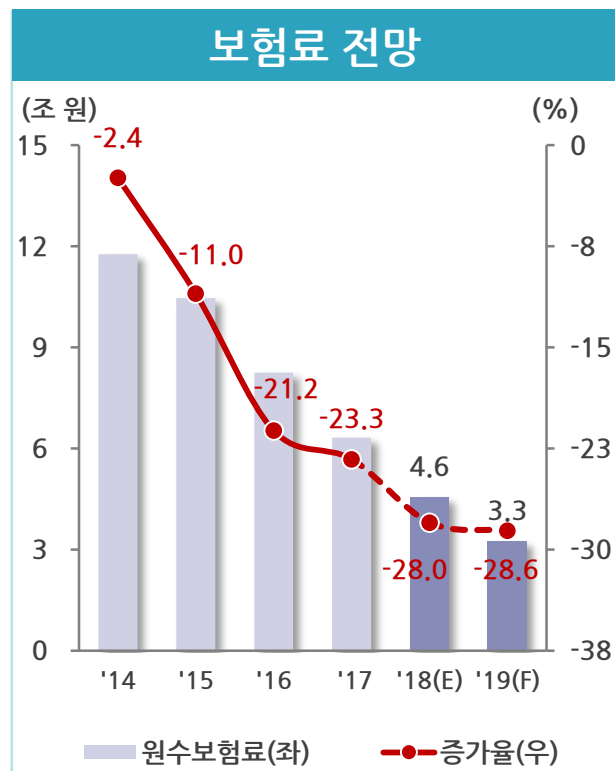
▼ 감소요인

- 건강보험 정책 등의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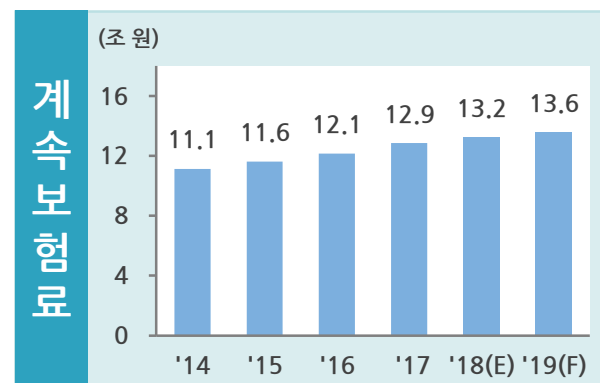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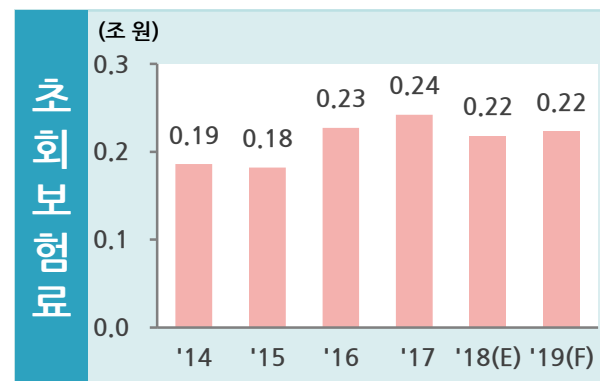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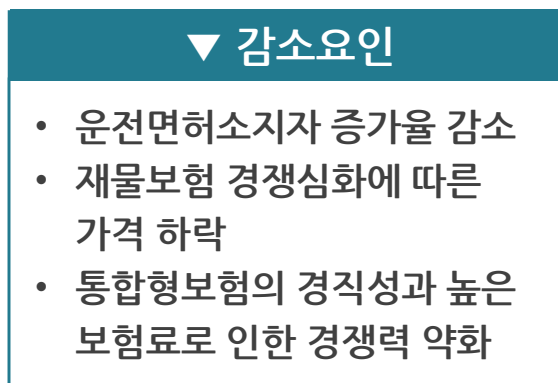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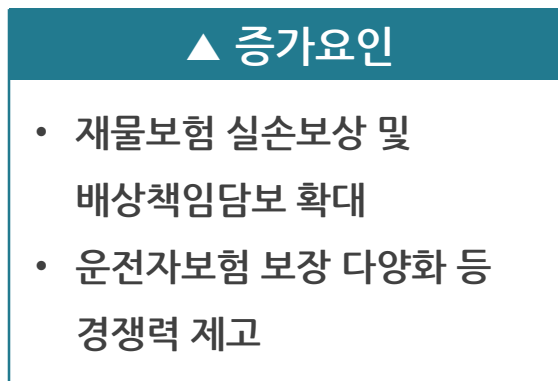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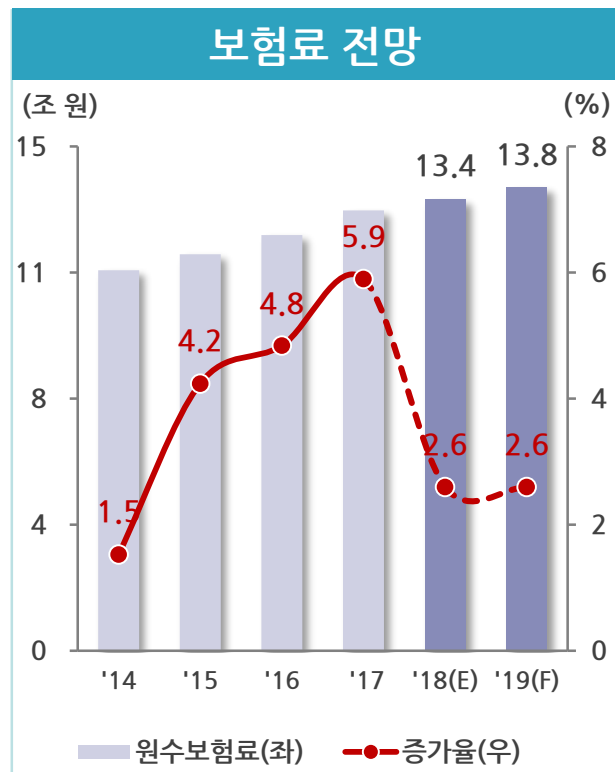
② 저축성보험

- 2019년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28.6% 감소한 3.3조 원 전망
 - 최저보증이율에 따른 금리리스크, 자본부담,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상품경쟁력 약화



③ 운전자, 재물보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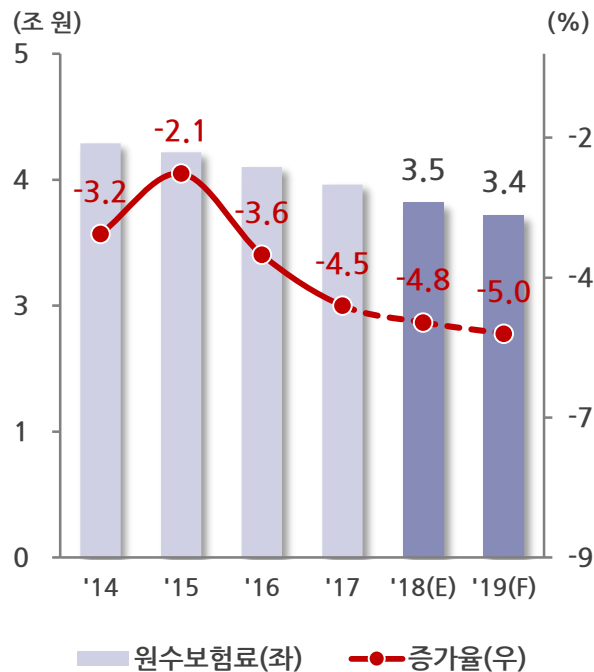
- 2019년 운전자, 재물보험 등의 원수보험료는 2.6% 증가한 13.8조 원으로 전망
 - 운전자보험: 운전면허소지자 증가율 둔화
 - 재물보험: 실손보상 상품 증가, 배상책임보험 담보 확대, 마케팅 강화 등으로 성장 지속
- * 2017.6월 이후 운전자·재물보험 원수보험료가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를 상회함
- 통합형보험 감소세 지속



3) 개인연금

- 2019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5.0% 감소한 3.4조 원 전망
 - 저금리 장기화,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상품경쟁력 약화

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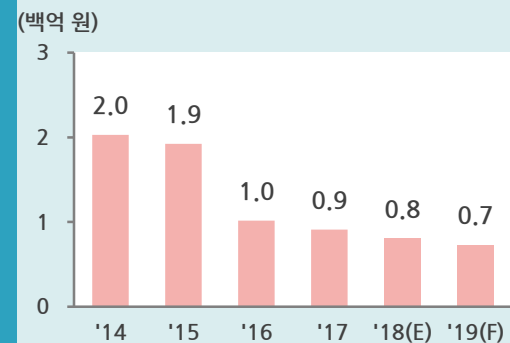
▲ 증가요인

-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공시이율 상승
- 국민연금 불안으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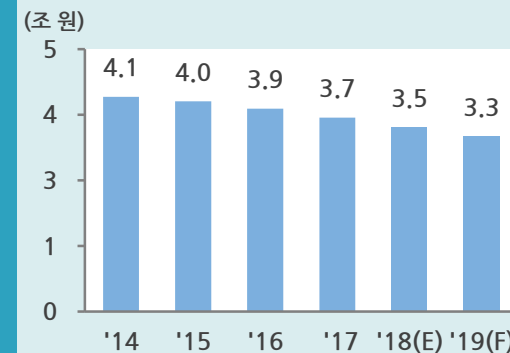
▼ 감소요인

- 저금리 장기화와 세제혜택 축소로 상품경쟁력 약화 (2014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초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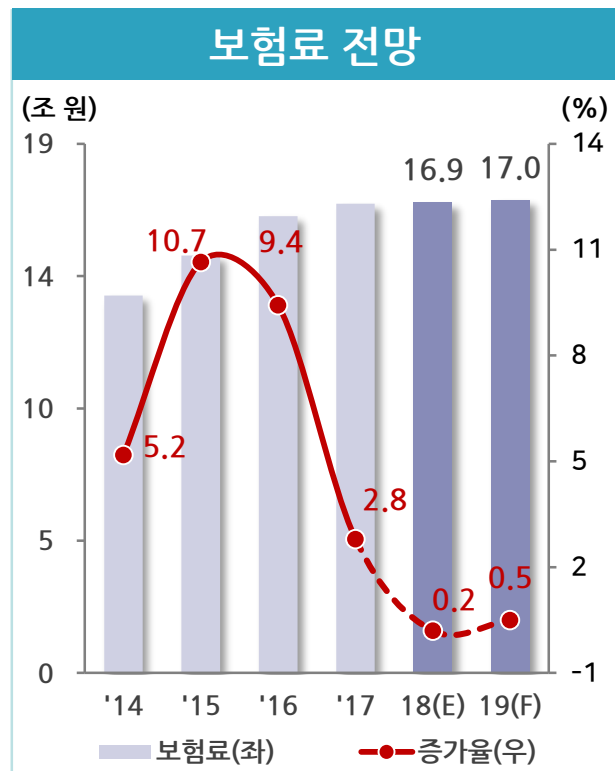


계속보험료



4) 자동차보험

- 2019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0.5% 증가한 17.0조 원 전망
 - 자동차 등록대수 완만한 증가세 지속
 - 개별소비세 인하,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건보확대 적용, 이상기온(한파, 폭염) 등 요율인상 요인과 승용차 운행거리 감소, 마일리지특약보험 등 요율하락 요인의 경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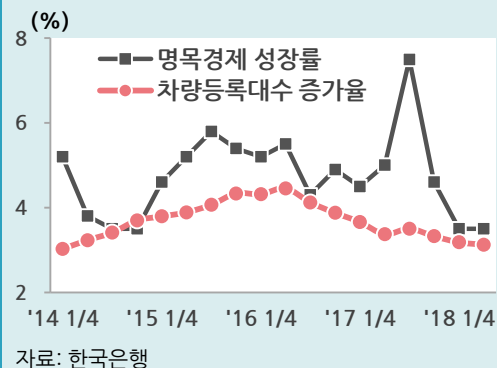
▲ 증가요인

-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건보확대 적용 등
- '18, '19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량증가
- 폭염, 한파 등 이상기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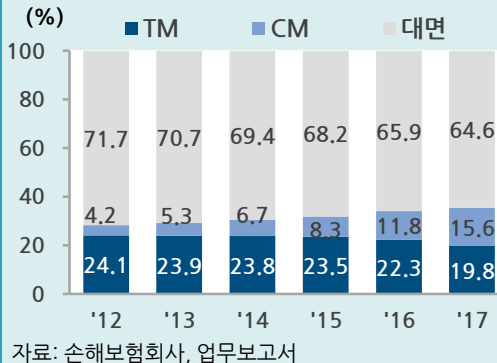
▼ 감소요인

- 승용차운행거리 감소세
-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으로 자동차사고 감소
- 마일리지보험 할인율, 대상 확대

차량등록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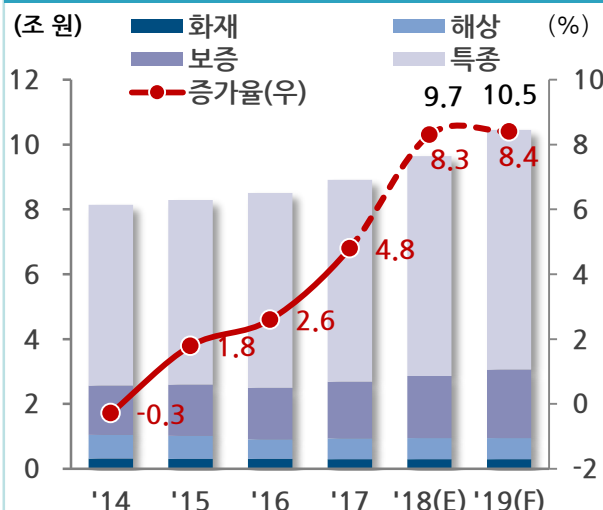
채널별 판매 비중



5) 일반손해보험

- 2019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8.4% 증가한 10.5조 원 전망
 - 제도개선으로 특종, 보증보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이버보험('19.6) 등 의무보험 확대 및 가입단순화, 간단보험 활성화 진전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
 - 저성장,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기둔화와 2단계 혁신에 따른 기업성 보험 경쟁 심화는 감소요인임

보험료 전망



증가율(%)	'14	'15	'16	'17	'18(E)	'19(F)
화재	-3.6	-2.1	-1.0	-1.5	-1.2	-0.6
해상	-2.2	-3.4	-14.3	5.9	0.7	1.0
보증	-0.6	4.4	0.6	9.6	10.0	10.0
특종	0.3	2.0	5.4	3.7	9.0	9.0

▲ 증가요인

- 제도개선으로 보증, 특종보험의 성장
- 재난배상책임보험('17.7), 사이버보험('18.10) 등 의무보험 확대
- 중금리대출보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증가('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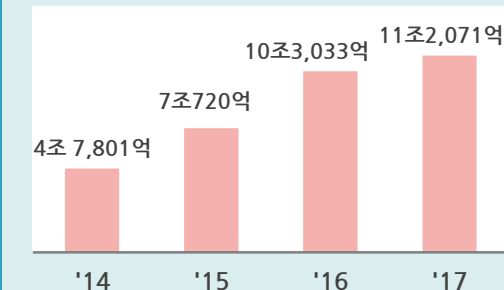
* 전세금보장보험 17년 중 판매건수 전년대비 14.6% 증가, 집주인 등의 면제 이후에는 33.1% 증가

▼ 감소요인

-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 감소, 기업구조조정 지속
- 경쟁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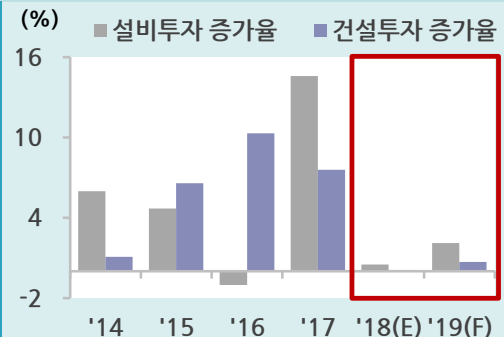
저축은행가계대출

잔액 (원)



자료: 금융감독원

건설·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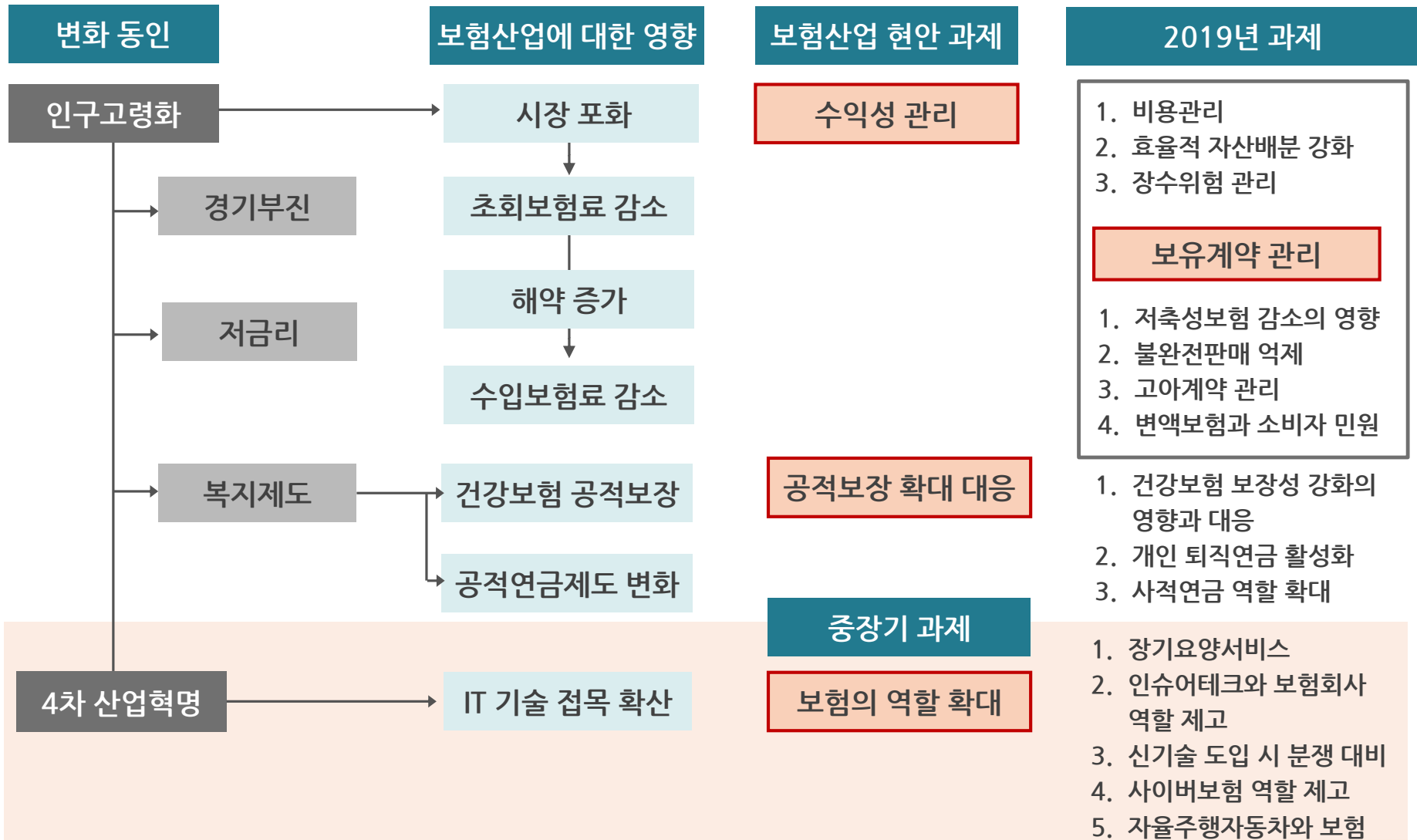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II. 경영 및 정책과제

1.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2. 세부과제

1.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2. 세부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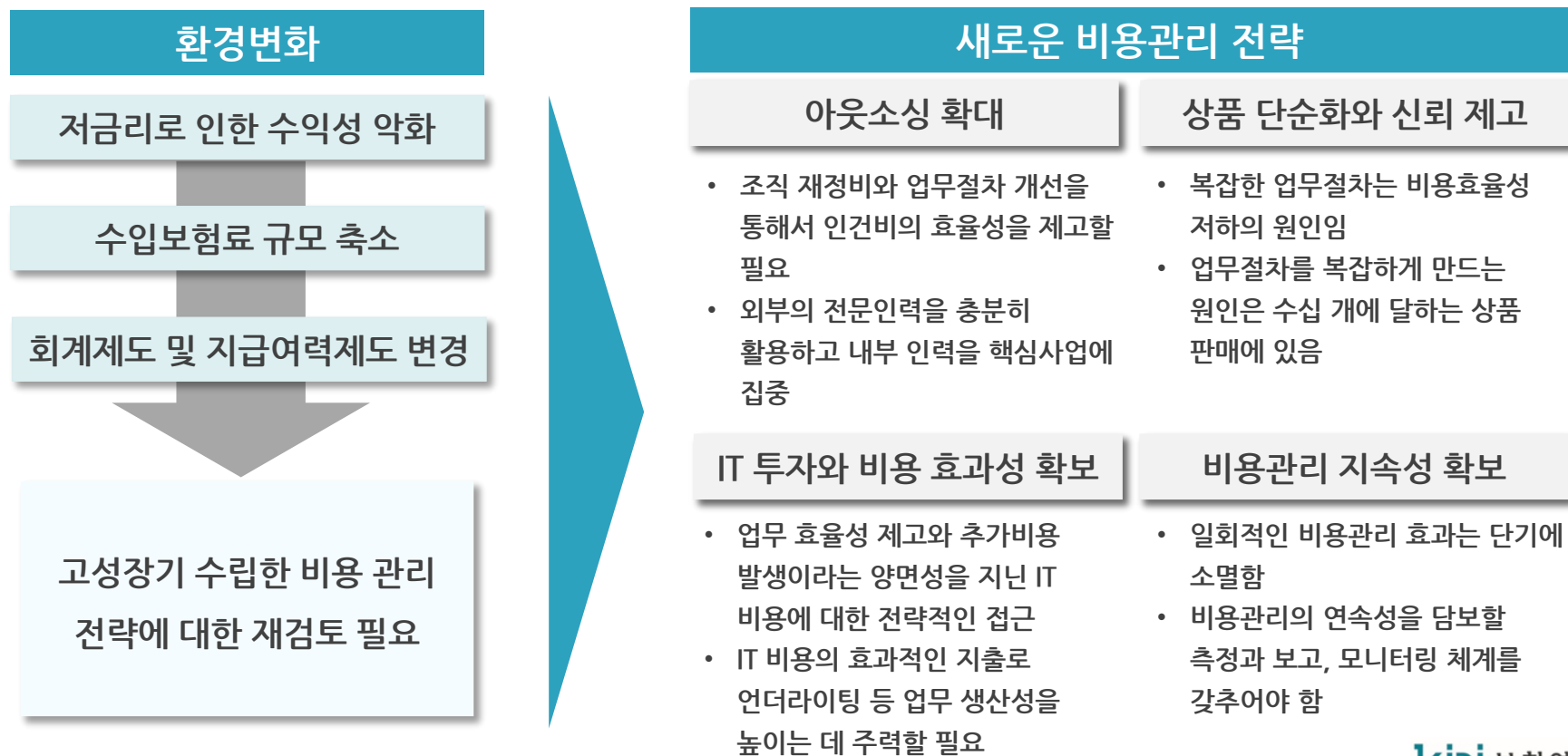
- 1) 수익성 관리
- 2) 보유계약 관리
- 3) 공적보장 확대 대응
- 4) 보험의 역할 확대

1) 수익성 관리

- ① 비용관리
- ② 효율적 자산배분 강화
- ③ 장수위험 관리

① 비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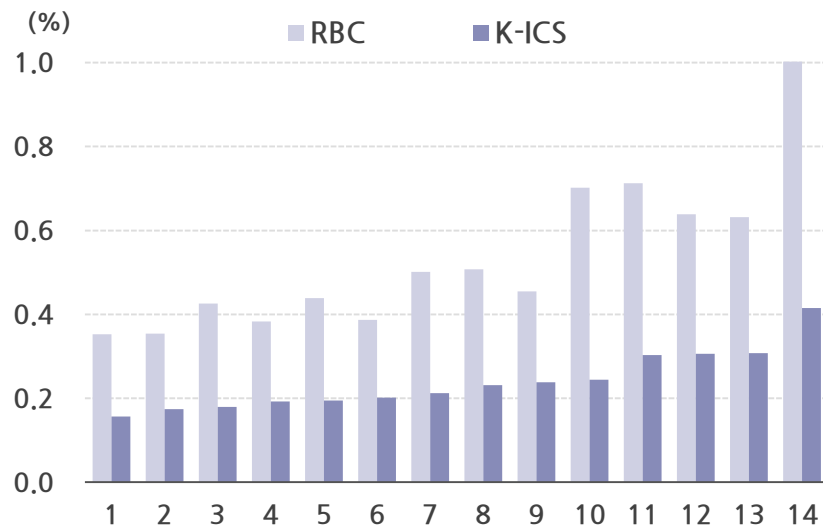
- 저금리로 이익의 질을 개선하기 어렵고 수입보험료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환경변화에 맞는 비용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비용관리 전략은 일회성 구조조정과 달리 비용효율화를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② 효율적 자산배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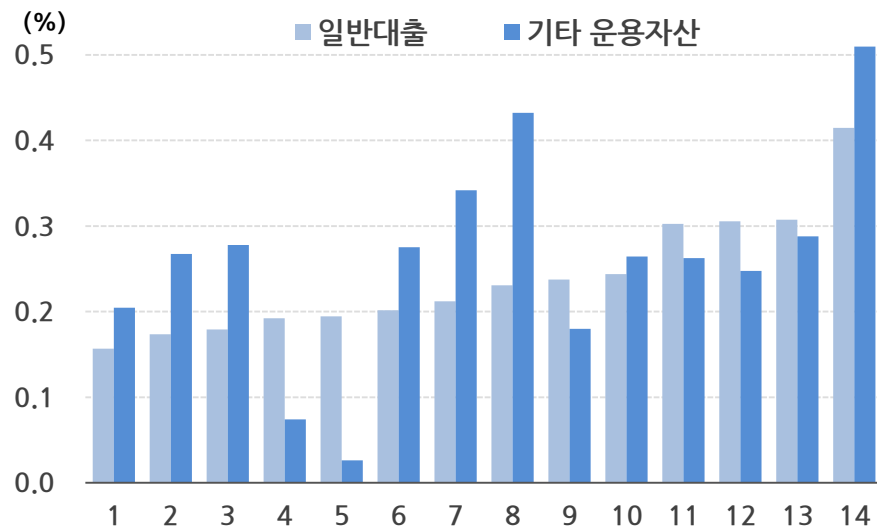
- 저축성보험 감소에 의한 적립금 증가율 둔화 및 투자영업이익 비중 감소,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에 대응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함
- K-ICS 요구자본 대비 기대수익이 높은 자산군은 비중을 확대하고, 낮은 자산군은 비중을 축소하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해야 함
 - K-ICS 시행 시 보험회사의 일반대출은 요구자본 대비 수익성이 RBC 제도에 비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보험회사별 일반대출의 요구자본 대비 수익성 변화



주: 2017년 기준
자료: 각사 경영공시를 바탕으로 추정

K-ICS 시행 시 보험회사 자산별 요구자본 대비 수익성



주: 2017년 기준
자료: 각사 경영공시를 바탕으로 추정

③ 장수위험 관리

- 2021년 도입되는 장수위험은 생명보험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관련 이슈 분석,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래 사망률 예측 불확실성, 연금부채 증가 및 계약자 고령화로 장수위험 확대 가능성이 높아짐
- 보험회사는 장수위험 관리를 통해 요구자본 부담을 경감하고 자본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1년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

- 현행 RBC 제도에는 장수위험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 2021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 K-ICS에 장수위험 요구자본이 포함됨
- 연금보험은 수입보험료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의 부담 예상

생명보험회사의 요구자본 부담과 관련 이슈

- 생명보험 산업의 장수위험 요구자본 부담은 4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생명보험회사의 정확한 장수위험 측정을 위해 시나리오방식 허용 필요
-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의 위험경감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

장수위험 확대 가능성

- 미래 사망률 예측 불확실성
- 연금부채의 빠른 증가 및 계약자 고령화
- 종신보험의 대규모 연금전환 우려

장수위험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요구자본 부담 경감을 위해 비중이 높은 장수위험 관리 유인 존재
- 재보험과 보험연계증권(ILS)을 이용한 자본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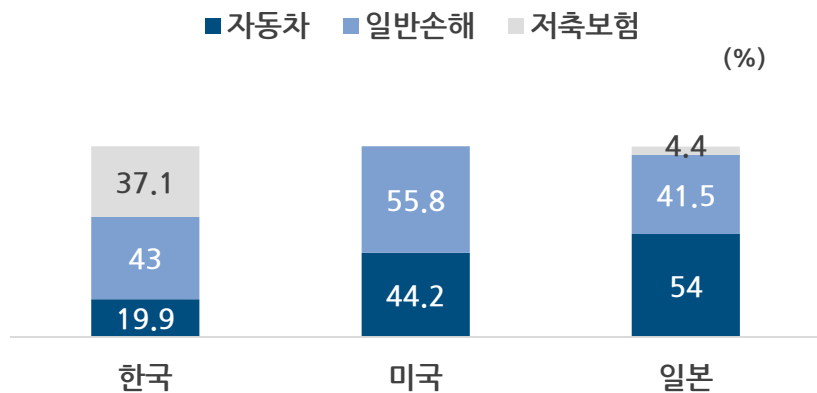
2) 보유계약 관리

- ① 저축성보험 감소의 영향
- ② 불완전판매 억제
- ③ 고아계약 관리
- ④ 변액보험과 소비자 민원

① 저축성보험 감소의 영향

- 저축보험료 적립금은 보험영업이익을 발생시키지 않고 규모에 비해 투자이익이 작아 ROA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 규모에 비해 적은 자본이 요구되어 ROE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 저축보험료 적립금 감소에 따라 보험회사는 투자영업이익 비중 감소, ROA 상승, ROE 하락, 이익변동성 증가 등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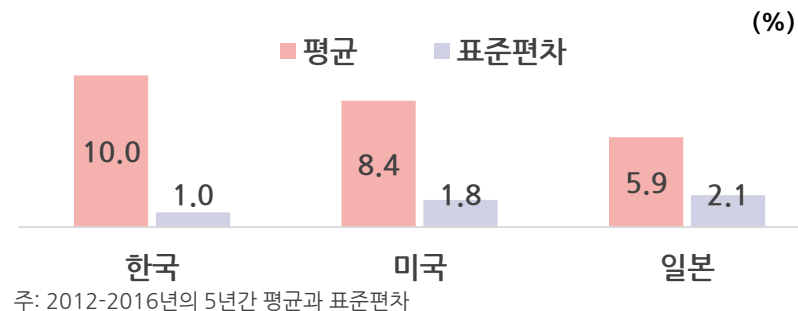
주요국 손해보험회사의 사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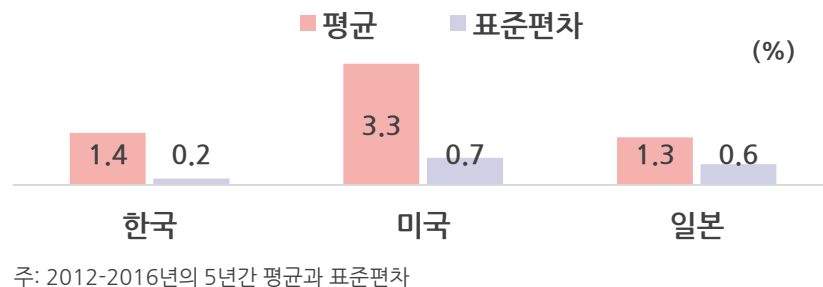
주: 2016 기준, 원수보험료 대비 비중

- 한국 손해보험회사는 저축보험 비중이 높음
- 한국 손해보험회사는 보장성 부문의 이익 안정성도 높아 저축성 부문의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ROA가 높음

ROE 평균과 표준편차



ROA 평균과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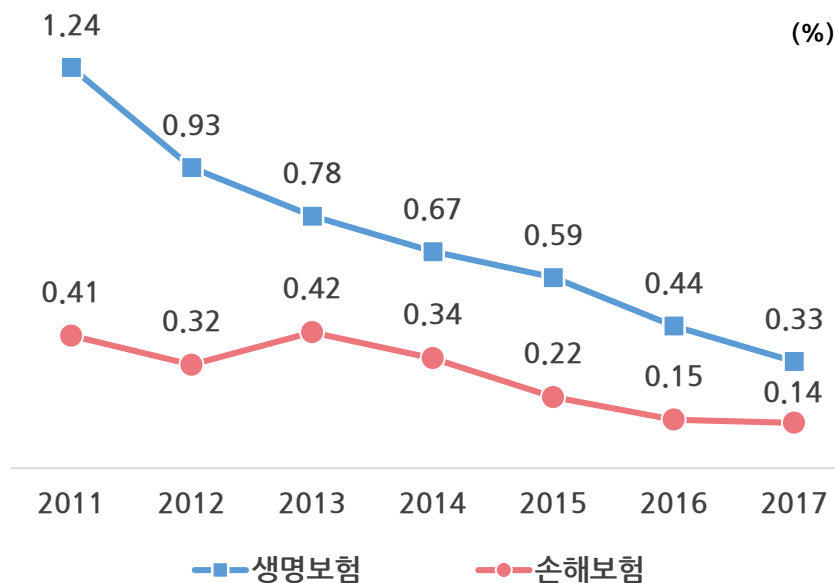
② 불완전판매 억제

-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로 불완전판매비율은 개선되었으나 소비자 체감도는 낮음
 - 전체 민원 중 보험모집, 계약성립 및 해지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음
- 저금리 환경변화에 부합한 설계사 보수체계 마련(총수수료 수준, 분급확대, 채널별 수수료차등화 등),

푸쉬·판매 중심에서 인바운드·컨설팅형 채널로 전환, 모럴해저드 관리를 위한 판매자책임 법제,

설계사 이력관리 시스템 보완이 필요함

불완전판매비율 추이



주: 불완전판매비율 = (품질보증해지건수 + 민원해지건수 + 무효건수) / 신계약건수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의 주요 민원 유형별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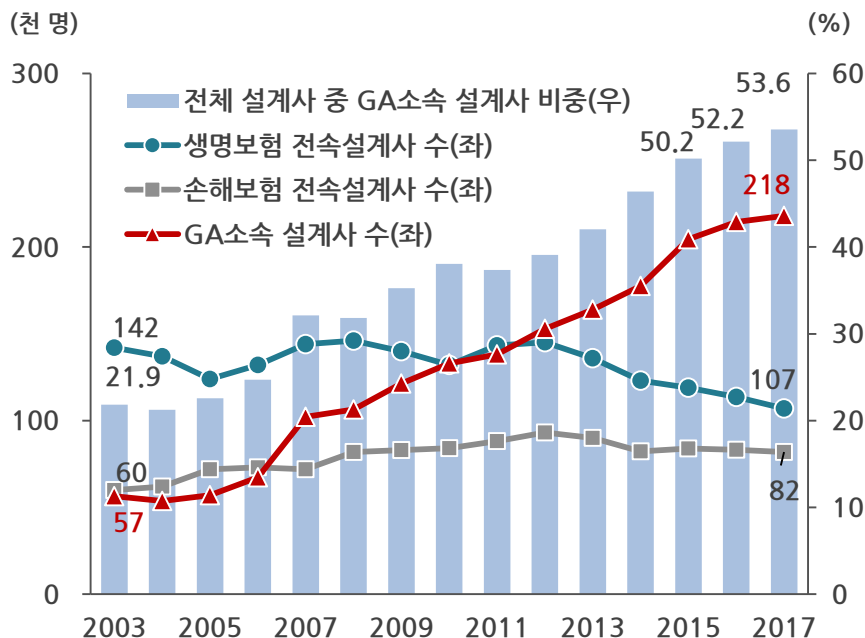
구분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금 산정	보험금 지급 지연	면부책 결정	기타
	보험 모집	계약 성립 · 해지				
2012	27.2	8.5	13.6	13.4	8.4	29.0
2013	26.5	8.3	16.4	11.5	10.5	26.8
2014	24.4	7.6	19.7	12.5	9.4	26.3
2015	21.8	8.8	15.3	16.1	8.9	29.0
2016	21.9	7.8	17.7	11.9	10.4	30.3
2017	19.8	8.3	18.5	10.3	11.2	31.8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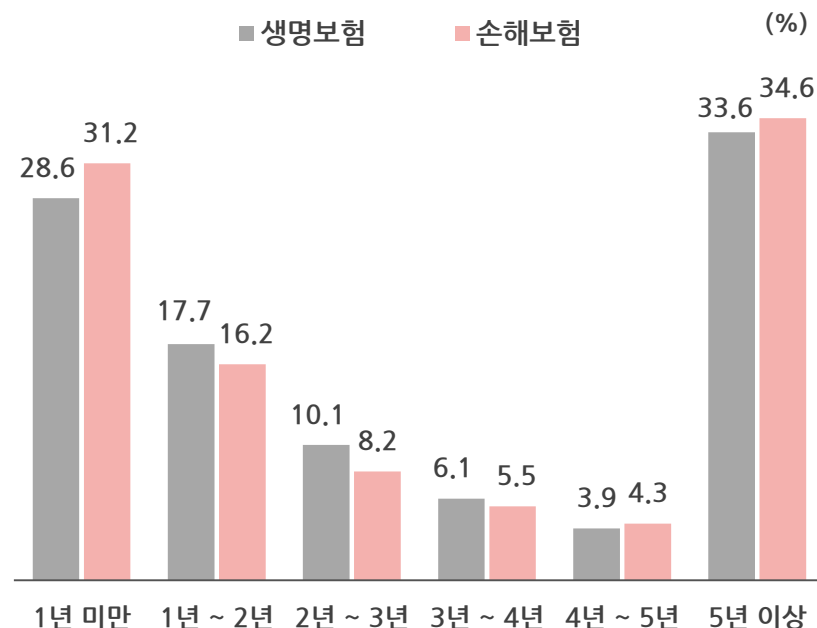
③ 고아계약 관리

- 모집 수수료 등 인센티브로 인한 설계사의 독립대리점(GA) 이직 등으로 고아계약이 증가함
- 소비자 중심의 유지관리 서비스체계 구축(Up-Selling 위주 전략 지양), 고아계약 관리 전담조직 운영(보험회사/GA), 보험계약 유지에 따른 인센티브제 확대 조정, 고아계약에 대한 기준 설정, 관리지표 개발 및 공시 추진

전속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 추이



설계사 근속연수별 비중(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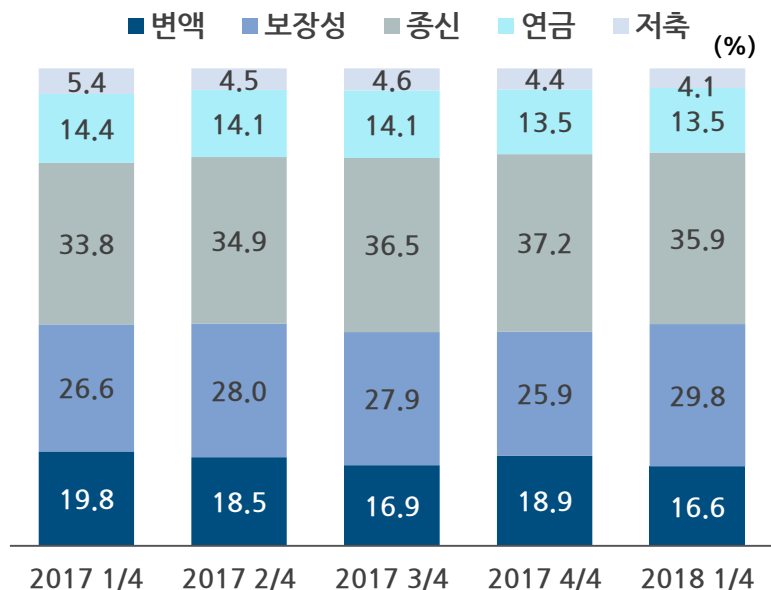


주: 고아계약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설계사의 퇴직/이직 등으로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약
 자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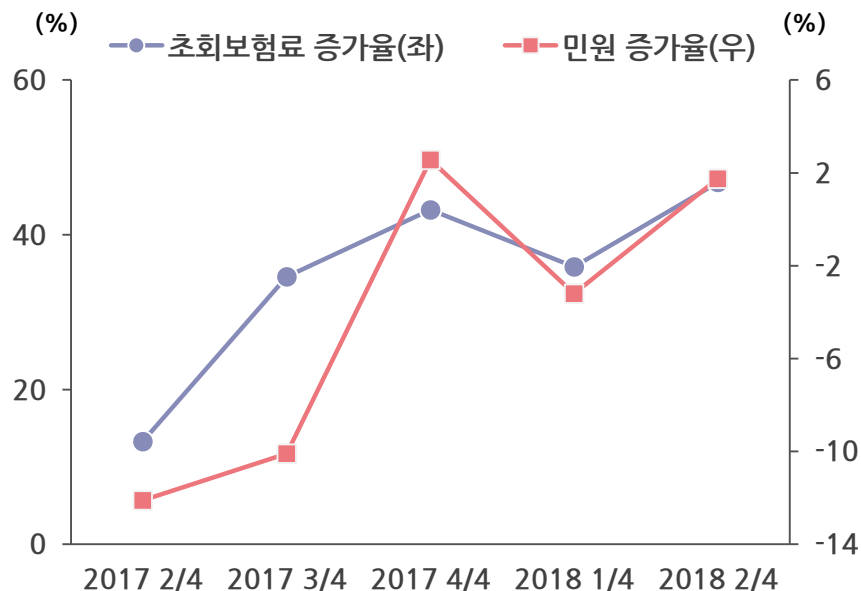
④ 변액보험과 소비자 민원

-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높아지면 변액보험의 민원 증가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 변액보험 마케팅 강화는 민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변액보험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이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생명보험 종목별 민원 비중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와 민원 증가율



주: 1) 변액보험은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저축보험 포함

2) 보장성보험은 단독실손, 질병, 재해보험 등 포함. 종신은 제외

자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주: 변액보험은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저축보험 포함

자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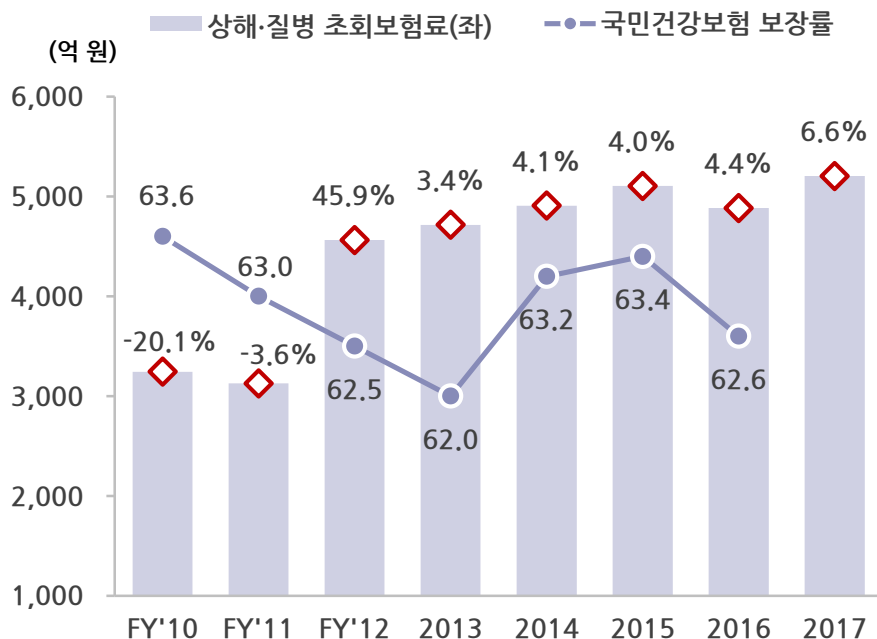
3) 공적보장 확대 대응

- 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② 개인퇴직연금 활성화
- ③ 사적연금 역할 강화

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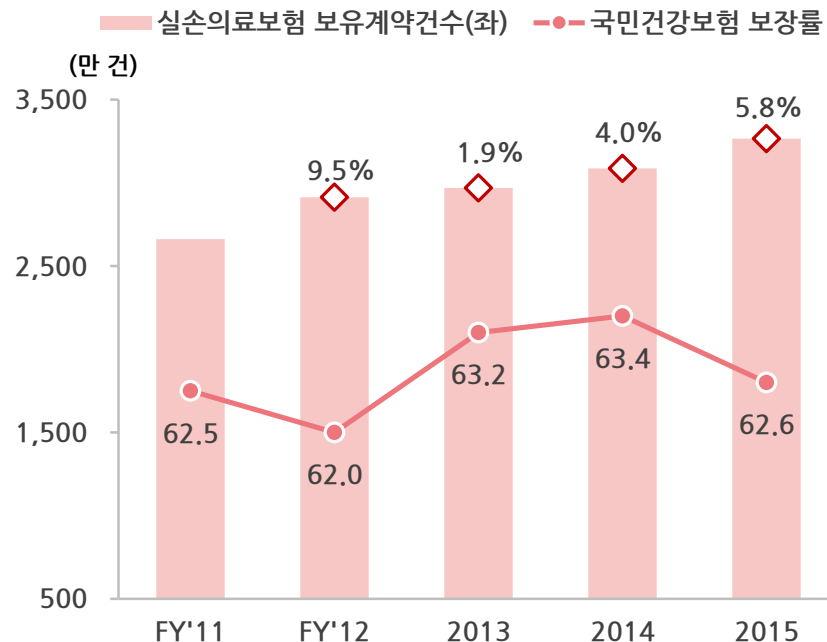
- 과거에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이 비급여와는 무관하였으나 문재인 케어의 보장을 확대는 비급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비급여 항목 조정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

상해·질병 초회보험료 추이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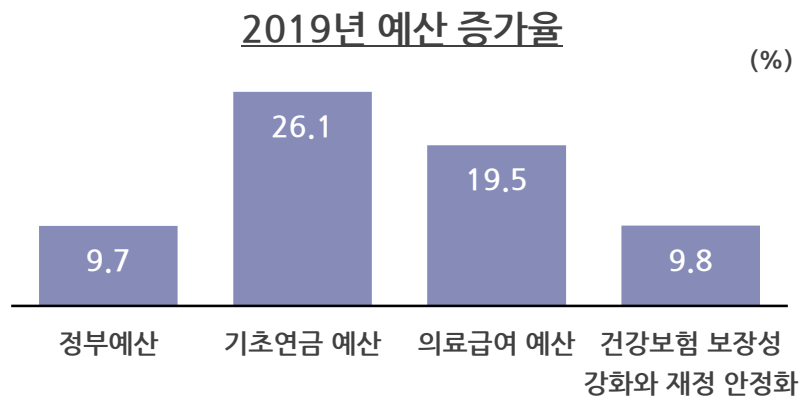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② 개인퇴직연금 활성화

- 2019년 정부 예산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을 확대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확대되는 추세임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확대가 중산층 대상의 개인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중산층 대상의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퇴직연금(IRP)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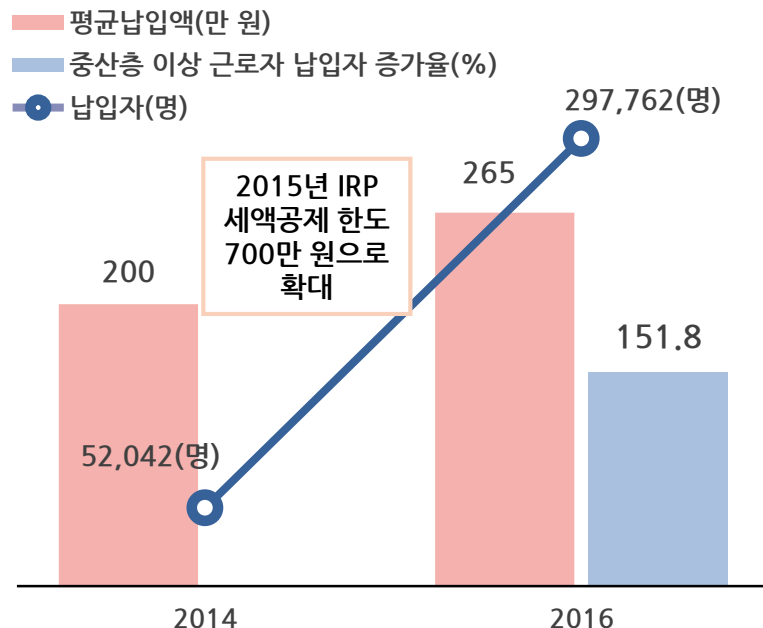
복지지출 확대 계획과 기초연금에 대한 영향



기초연금과 개인연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의 소득은 연간 4,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의 개인연금 가입율은 2016년 6.1%에 불과함

개인퇴직연금(IRP) 가입 현황



③ 사적연금 역할 강화

- 201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기금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질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기금고갈 방지대책 마련 중
- 공적연금제도의 변화는 사적연금 수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국민연금 재정 악화

- 201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수정됨

예상되는 기금고갈 방지대책

-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 수준이 2019년부터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음

사적연금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혼재되어
있음

사적연금 수요에 영향

(긍정적 영향)

-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로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완 수요 증가
-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상승할 경우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시점 사이의 노후소득 보장 상품 수요 증가

(부정적 영향)

-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증가로 사적연금 가입여력 감소
- 단기의 노후소득 보장 수요 증가에 따른 종신연금 수요 감소

4) 보험의 역할 확대

- ① 장기요양 서비스
- ② 인슈어테크와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
- ③ 신기술 도입 시 분쟁 대비
- ④ 사이버보험 역할 제고
- ⑤ 자율주행자동차와 보험

① 장기요양 서비스

- 우리나라 75세 이상 인구는 급증하고 있고 치매 유병률이 상승하는 등 향후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됨
- 보험회사는 기존의 보장영역을 장기요양 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환경 변화

75세 이상 인구 비중 급증 전망

- 2040년까지 16.9%까지 상승 전망
- 후기 고령자는 간병 및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연령대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치매고령자의 증가

-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 상승
- 치매환자 수는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함

부모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약화
- 노인 부양의 사회적 책임 요구 확대

보험회사
영역을
보장에서
관리로
확대

일본의 사례

일본, 2000년 이후 민간 기업 진출 확대

- 개호사업은 2017년 현재 2000년 대비 약 3배 성장
- 개호보수 조정 시 기업의 수익 변동성이 큰 단점

대형 손해보험회사 SOMPO 홀딩스 사례

- 적극적인 M&A로 업계 대표업체로 부상 (총 매출 업계 2위)
- 손해보험 사업과의 시너지 추구

수익성 확보 노력

- ICT, 로봇, AI 등을 활용한 효율화
- 의료기관 연계 대상자 조기 파악
- 정기식사 배달, 가사대행 등 서비스 확대

② 인슈어테크와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

- 보험회사들은 과거에 수행하던 리스크 재무(Risk financing) 기능 외에도 리스크 통제(Risk control) 기능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인슈어테크는 이러한 보험회사 역할 확대의 기반이 되고 있음
- 미래의 보험회사는 인슈어테크를 적극 이용하여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기관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나, 관련 규제의 완화가 전제되어야 함

전통적인 보험회사의 역할

- 보험회사의 역할은 피보험자의 리스크관리 옵션 중 리스크 재무(Risk financing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피보험자의 리스크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화하지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음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보험회사의 서비스 (국내 & 해외)

-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사전에 설정된 목표(칼로리 소모 등)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피보험자가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기기를 차량에 장착하거나, 주택 수도배관에 누수감지 기기를 장착하여 사고의 빈도 및 심도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임

미래 보험회사의 역할

- 미래의 보험회사는 손실의 금전적 보상보다는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기관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인슈어테크의 적극적인 적용이 수반되어야 함
- 사고예방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편익도 향상시킴

보험환경 변화 필요성

- 현행 규제는 보험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보험회사가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③ 신기술 도입 시 분쟁 대비

- 보험산업은 요율 및 보험대상 집단, 담보범위 및 약관, 보험영업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신기술 도입 시 기존의 규제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이러한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신기술을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④ 사이버보험 역할 제고

	현황 및 문제점	전략방안
기업시장	- 제3자(Third-party) 배상과 관련해서는 의무화 중심 사이버보험 정책 추진: 손해배상 수단으로 보험, 공제, 준비금 중 선택 - 당사자(First-party) 피해보상 관련 보험 가입 제고를 위한 정책 부재	- 위험전달 기능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는 보험 중심으로 손해배상 수단 단일화 - 보험 가입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금융, 바우처 제도 도입
가계시장	- 보험소비자 설문조사(2018) 결과에 의하면, 첫째, 대부분의 응답자가 가계성 사이버보험의 판매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 둘째, 판매사실을 모르고 있던 응답자 가운데 일부는 보험가입 의사를 밝혀 잠재수요 확인 - 셋째, 현재는 주로 특약형으로 판매하는데, 단독형 수요 존재	- 단독형 가계성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 - 단독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 활성화 -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IoT 업체와의 제휴 추진
공공부문	- 공공부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고 가운데 하나 - 최근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고도화,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 혁신 등의 정책 발표 - 그러나 피해 발생 시 보상과 관련된 리스크재무 전략 부재	- 피해 발생 후 사후적인 재원조달 방식 대신 보험과 같은 사전적인 리스크재무 방식 도입 - 정부와 보험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 검토

⑤ 자율주행자동차와 보험

-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예정에 따라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관련 선제적 대비가 필요함
- 2019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법 정비 및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등 본격 진행 예정

배상책임법제

-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도 일반차와 동일하게 현행 배상책임 법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도 현행법제 적용방침을 밝혔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향 확정 예정
-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배상책임법제는 제로베이스에서 별도 검토 예정

보험제도

-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후에도 보험담보의 기본 체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임
- 보장범위, 요율산출 등에 있어서는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상품 도입이 필요함
- 해킹사고에 대한 보장을 위한 특약 개발도 요구됨

사고조사방안

- 자율주행차 장치나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ADS)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자율주행차 제작사에게 구상을 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또는 우리나라의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같은 자율주행차사고 전담 조사기구 설립이 검토되고 있음
- 사고조사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운행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고기록장치(Autonomous Technology Data Recorder, ATDR) 장착 의무화 및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보와 관련된 제도 도입 방안이 논의 중임

감사합니다

첨부 2: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목차

- I. 보험산업 환경변화
- II.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III. 수익성 제고 전략: 스페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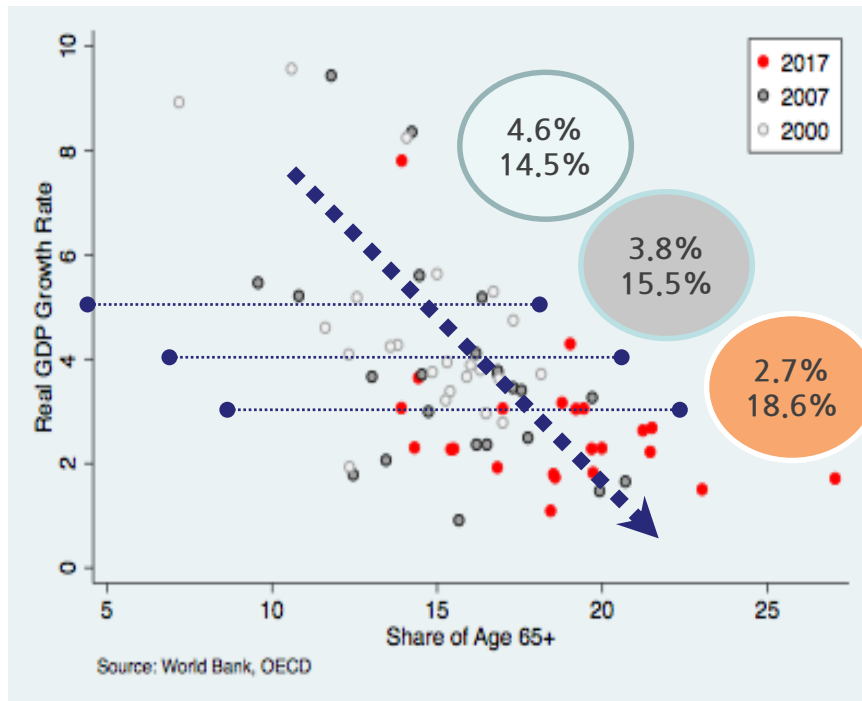
I. 보험산업 환경변화

1. 개요: 구조변화
2. 인구구조의 변화
3. 경영환경의 변화

1. 개요: 구조변화

- 2000년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경제성장률은 14.5%, 4.6%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의 경우 18.6%, 2.7%를 기록함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8.9%에서 3.1%,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7.2%에서 13.9%로 상승함
- 우리나라와 경제규모와 인구구조, 보험산업 규모가 유사한 8개 국가들의 인구, 경제환경 변화를 분석함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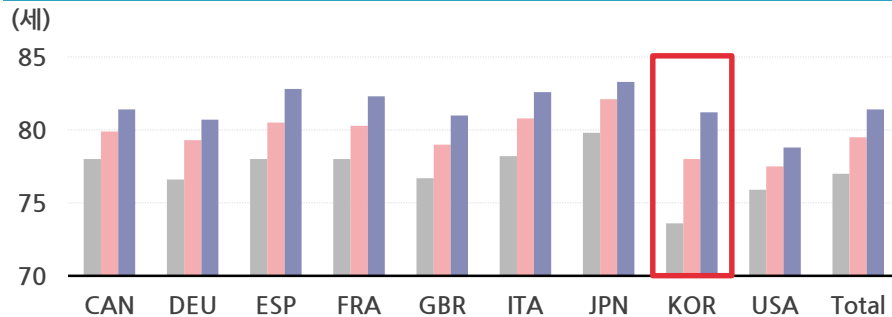
분석대상 국가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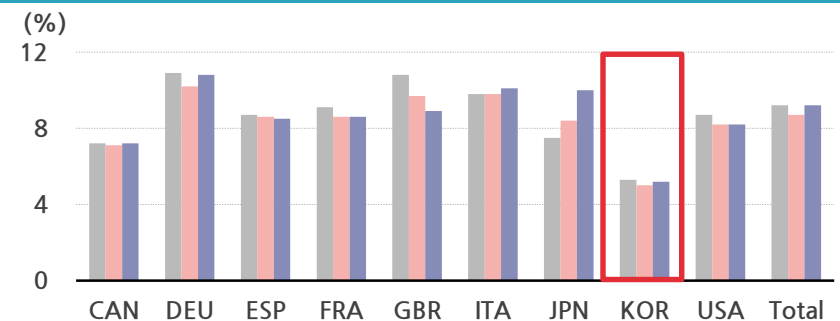
1) 기대여명 상승과 인구구조의 변화

- 1990년 이후 주요국의 기대여명은 상승하고 사망률은 소폭 상승,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상승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기대여명 상승, 낮은 사망률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빠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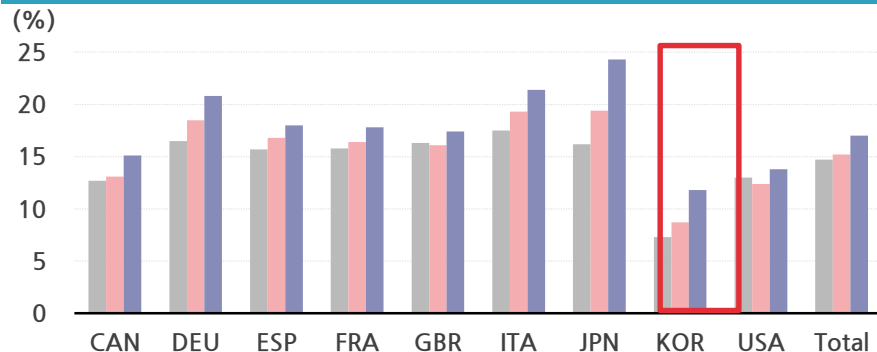
주요국의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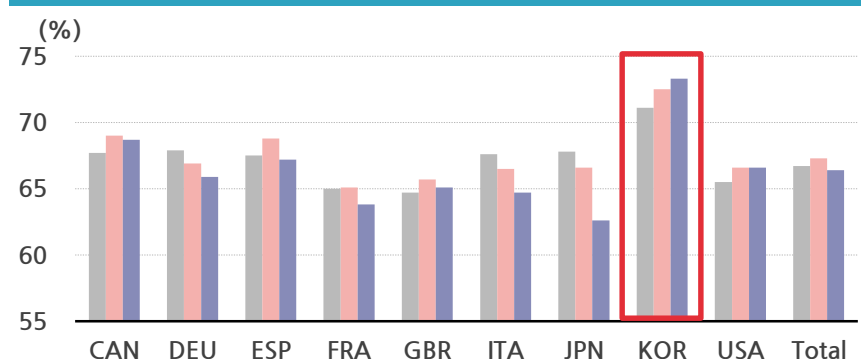
주요국의 사망률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주요국의 15-64세 이상 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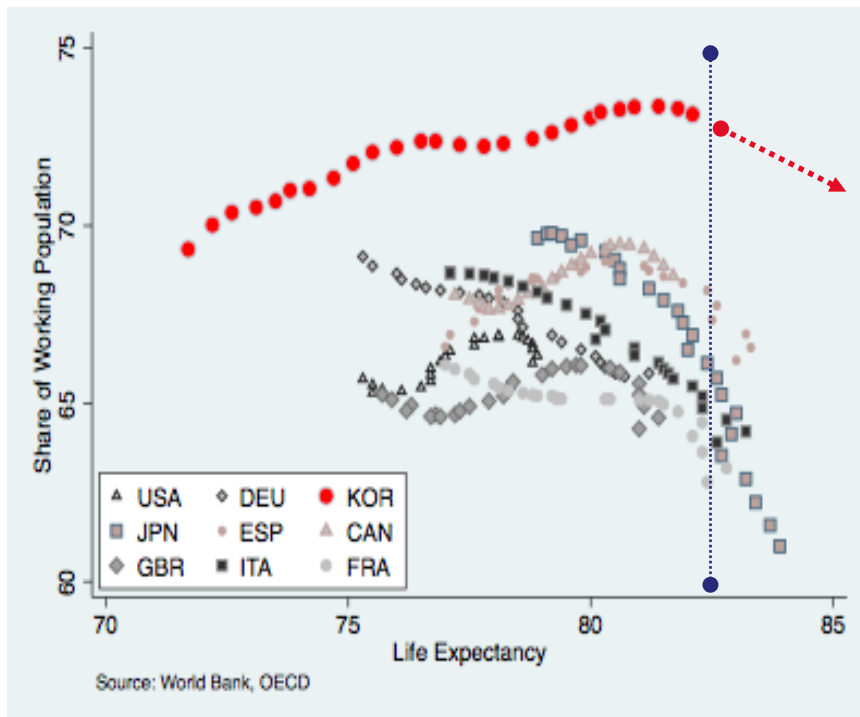
■ 1990-1999 ■ 2000-2009 ■ 2010-2015

■ 1990-1999 ■ 2000-2009 ■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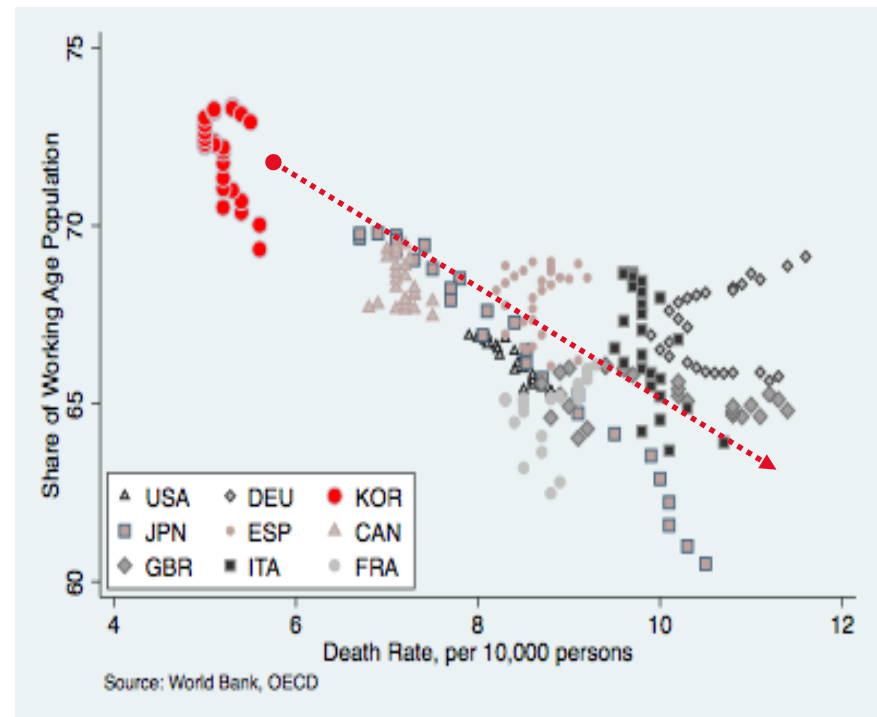
2) 생산가능인구

- 기대여명과 사망률 상승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여명이 높아질수록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폭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률이 높아져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대여명과 생산가능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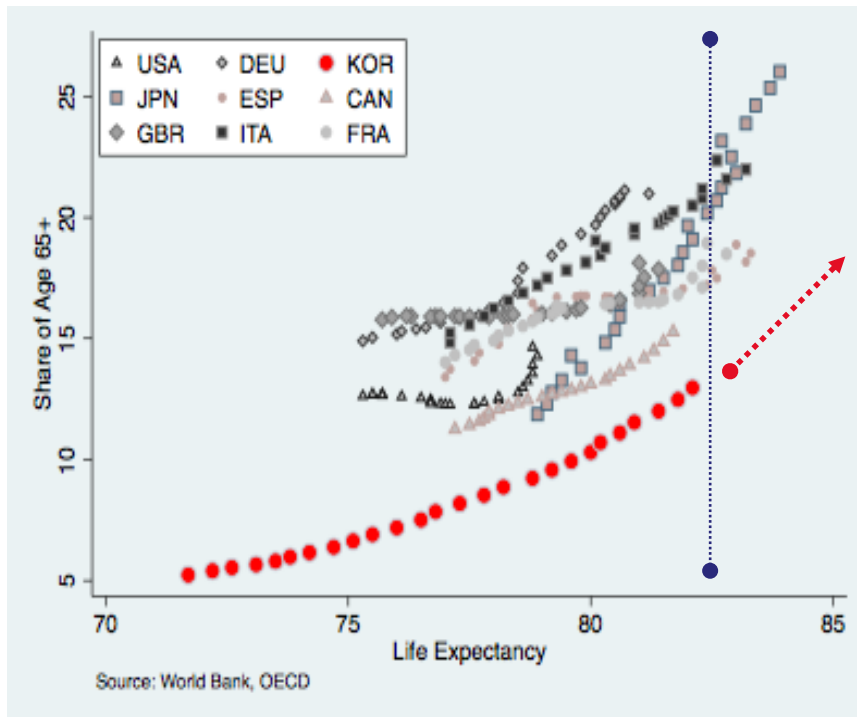
사망률과 생산가능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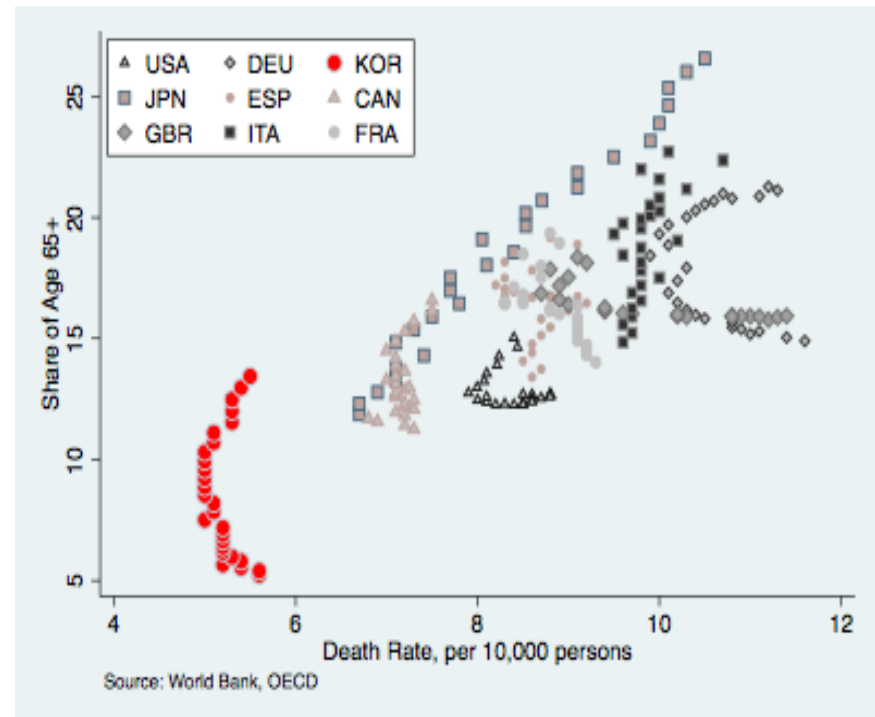
2) 생산가능인구(계속)

- 65세 이상 인구 비중에 대한 영향은 사망률보다 기대여명 상승세가 더 큰 것으로 보임
- 사망률은 2000년대 소폭 하락한 후 2010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사망률 하락 및 상승과 무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일본의 경우 사망률이 상승해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기대여명과 65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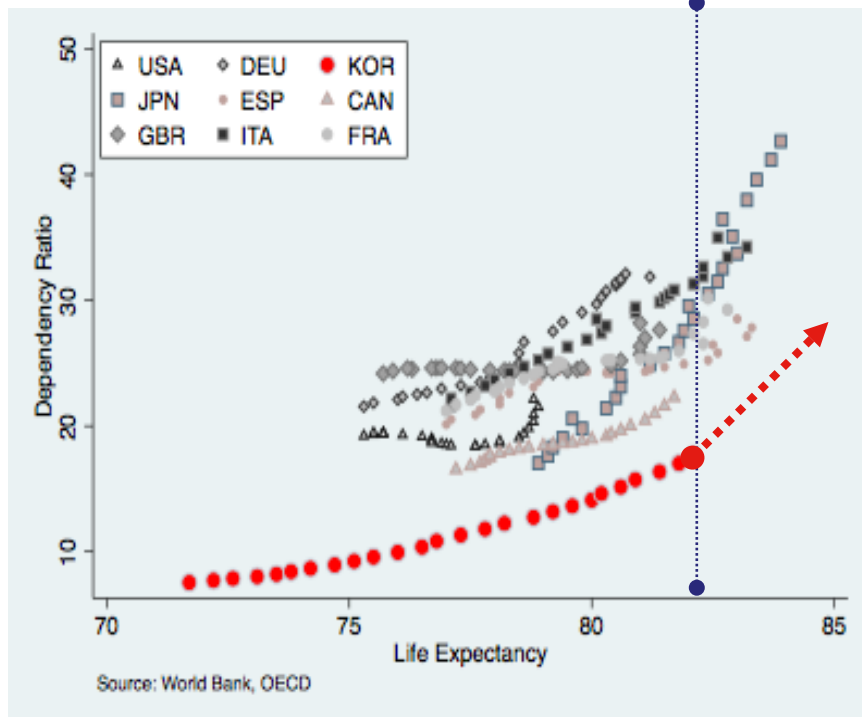
사망률과 65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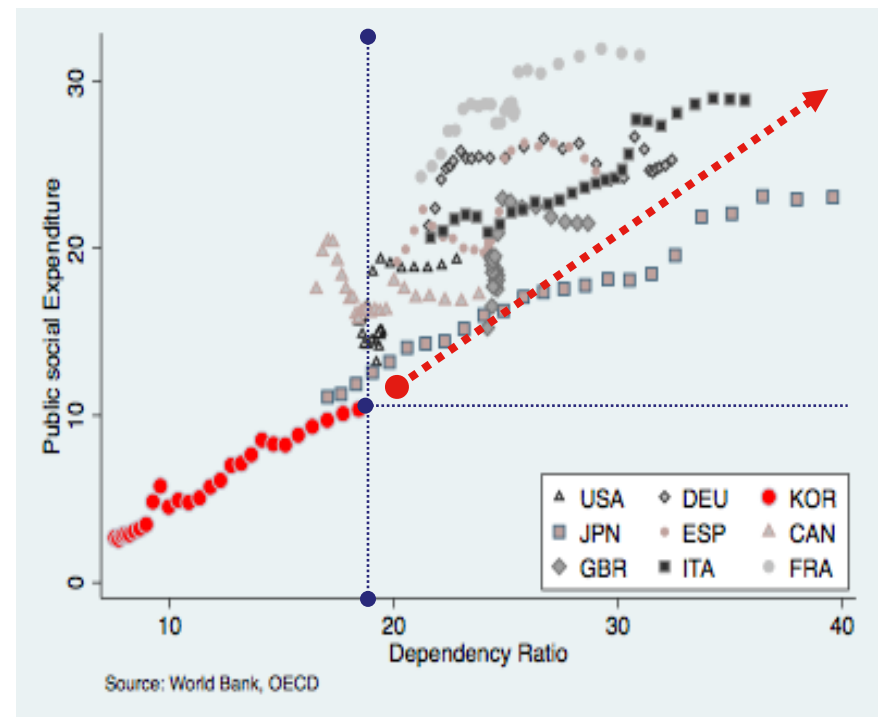
3) 재정

- 기대여명 상승으로 인한 노인부양비율의 상승은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보다 노인부양비율이 높은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기대여명과 노인부양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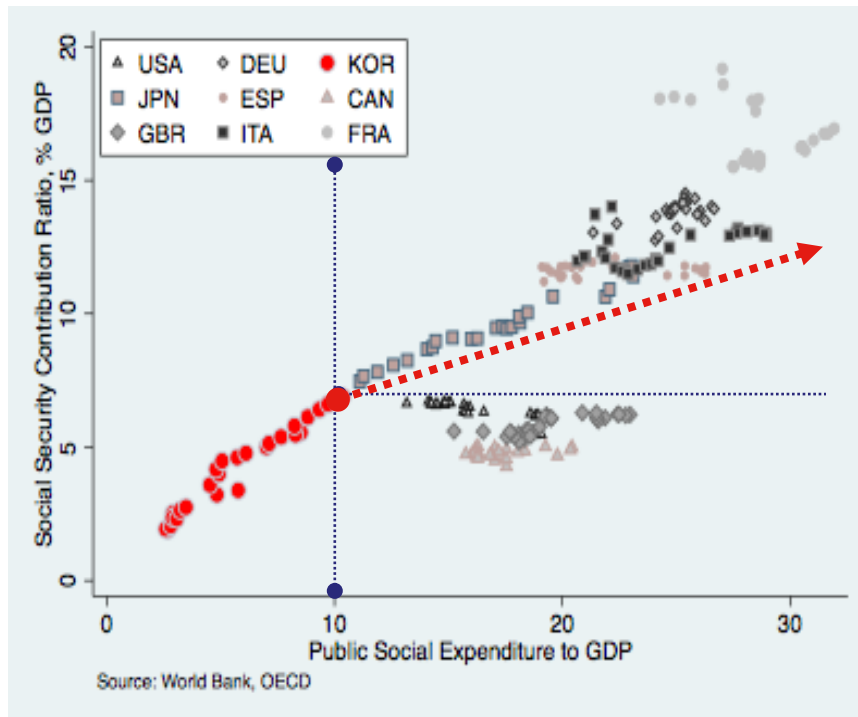
노인부양비율과 공공사회복지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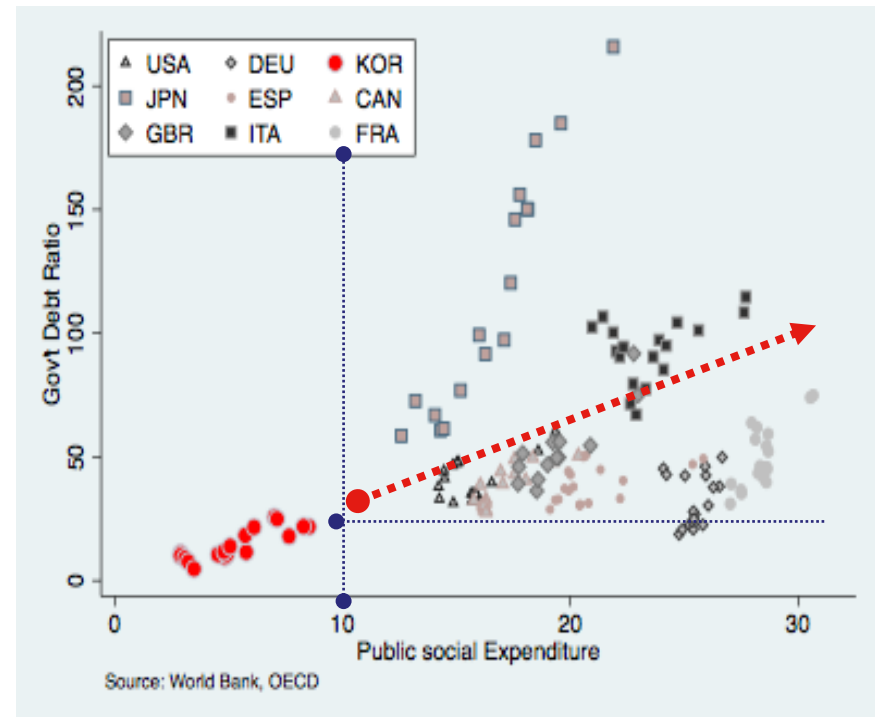
3) 재정(계속)

-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확대로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사회보장 기여율이 같은 방향으로 상승하지만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기여율을 보임
-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상승은 준조세부담을 확대시키고 국가부채 비율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사회보장 기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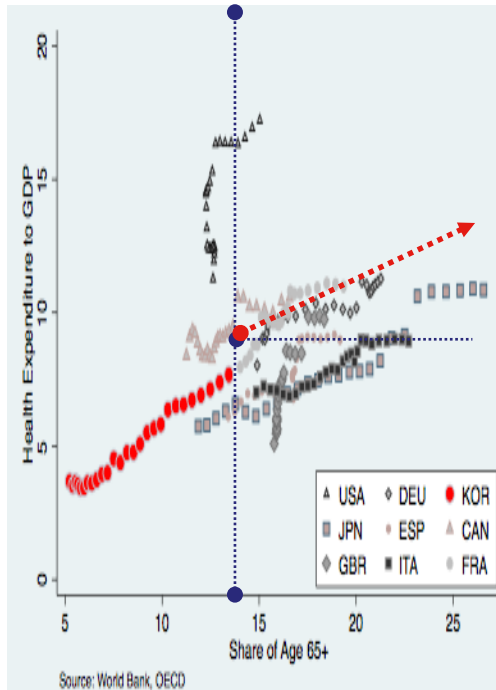
공공사회복지지출과 국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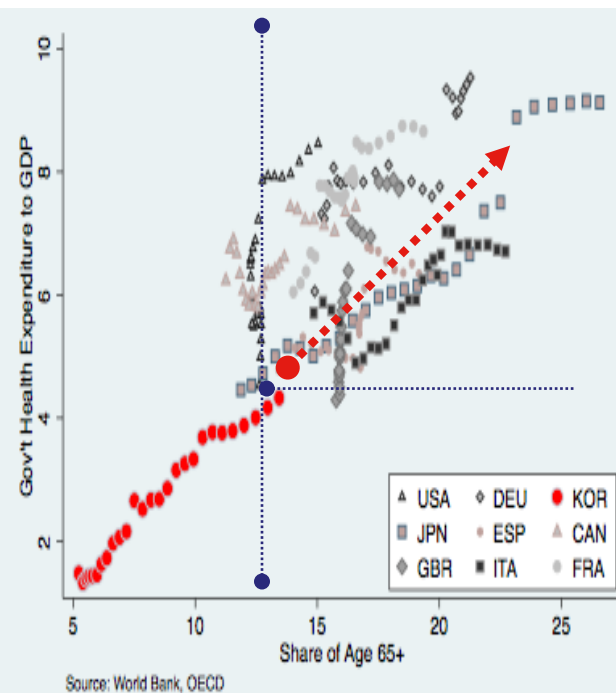
4) 의료비

- 고령화로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와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모두 상승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의료비 지출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만 개인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높기 때문에 향후 공적보장 비중은 더 확대될 여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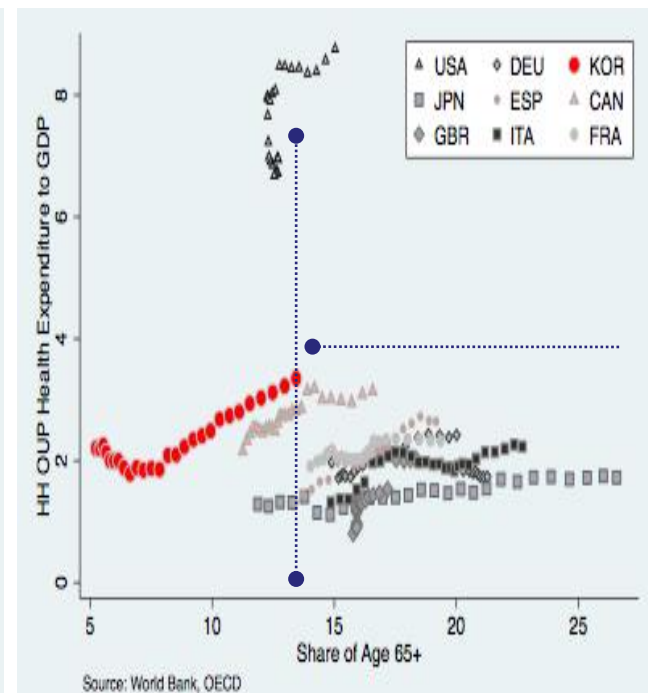
고령인구와 의료비 비중



정부의 의료비 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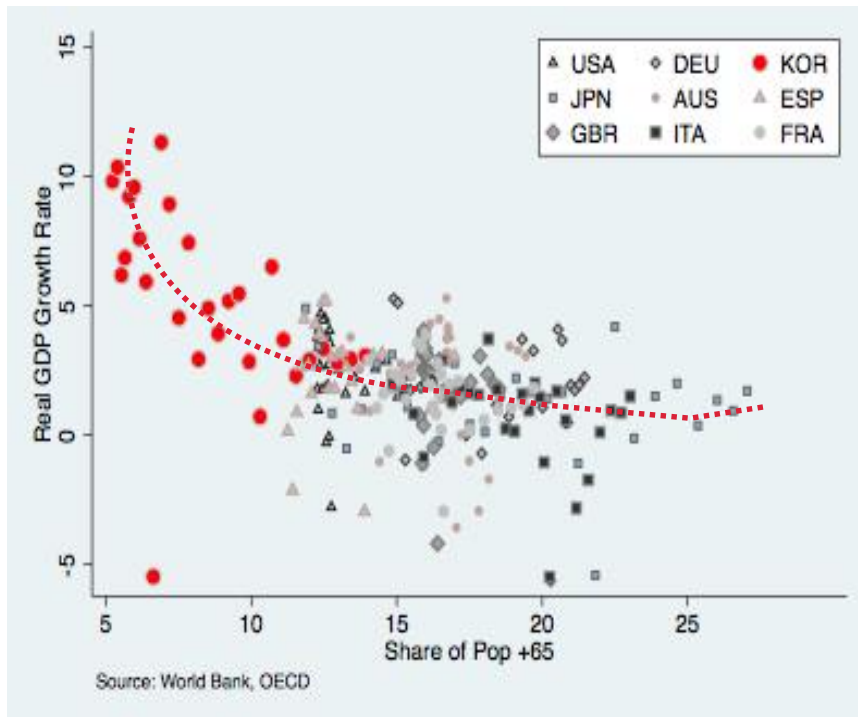
개인의 의료비 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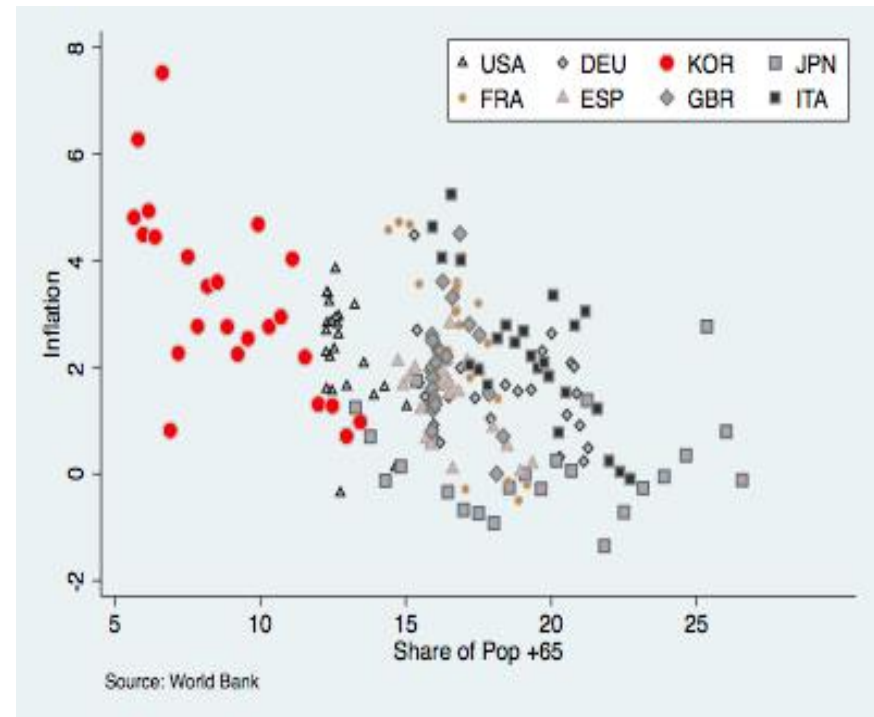
5) 경제성장률과 물가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상승할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 모습이 8개 주요국에서 관찰되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상승할수록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물가상승률도 낮아지는 모습이 관측되는데 이는 고령인구 비중이 상승하면서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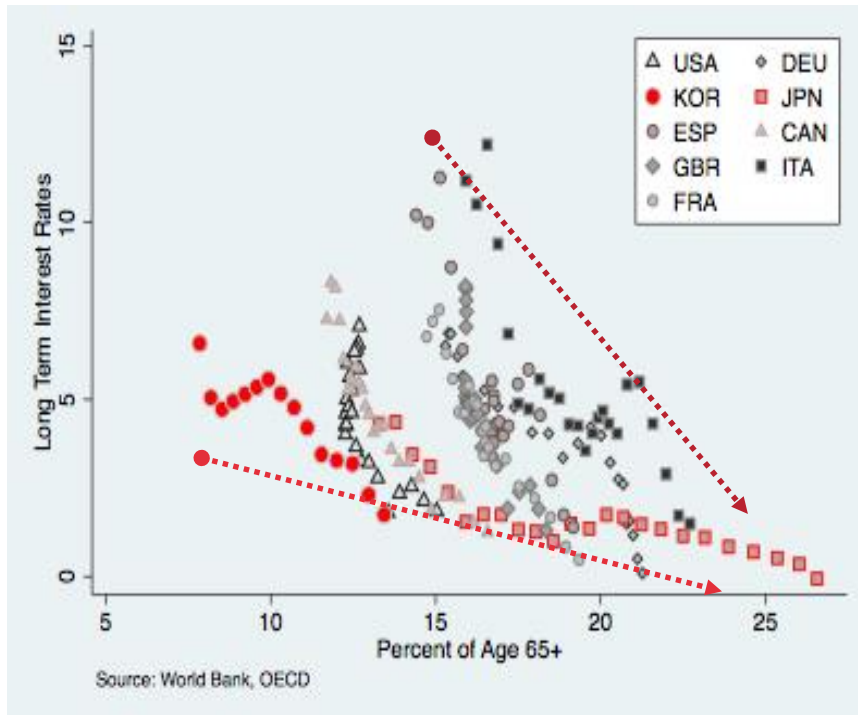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물가상승률



6) 금융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상승할수록 장기금리 수준은 낮아지고 국가의 금융산업은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독일과 미국의 금융발전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금융발전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장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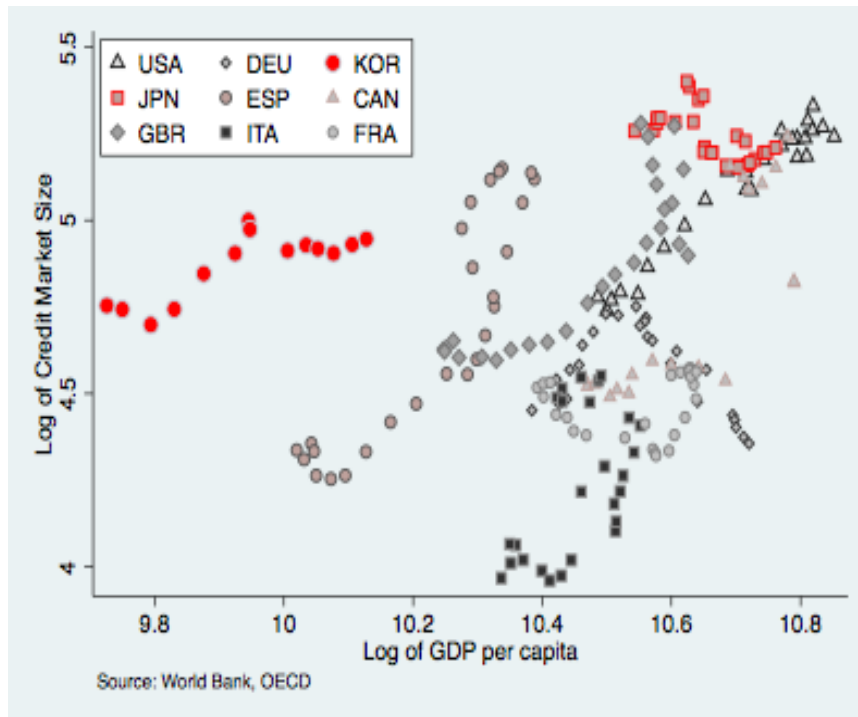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금융발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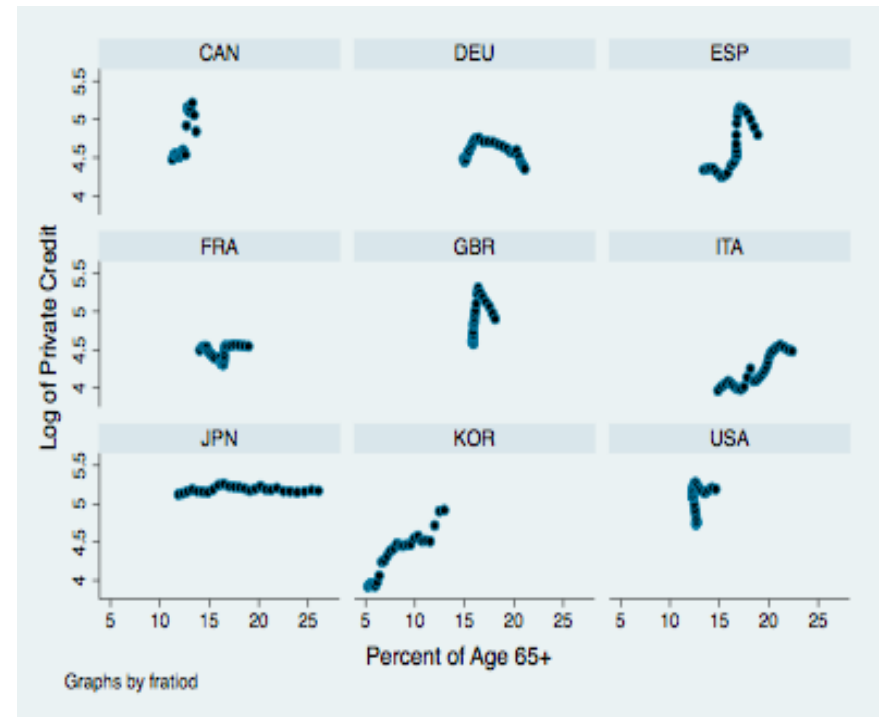
6) 금융(계속)

-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민간신용시장 규모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미국, 스페인, 독일, 영국, 일본의 경우, 신용시장의 규모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특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상승한 후 그 수준을 넘어서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1인당 GDP와 민간신용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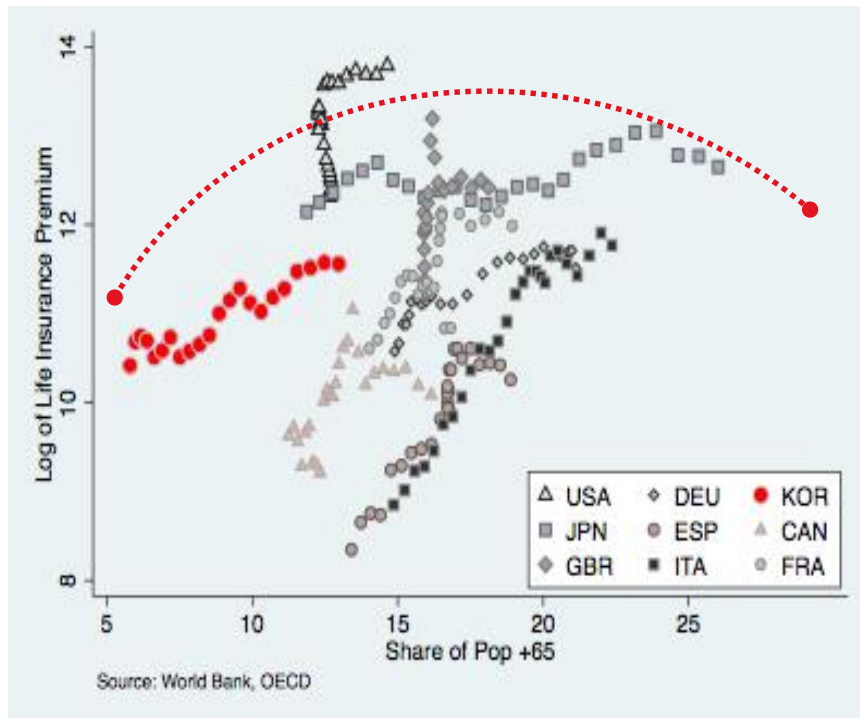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민간신용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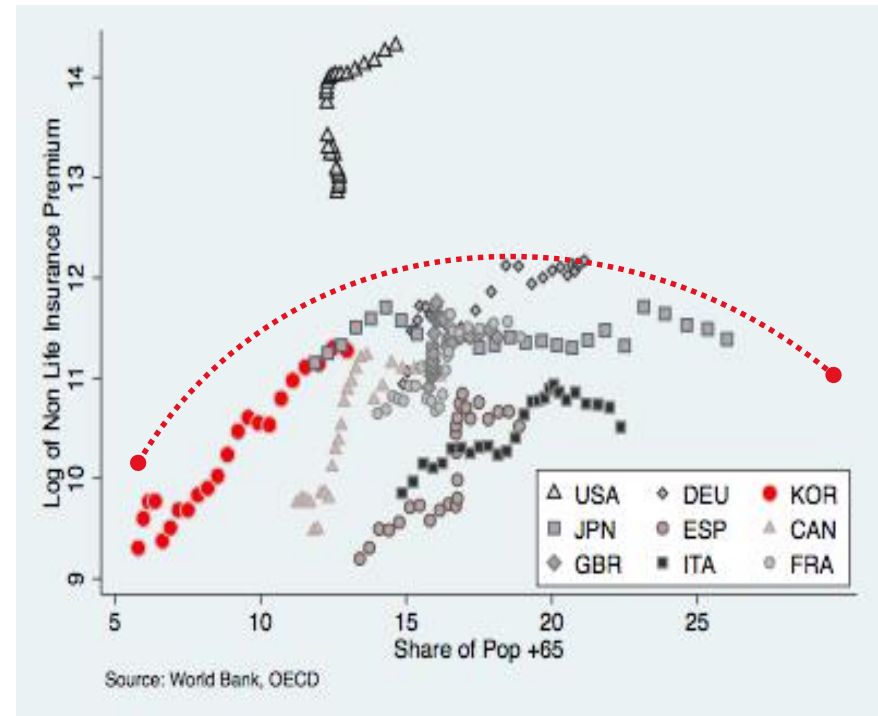
7) 수입보험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상승할수록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측됨
- 손해보험의 경우도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일본의 경우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됨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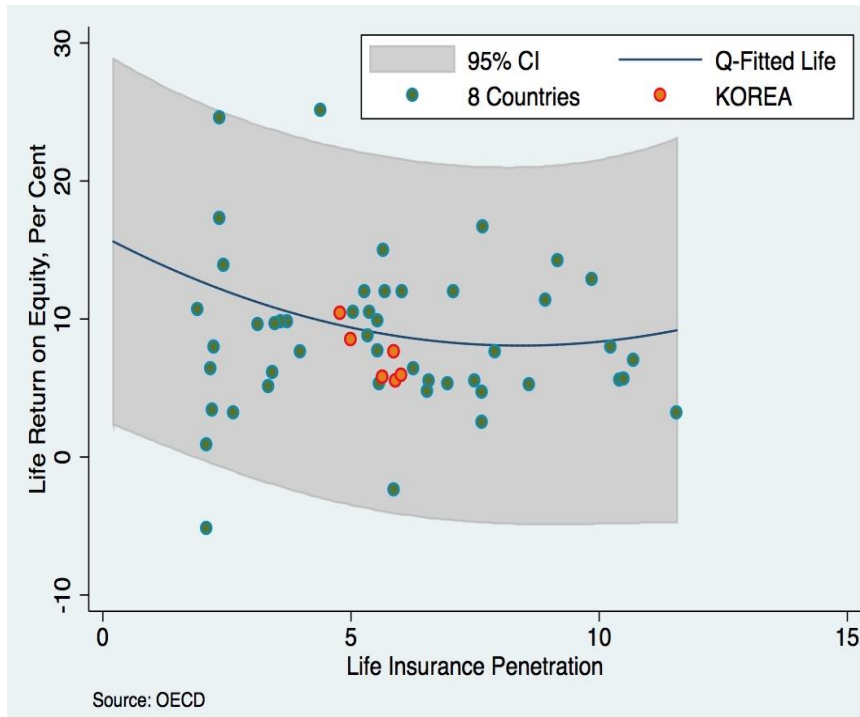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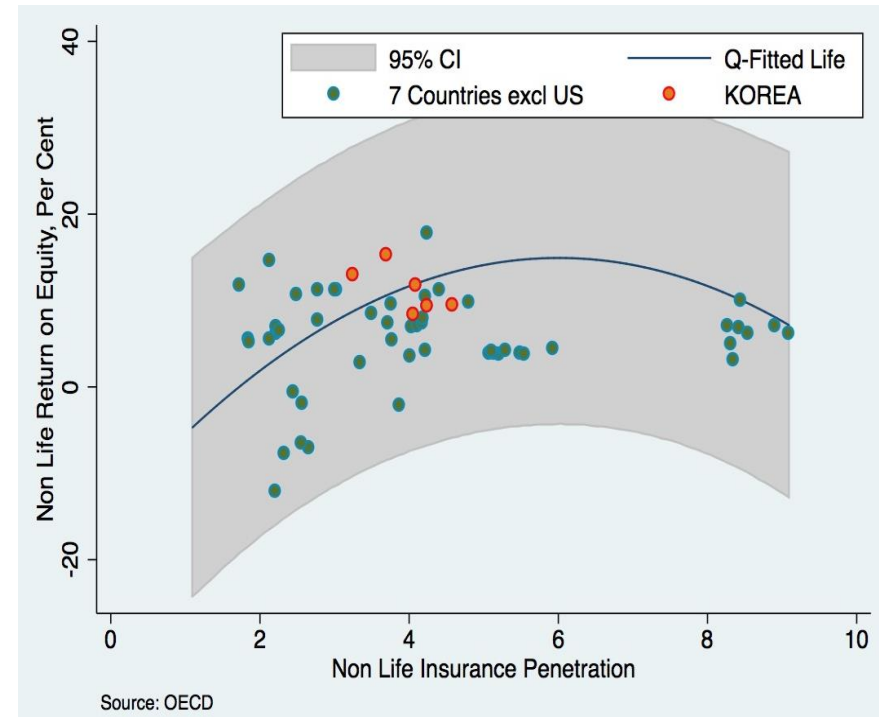
8) 규모와 수익성

- 생명보험 침투도가 상승할수록 자기자본이익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수익성이 미미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의 경우 침투도 상승은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지만 규모가 커지면 수익성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생명보험 침투도와 자기자본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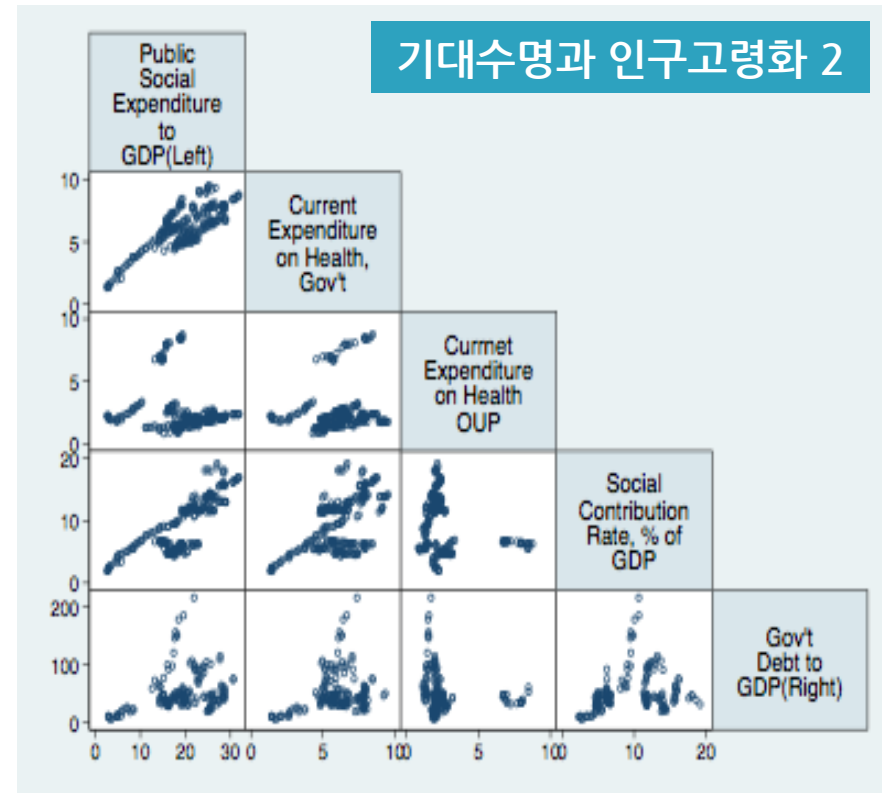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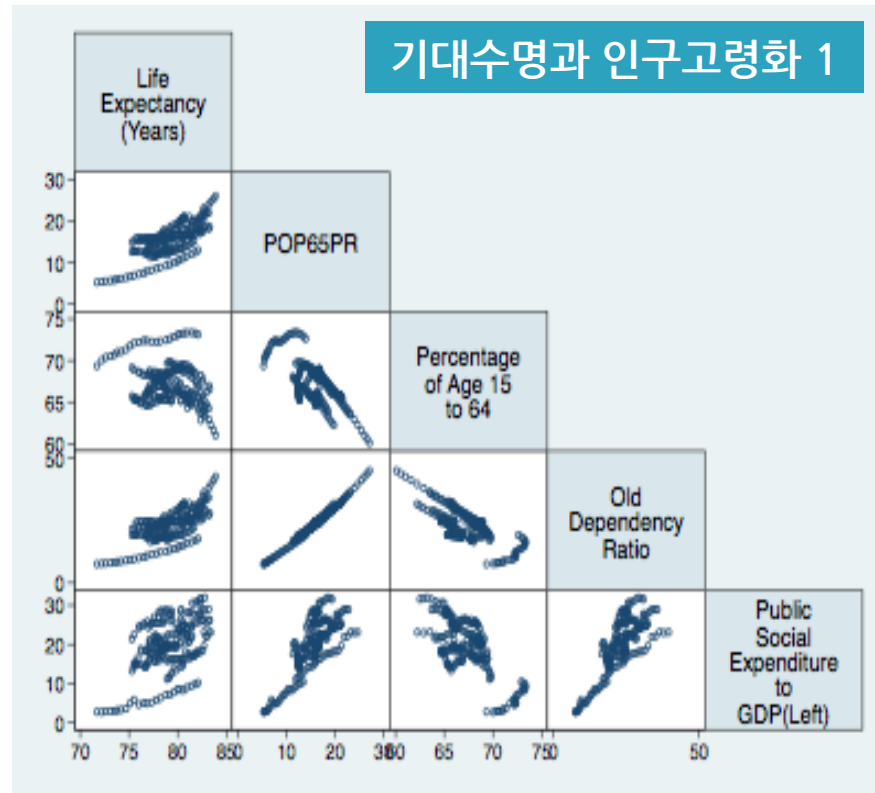


손해보험 침투도와 자기자본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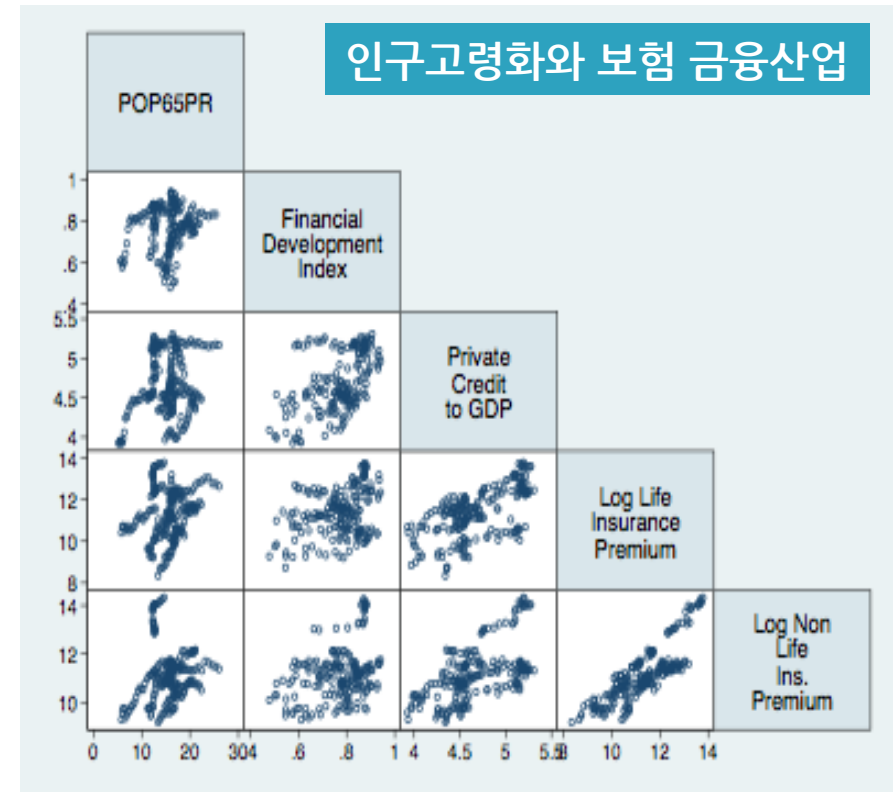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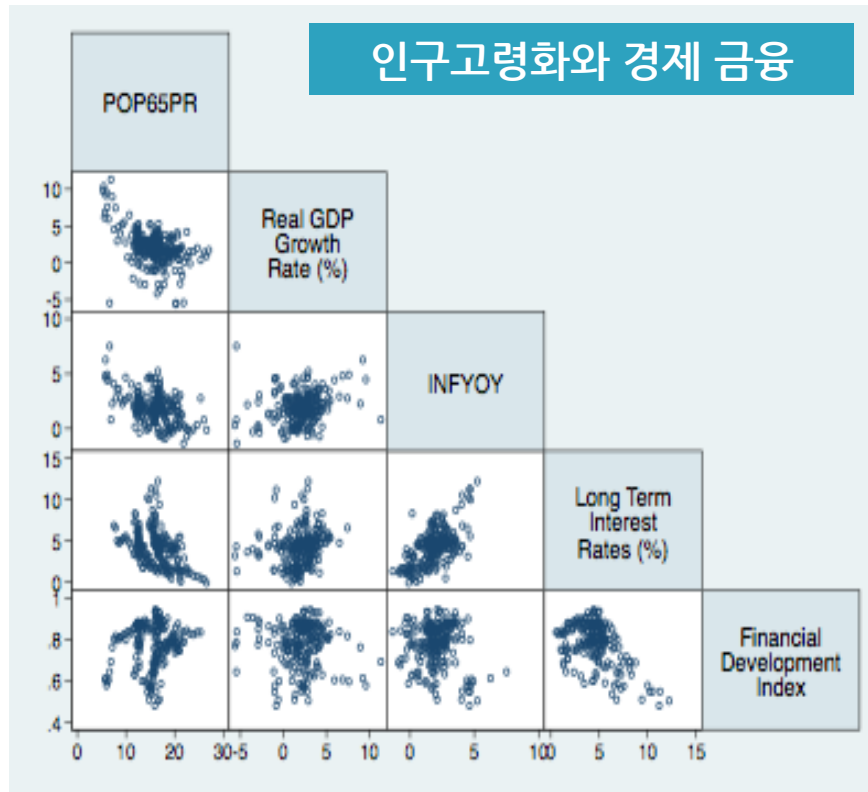
9) 요약

-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상승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 노인부양 비율 상승,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
-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상승은 정부의 의료비 지출, 사회보장 기여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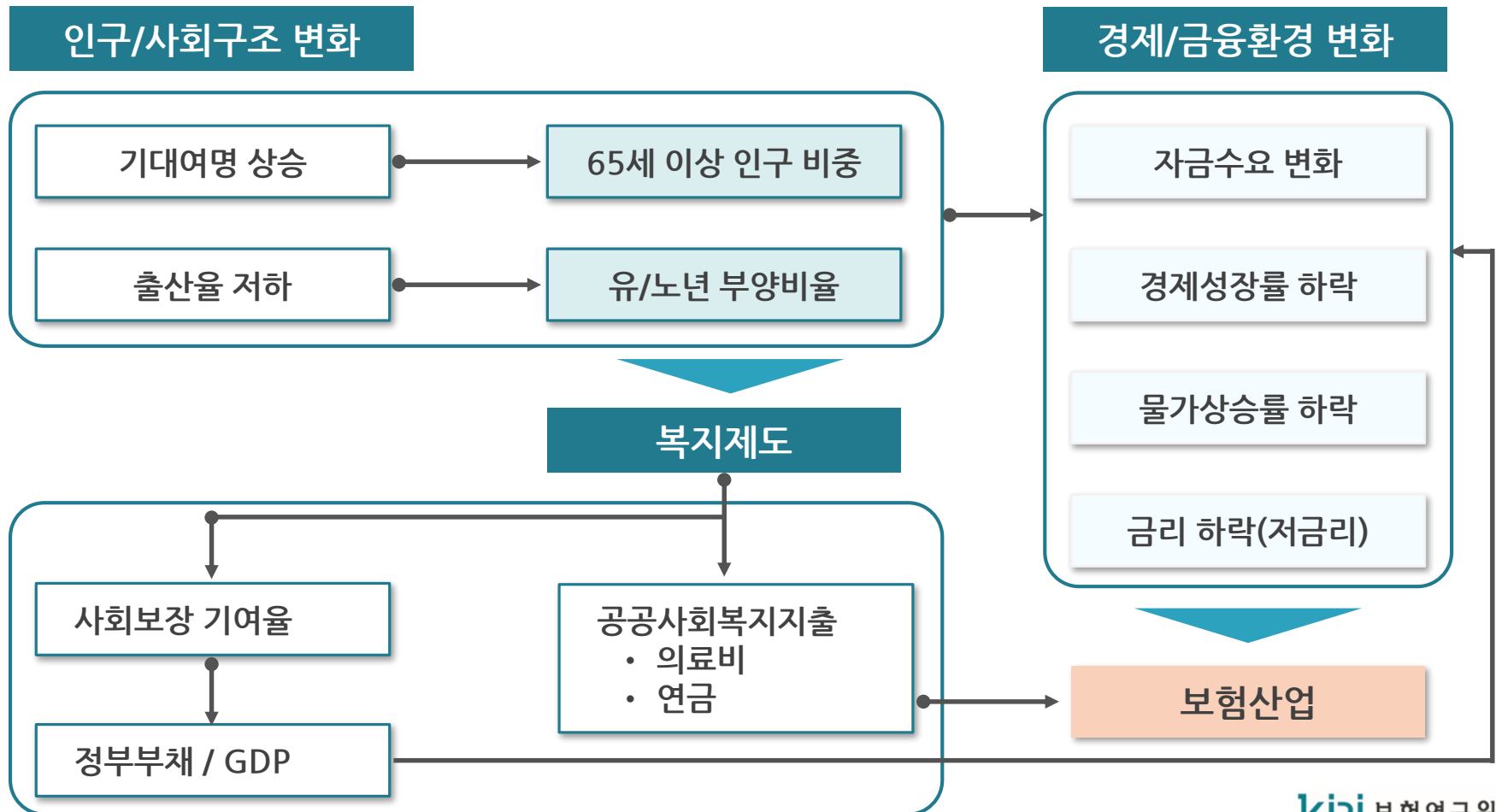
9) 요약(계속)

- 고령인구 비중 상승과 경제성장을 둔화, 물가상승률 둔화, 장기금리 하락은 서로 관련이 있어 보임
- 고령인구 증가는 신용시장의 성장세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료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령인구 비중 상승이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모습을 보임



3. 경영환경의 변화

- 기대여명 상승과 출산율 하락은 인구구조, 경제 및 금융환경, 복지제도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인구구조,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 복지제도 등의 경영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침



II.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1. 전망의 가정
2. 모형
3.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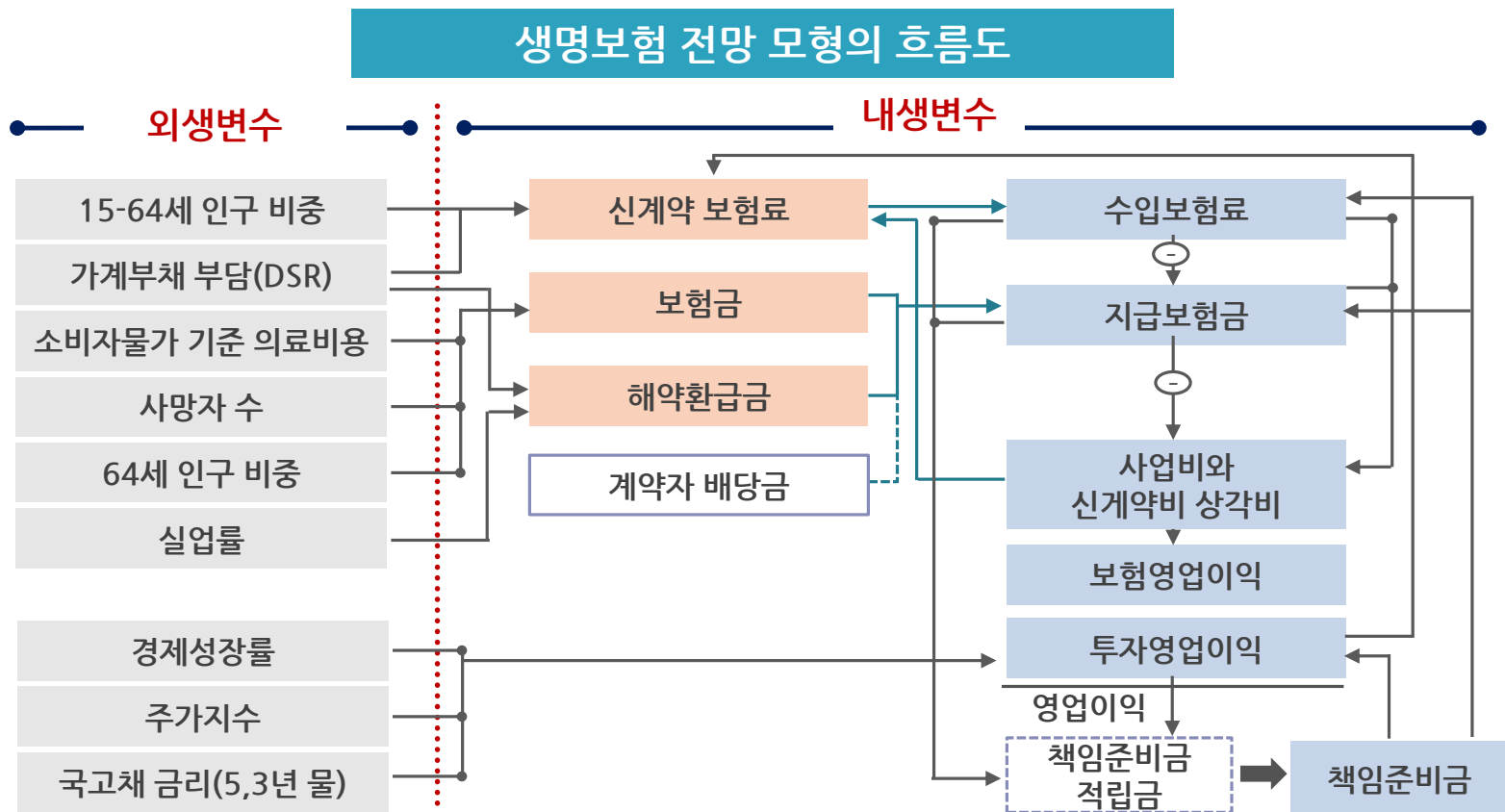
1. 전망의 가정

- OECD 국가들의 자료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전망의 기본 가정을 설정함
 -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반영하여 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 증가율을 매년 10%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함

외생변수	2017년 4/4분기-2022년 4/4분기	외생변수	2017년 4/4분기-2022년 4/4분기
사망자 수	전년동기 대비 0.05%p 증가	종합주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0.1% 상승
65세 이상 인구 비중	전년동기 대비 0.05%p 상승	실업률	3.4%-3.5% 내외
생산가능인구 비중	전년동기 대비 0.05%p 하락	손해보험 장기손해 신계약	매년 10% 감소
의료비 물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1% 상승	손해보험 지급준비금 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
경제성장률	기간 중 2.5% 유지	자동차보험 물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1% 하락
GDP 디플레이터	기간 중 2.5% 유지	자동차 등록대수	전년동기 대비 0.5% 증가
국고채 금리 3년	2018년 4/4분기까지 2.2%, 2019년 1/4분기 이후 2.25% 유지	콜금리	1.75%('18)에서 1.87%('22) 상승
국고채 금리 5년	2018년 4/4분기까지 2.3%, 2019년 1/4분기 이후 2.4% 유지	미국 국채금리(1년)	1.9%('18)에서 2.0%('22) 상승

1) 생명보험 전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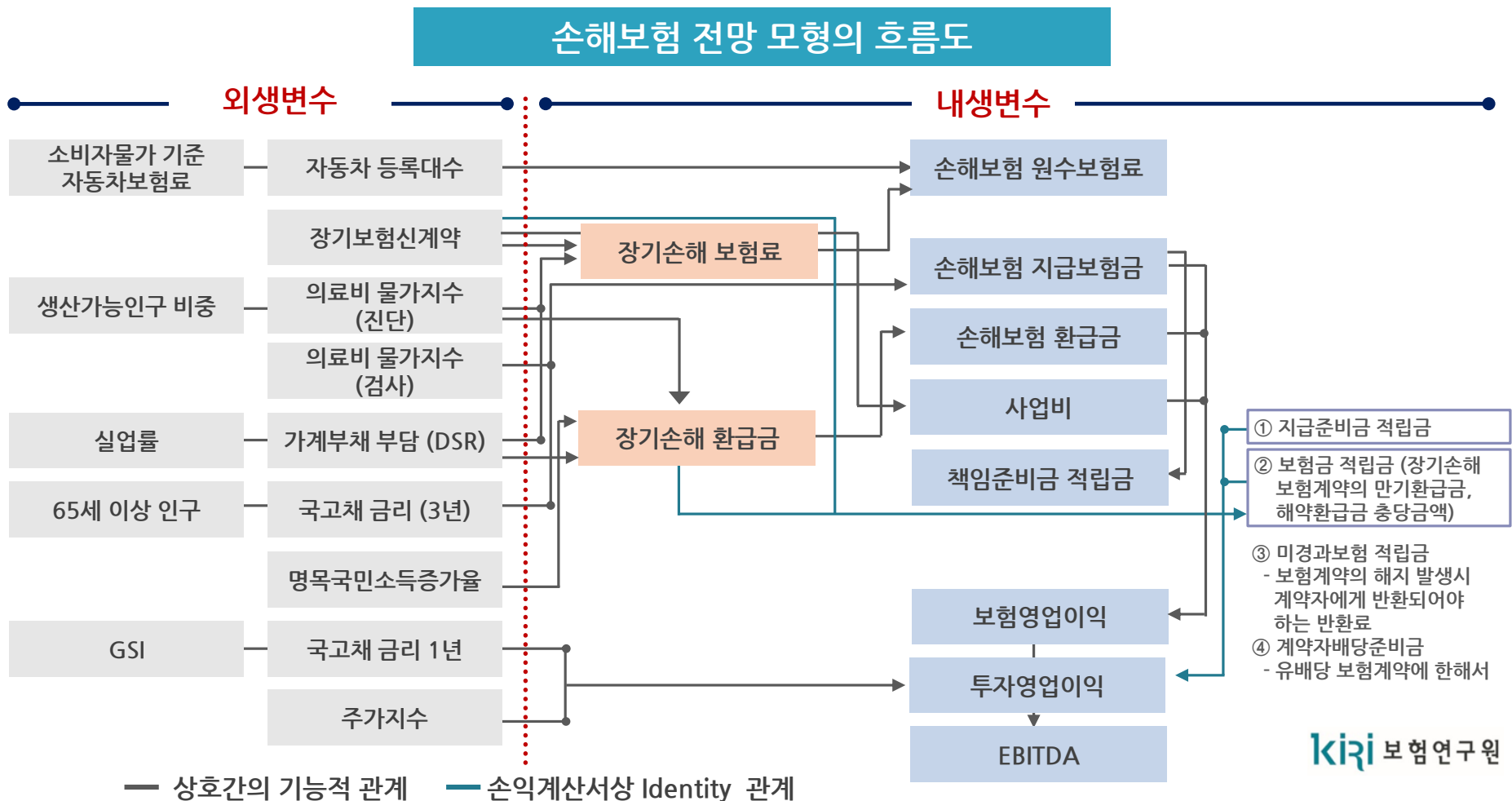
- 전체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이익 등이 내생변수이고 이들 변수들의 추세를 설명하는 변수들로 인구구조 관련 변수, 가계부채 부담, 경제성장률, 금리 등이 구성된 연립방정식 모형임



— 상호간의 기능적 관계 — 손익계산서상 Identity 관계

2) 손해보험 전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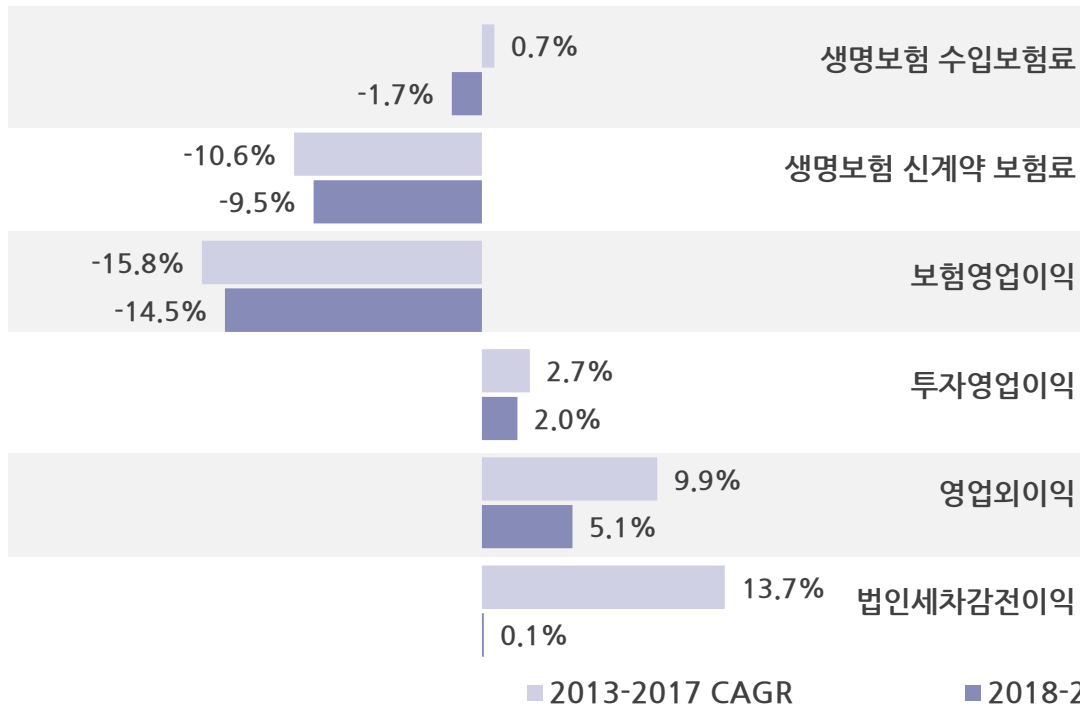
- 전체 원수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생명보험 모형과 동일한 내생변수를 추정하고 이들 변수들의 추세를 설명하는 변수들로 생명보험 모형과 유사한 변수들 이외에도 자동차 등록대수, 장기보험 신계약 등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모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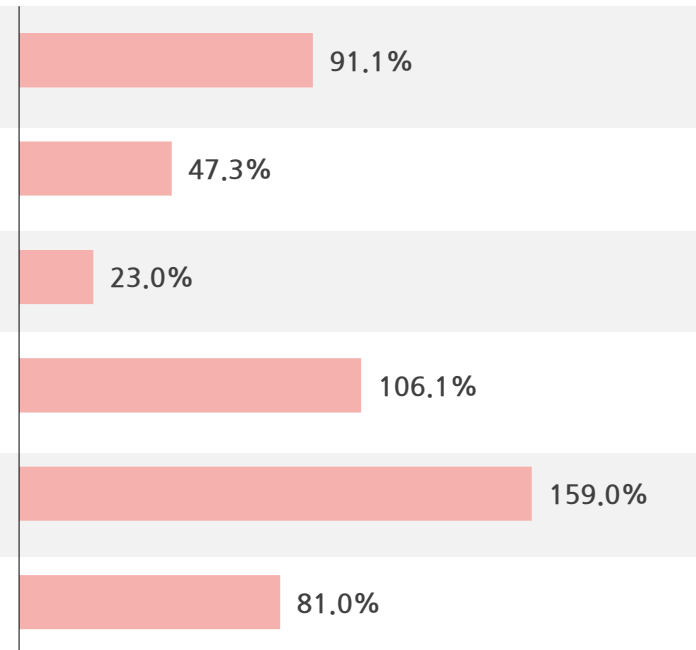
1) 생명보험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생명보험 주요 변수들을 2012년부터 2017년 기간과 비교하여 전망한 결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91.1%, 신계약 보험료는 47.3%, 보험영업이익은 23.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 증가율 기준으로는 수입보험료, 신계약 보험료와 보험영업이익은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생명보험 증가율 기준 중장기 전망



생명보험 금액 기준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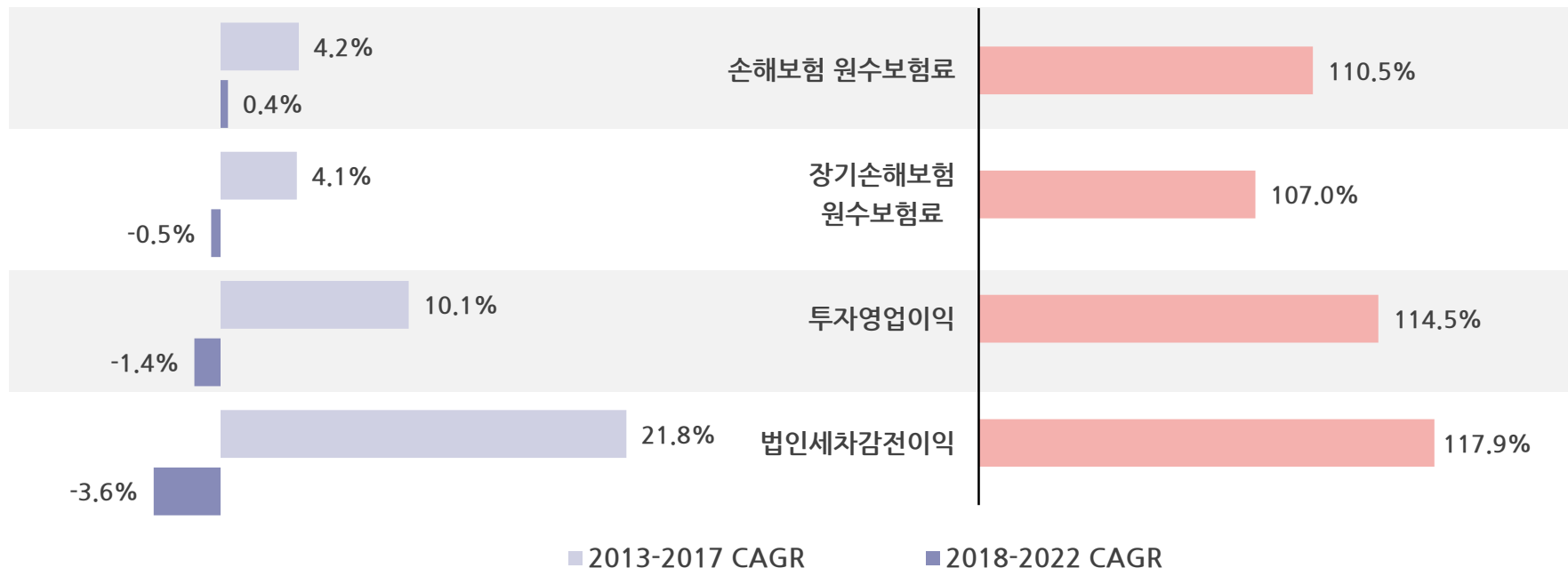


2) 손해보험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4.2%에서 0.4%로, 장기손해 원수보험료는 4.1%에서 -0.5%로, 투자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이익도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금액 기준으로는 원수보험료가 2013-2017년 평균 수준의 10% 증가하고 법인세차감전이익은 1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손해보험 증가율 기준 중장기 전망

손해보험 금액 기준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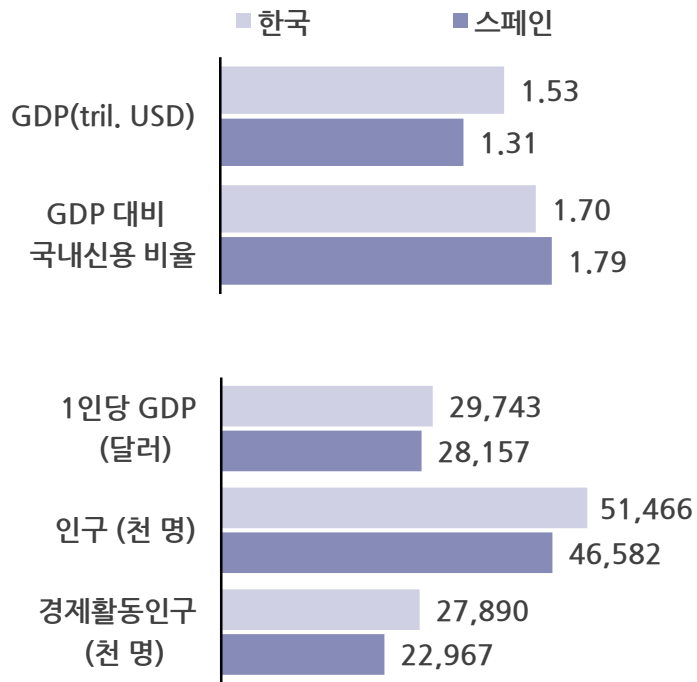
III. 수익성 제고 전략: 스페인 사례

1. 개요
2. 보험산업 규모
3. 수익성 제고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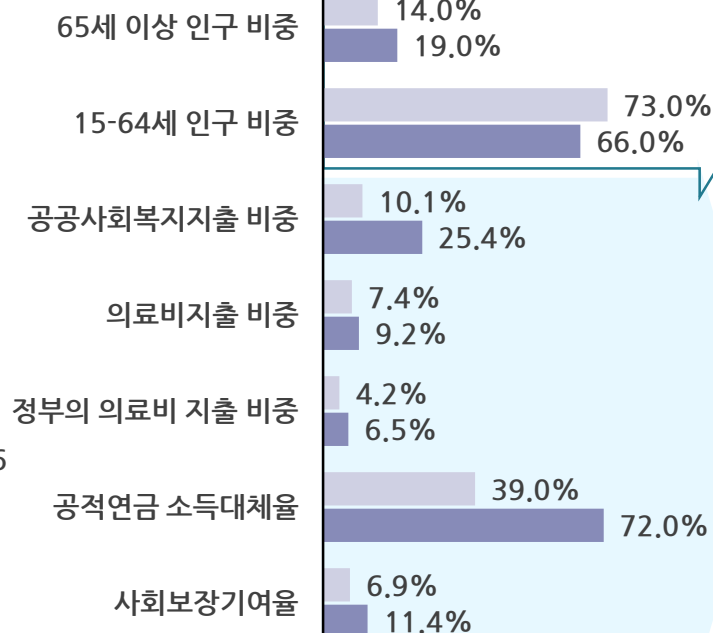
1)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 인구 사회 구조

- 경제규모, 인구규모는 우리보다 작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구고령화와 복지제도 확대를 경험하였고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상승, 복지제도 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경제 및 인구 규모



인구 고령화와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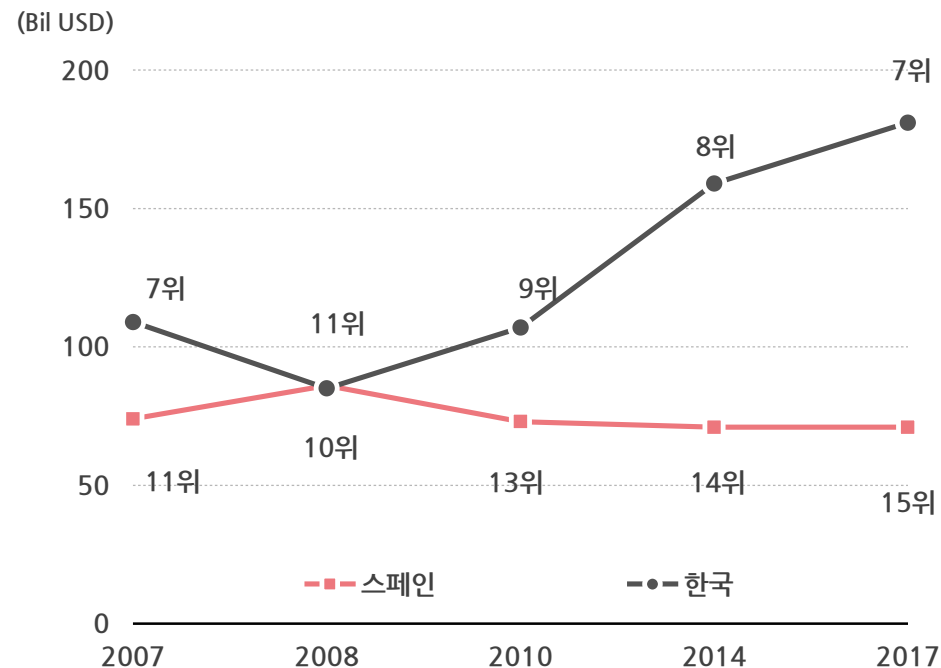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화

상대적으로
높은 복지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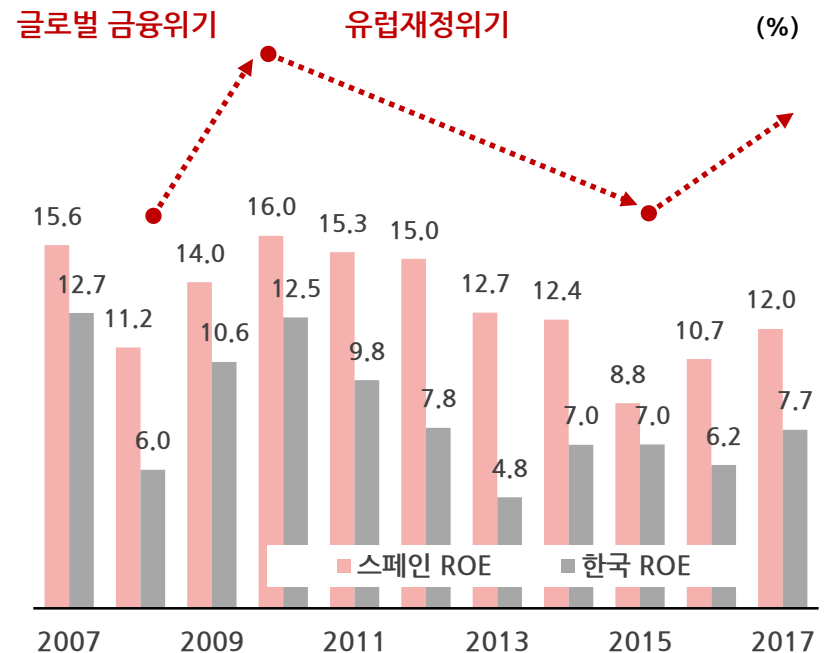
2) 작은 규모, 높은 수익성

- 우리나라와 스페인 보험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09년을 전후로 하락하고 있지만 스페인 수익성 회복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수입보험료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2017년 스페인 보험산업의 수익성은 2015년에 비해 3.2%p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는 커지지만 수익성은 0.7%p 상승에 그침

스페인과 우리나라 보험료 규모와 순위



스페인과 우리나라 보험산업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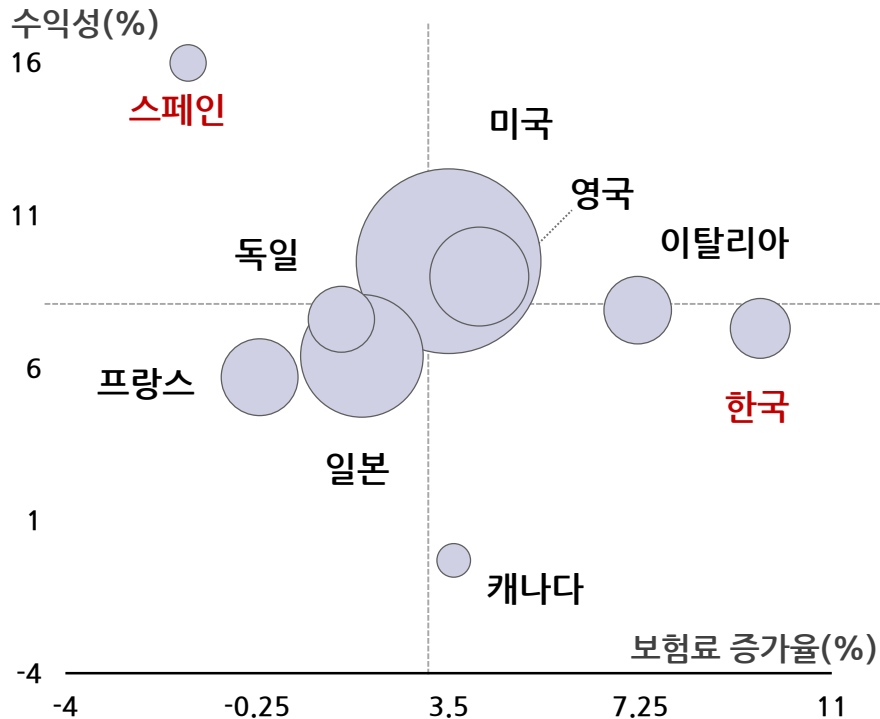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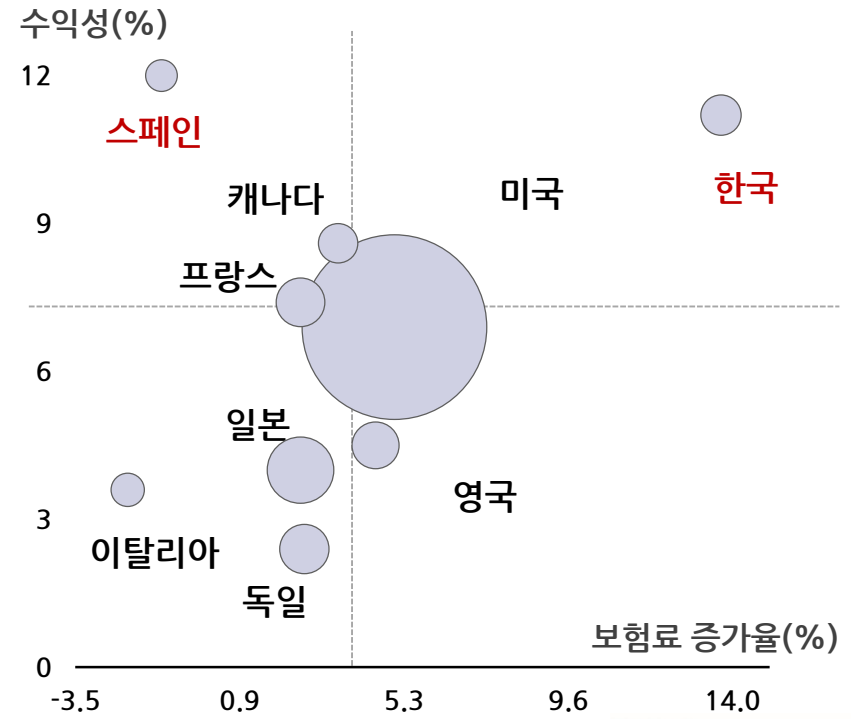
3) 보험료 증가율과 수익성

- 9개국의 2010-2015년 평균 보험료 증가율과 수익성 비교 결과, 생명보험에서 미국, 영국, 이탈리아가 성장성과 수익성이 평균 이상이고 손해보험의 경우 캐나다, 미국, 우리나라임
- 스페인의 경우 보험료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수익성은 평균 이상을 기록

생명 보험료 증가율과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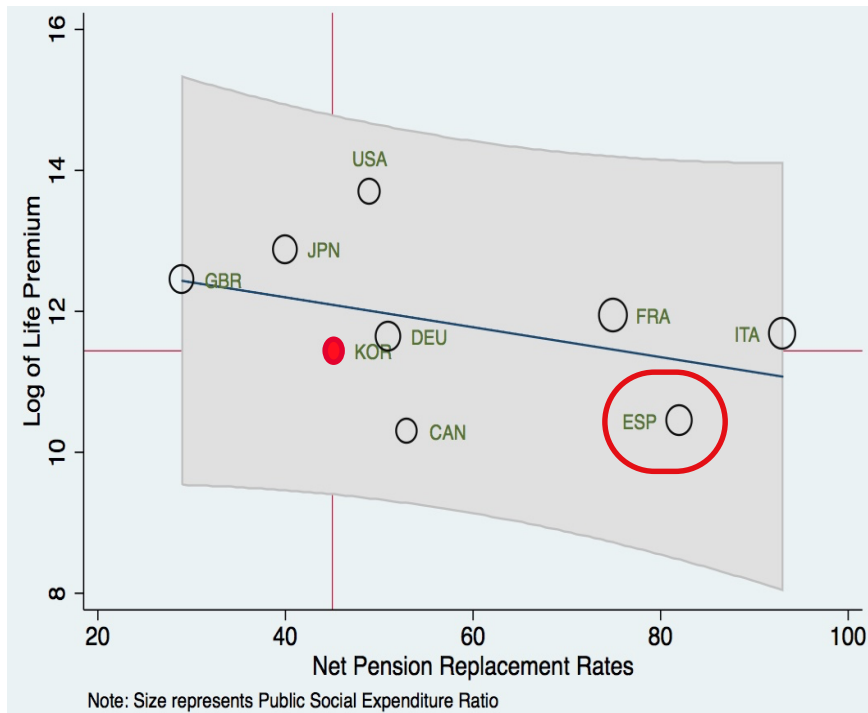
손해 보험료 증가율과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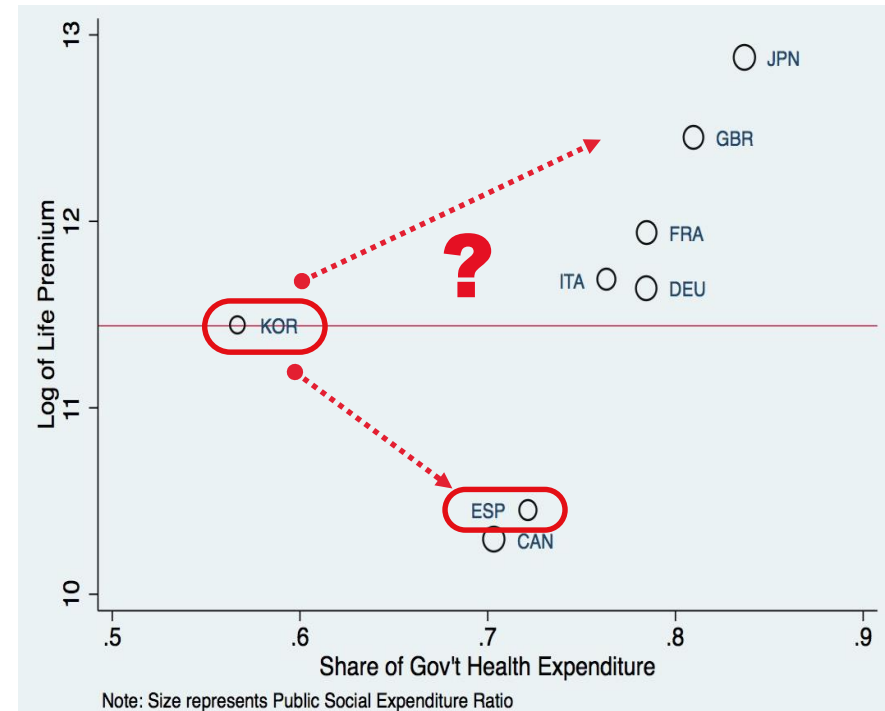
1) 사회보장제도와 보험산업 규모

- 스페인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높고 정부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아 보험수요가 적은 것으로 보임
- 분석대상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15년 평균 보험료와 2015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정부 의료비 지출 비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생명보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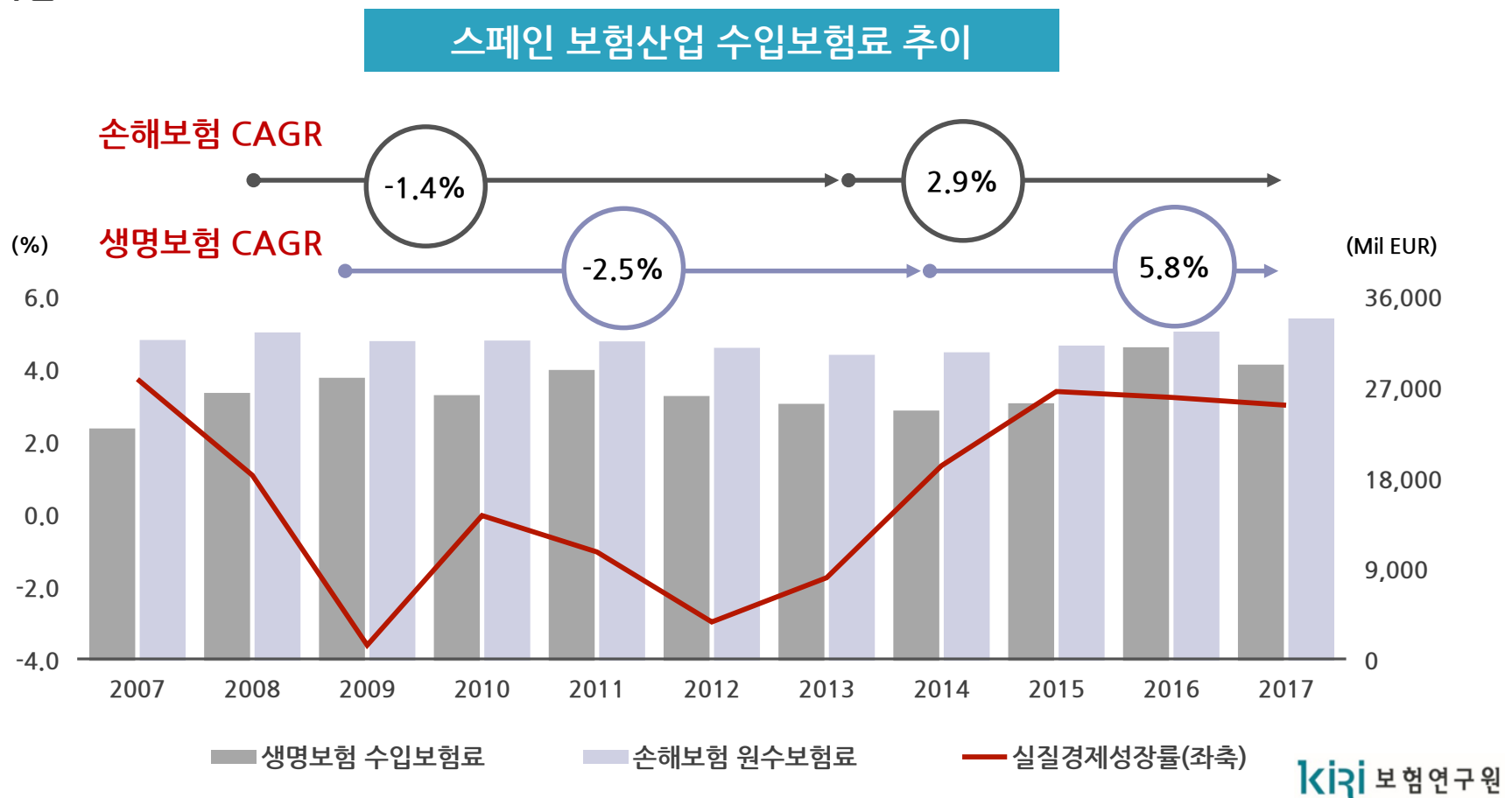


정부의 의료비 지출 증가와 생명보험 규모



2) 수입보험료

- 스페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이후 수입보험료가 감소함
 - 손해보험은 1.4%, 생명보험은 2.5% 감소함
- 2013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회복하면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5.8%, 손해보험은 2.9% 증가함



1) 개요

- 자산부채관리 규제에 따른 자산운용전략, 보증제도 정비 등 자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명보험 상품개발, 연금,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부합하는 상품개발, 자동차보험 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배상기준 및 보상 프로세스 단순화를 추진함

주요 전략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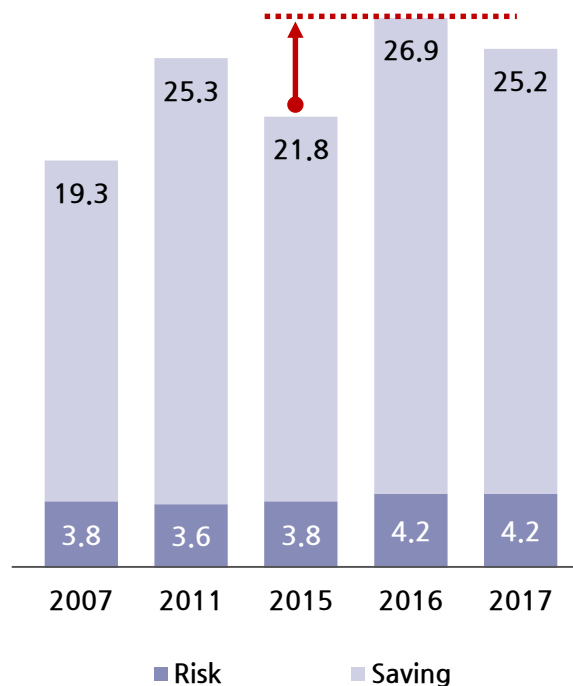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자산운용	• 국채 / 회사채 투자 비중 확대 • BBB 등급, 비투자등급(Non Investment Grade) • 주식 투자 비중 확대 / 현금 예치금 비중 축소: 주식 투자 비중은 2010년 4.5%에서 2017년 5.1%로 상승한 반면 현금 예치금 비중은 2007년 14.8%에서 2017년 8.8%로 축소	• 솔벤시 2의 자본부담 고려 •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 1998년 Orden 23/12/1998, Reglamento 20/11/1998에서 보험 부채의 현금흐름에 “적합한” 자산운용 방식을 규정
상품	• 생명보험 상품 보증제도 정비 • 생명보험 만기 시 보증이율 지급: 해지 시 보증이율 미지급 • 신상품 보증이율을 1% 미만으로 조정: 스페인 국채에 매칭(matching) • 변액보험(Unit-Linked) 판매 확대 • 손해보험 건강보험 상품 구조조정 • 저소득층에게 적합하게 보장범위 축소, 비용 인하	• Unit Linked 와 배당형 펀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Hybrid 상품 개발 • 미국, 영국 보험회사의 자본부담 경감 전략과 유사 • 미국, 영국의 경우 수수료 수익 확대
제도	• 교통사고 대인배상 기준 조정 • 경상환자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 바레모 개정을 통한 보험사기 억제 • 보상 프로세스 단순화 • 손해사정 평가기준 정립

2) 연금개혁과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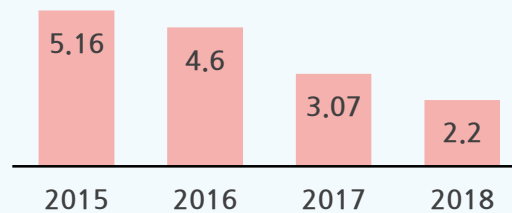
- 경제성장을 둔화, 저금리 등으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09년 281억 유로에서 2015년 256억 유로로 감소함
- 2014년 시작된 연금개혁안이 실질 연금지급액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위한 연금 및 저축 수요가 증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로 이어짐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Bil. EUR)



GDP 대비 공공재정 적자율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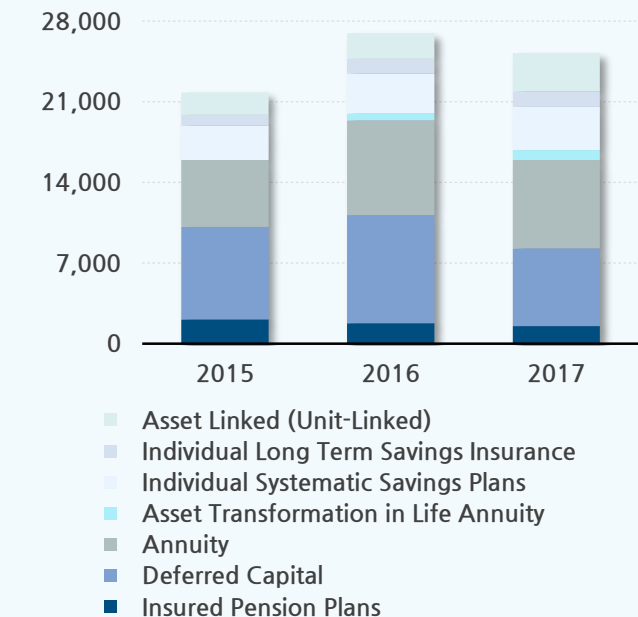


2014년 연금개혁안 발효

- 예산절감 목적
 - 10년 내 330억 유로 절감 예상
- 물가상승과 연동되지 않아 실질 연금지급액 감소
- 연금상승률 보증률 최소 0.25%
- 연금 수령연령 연장 계획
 - 현재 65세에서 67세로 연장

연금 / 저축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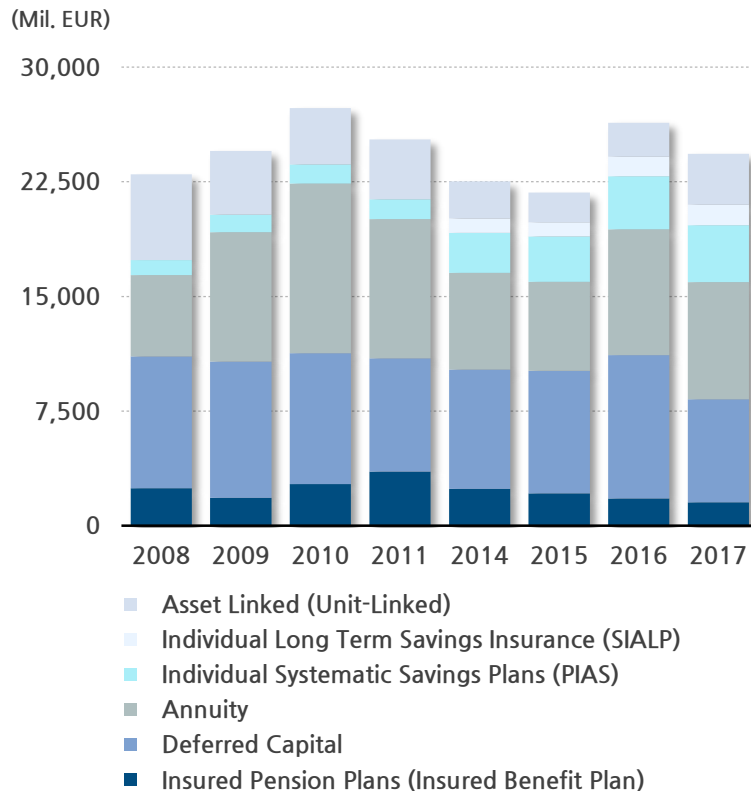
(Mil. EUR)



3) 생명보험상품 보증이율 조정

-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보증이율이 낮고 보증이율을 보험계약 기간 동안 변경할 수 있도록 유배당(Participation) / 변액(Unit-Linked) 상품을 조정, Hybrid 상품 개발함
- 정부는 세제혜택이 있는 신규 저축상품을 출시하여 가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유인함

종목별 저축성 보험 추이



Unit Linked

Hybrid Product

Participation

- Insurance based Investment Products
- 2016, 2017년 경제성장률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펀드 수익률 상승으로 판매 증가
- Unit Linked 와 유사한 Individual Systemic Savings Plan 출시(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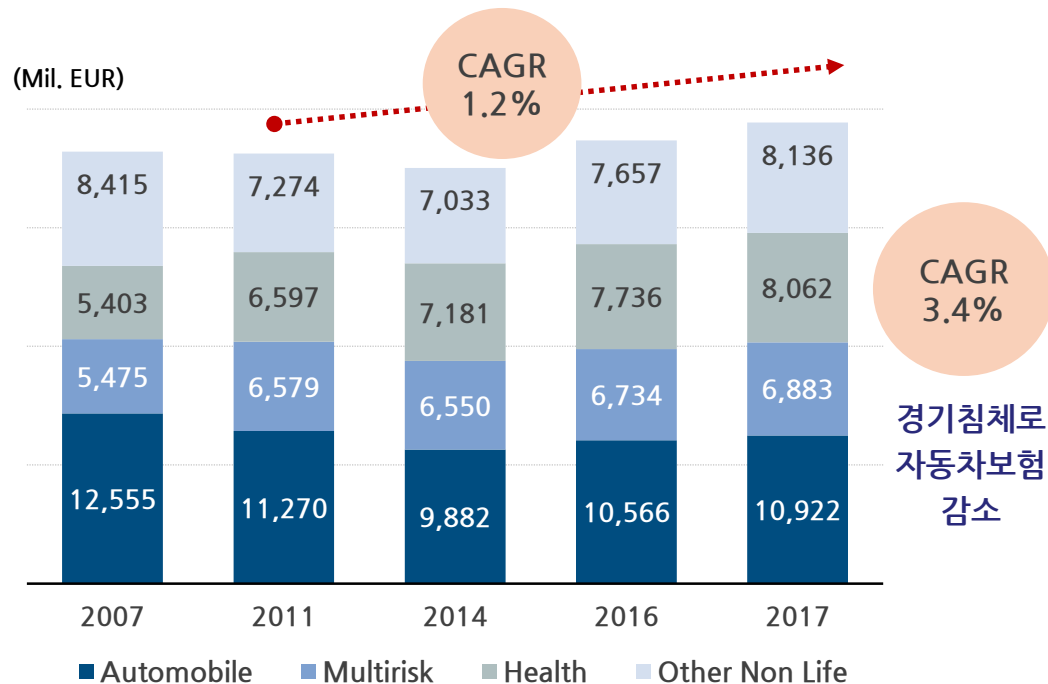
- 최저보증이율(법으로 규정)과 이익배당 옵션이 있는 중장기 저축상품
- 저금리 지속으로 보증이율 1% 이하 인하
- 보증이율을 반기에 한 번씩 조정
- 투자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보증이율인하 가능한 상품개발¹⁾

주 1: Moody's Investors Service(2015. 3. 26), "Low Interest Rates are Credit Negative for Insurers Globally, but risks vary by Country"

4) 건강보험 정책과 손해보험

- 2010년부터 시작된 의료 및 보건부문 비용절감 정책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민영 건강보험이 증가함
- 사회보장세 납부자와 부양가족이 공립병원 진료, 입원 시 무상 의료혜택을 가능하게 하며 처방에 의한 의약품 구입 시 소득수준에 따라 10-60%를 부담함
-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 국민 의료보험 국가이지만 공적의료보험 이외에도 민영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공공 의료보험 재원 조달

-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연금 기여금과 통합)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전체의 77%, 나머지 23%는 민간에서 조달
 - 피고용인 4.7%, 사용자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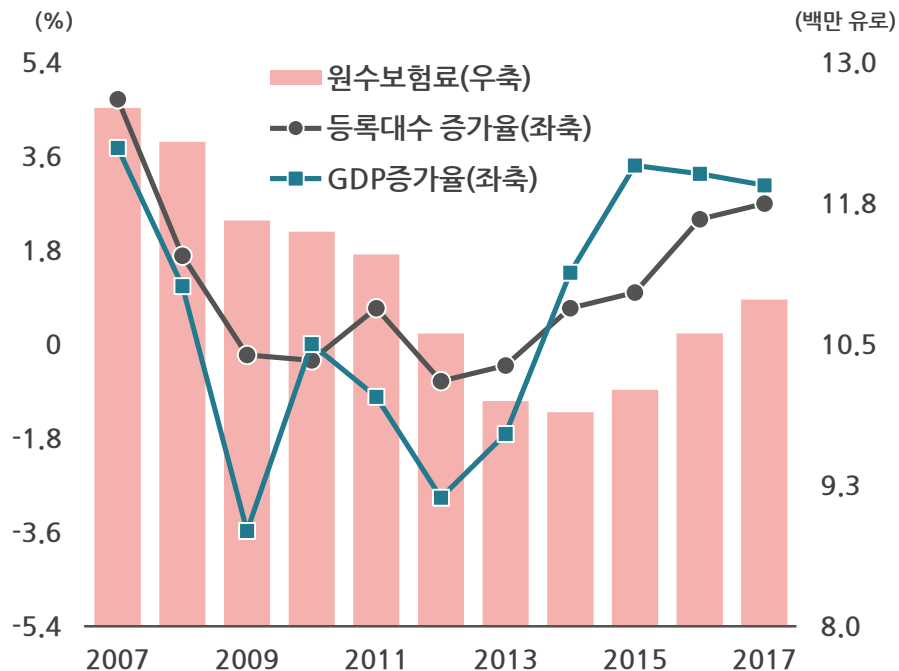
민간 의료보험 수요와 보험

- 2010년부터 시작된 의료 및 보건부문 비용절감 정책
 - 의료서비스 대기 시간 장기화, 고급 의료 시설 수요 증가
 - 2011년부터 건강보험료 3.4% 증가
 - 동 기간 손해보험 보험료 1.2% 증가
- 손해보험회사의 건강보험 보험료 증가
 - 1986년 12.8%에서 2017년 23.7%로 증가
 -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보험상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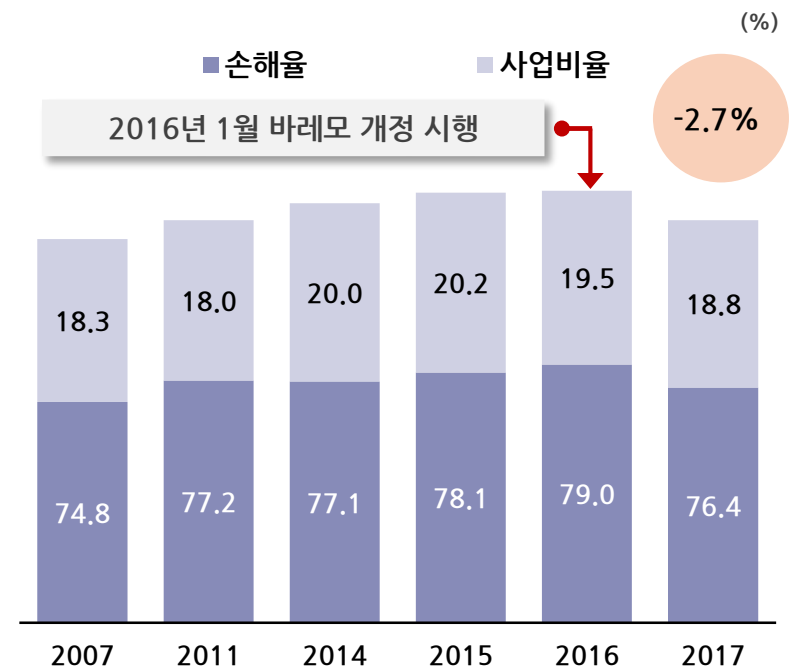
5) 자동차보험과 손해보험

- 경기침체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감소하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도 2014년까지 감소함
- 2015년 이후 경제성장을 상승으로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도 증가하고 있으나 손해율과 사업 비율은 하락하고 있음
- 2016년 1월 바레모(Baremo) 개정 시행으로 책임보험 보험금 지급규모가 전년 대비 2.7% 감소

경제성장률과 자동차보험 주요 지표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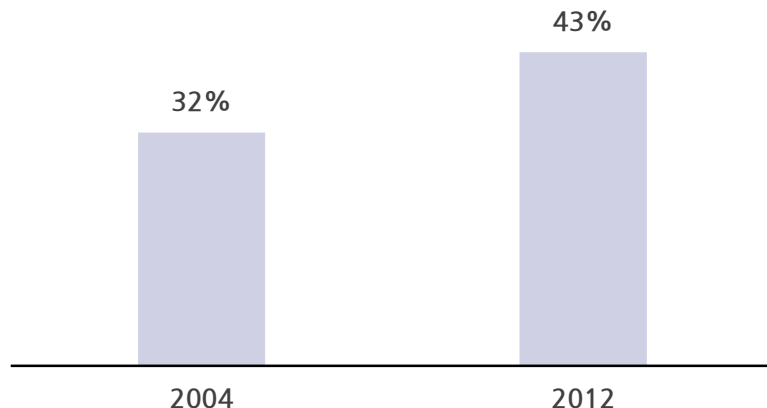


6)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 억제

- 2016년 1월 개정된 바레모 시행으로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이 감소,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개선됨
- 바레모는 1995년 자동차보험 배상시스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사망, 후유장애, 경상사고(Temporary disability)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 2016년 개정은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도는 상향하고 경상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엄격하게 규정함

경상환자 급증과 자동차보험 형평성 문제

대인배상 금액 중 경상환자 보험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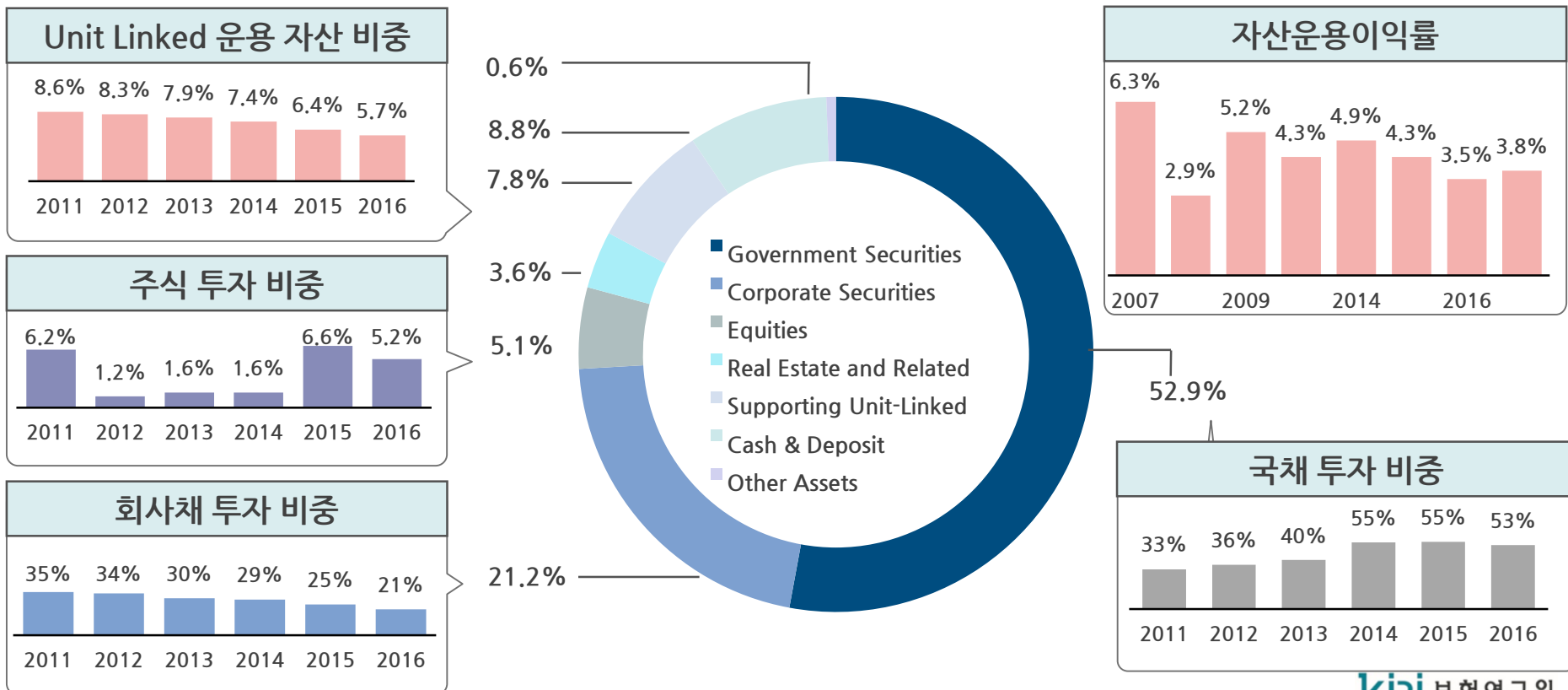
부상 보험금 지급 규정 강화

- Motor Vehicles Public Liability and Insurance Act of 29 October 2004 개정
- 보험금 과잉청구 등 보험사기 억제 목적
- 대표적인 경상사고인 경추염좌(whiplash) 보상은 경추염좌 의료진단, 상실수익 관련 의사의 진단서, 상해의 발생과 상실수익 간 연관관계 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짐 (135조)
- 2016년 1월 시행 후 2017년 책임보험금 보험금 지급규모가 전년대비 2.7% 감소함

7) 자산운용

- 스페인 보험산업 운용자산 규모는 2017년 2,920.6억 유로로 이 중 생명보험 비중이 80%임
- 솔벤시 2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채 투자 비중을 낮추고 국채 비중을 50%이상으로 높였고 운용자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투자 비중과 BBB 등급 회사채 투자 비중을 높임

2017년 운용자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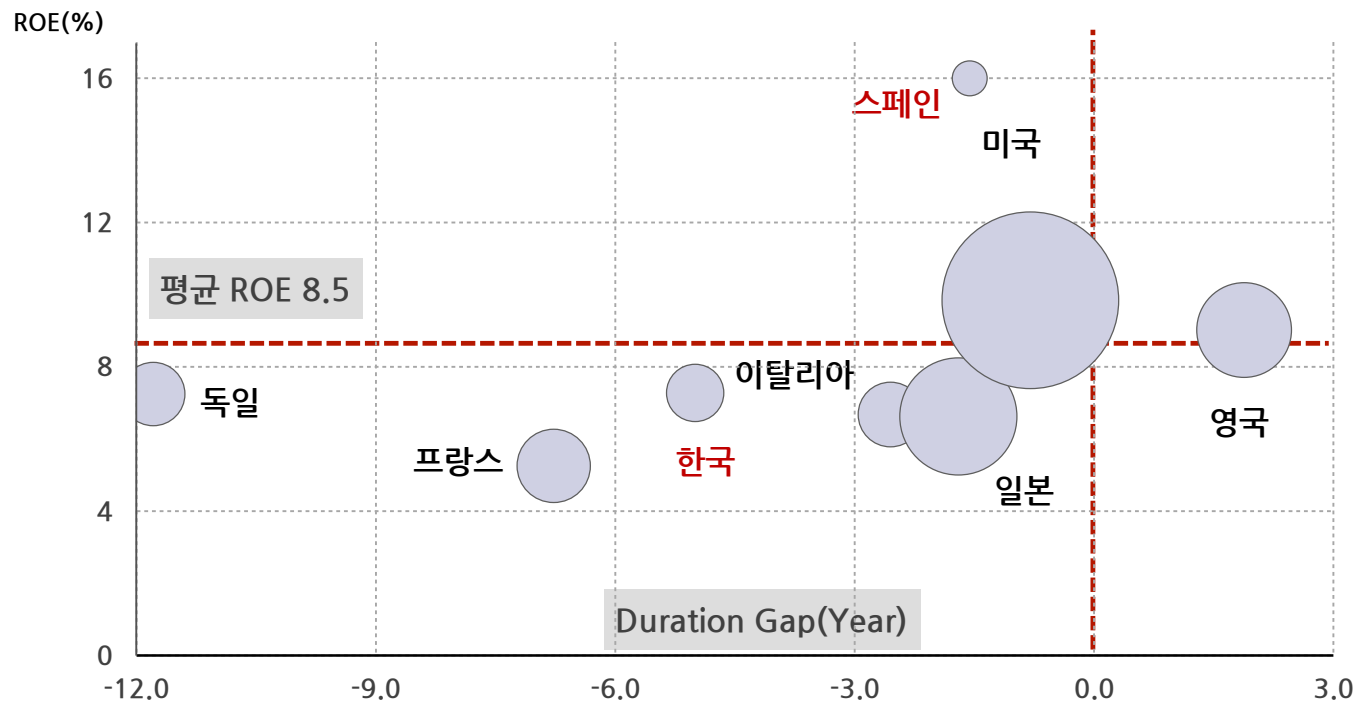


자료: MAPFRE(2018); Insurance Europe(2018)

8) ALM과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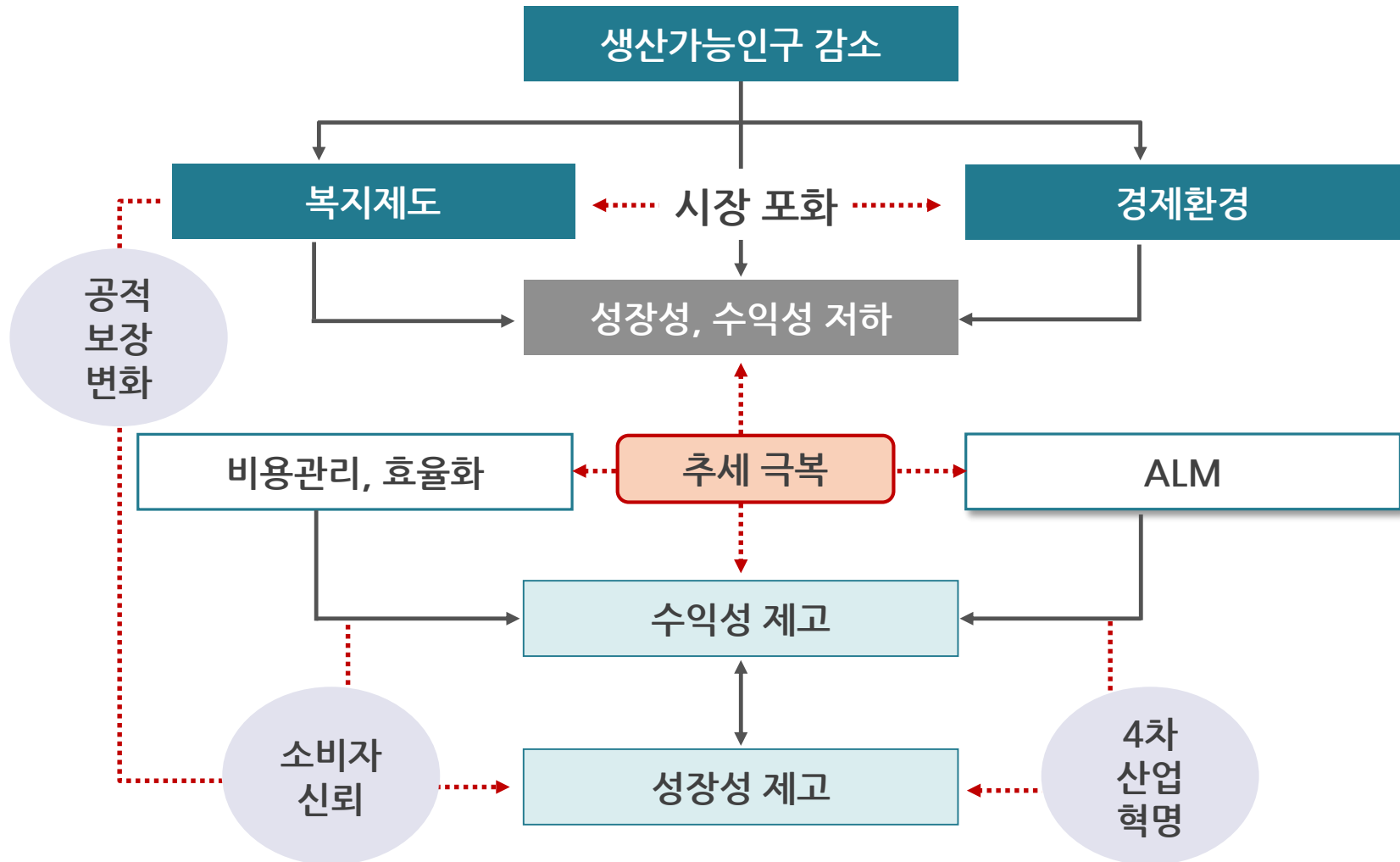
- 1998년 제정된 ALM 관련 법률은 보험상품 개발에 필요한 할인율을 규정하고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에 “적합한” 자산운용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부채에 매칭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부채의 현재가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실효 듀레이션은 동일하거나 차이가 1% 미만이어야 함을 규정

2015년 기준 듀레이션갭과 생명보험 자기자본이익률



주: 동그라미의 크기는 2010-2015년 평균 보험료

9) 요약



감사합니다
